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2013년 6월

##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연구보조원 :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 이미란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 박현수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이상경)

본 보고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로, 올해에는 재단 연구위원 2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행복지수 이외 일상생활 만족도, 학교폭력 등의 주제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청소년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제1장 연구방법 및 내용 .....	9
A.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9
1. 연구목적 .....	9
2. 주요 연구내용 .....	9
B. 연구방법 .....	10
1. 설문조사 .....	10
1) 조사설계 .....	10
2) 표본 특성 .....	11
2. OECD 자료 .....	12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6
제2장 연구결과 요약 .....	18
A. 행복지수 분석 : 한국과 OECD 비교 .....	19
1.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가비교 .....	19
2. 2013년도 OECD 국가 행복지수 영역별 비교 .....	21
B. 2009년~2013년 한국 행복지수 변화추이 .....	22
1. 한국 행복지수 영역별 변화추이 .....	22
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상대적 행복도 변화추이 .....	23
C. 생활양식 및 행복 가치관 .....	23
1. 주관적 행복과 생활 만족도 .....	23
2. 행복 가치관 .....	26
3. 가족과 친구관계 .....	28
4. 사교육 실태 .....	30
5. 주관적 미래 전망 .....	31
D.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	35
1.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35
2. 가출 및 자살 .....	41
제3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	43
A. 물질적 행복 .....	44
B. 보건과 안전 .....	45
C. 교육 .....	46
D. 가족과 친구관계 .....	47
E. 행동과 생활양식 .....	48
F. 주관적 행복 .....	50
G. 행복지수 분석 .....	51

제4장 생활양식과 행복 가치관 .....	52
A. 생활만족도 .....	53
1. 일상생활 만족도 .....	53
1) 생활 영역별 만족도 .....	53
2)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54
2. 부모와의 관계 .....	56
1) 부모자녀 관계 .....	56
2) 부모와의 대화 내용 .....	57
3. 교우관계 .....	58
1) 친구관계 .....	58
2) 친구관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60
4. 사교육 실태 .....	61
1) 사교육 이용률 .....	61
2)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	63
3) 사교육 시간 .....	64
5. 일상생활 .....	66
1) 귀가시간과 수면시간 .....	66
2) 스마트폰 이용실태 .....	67
B. 행복도·스트레스 및 행복 가치관 .....	69
1. 주관적 행복과 스트레스 .....	69
1) 주관적 행복도 .....	69
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	71
3) 스트레스 수준 .....	73
2. 행복에 대한 의식 .....	77
1)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	77
2) 행복 준거집단 및 장소 .....	78
3) 행복하지 않을 때 .....	80
4)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81
3.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미래 전망 .....	84
1) 기대학력 .....	84
2) 장래 희망직업 .....	86
3) 멘토 및 역할모델 .....	88
제5장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	89
A.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90
1. 학교폭력 인식 수준 .....	90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	90
2)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	91
2. 학교폭력 피해 실태 .....	93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93
2)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	95
3) 학교폭력 피해 유형 .....	97
4) 학교폭력 피해 장소 .....	98
5) 학교폭력 경험 시 도움요청 실태 .....	99

3. 학교폭력 가해 실태 .....	102
1)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 .....	102
2) 최근 1년간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104
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특성 .....	108
1) 학교폭력 경험 유형 .....	108
2)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의 수 .....	111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가해 경험자수 .....	112
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	113
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 .....	114
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115
7)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	116
8)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7
B. 가출 및 자살 .....	118
1. 가출 .....	118
1) 가출충동 경험 .....	118
2) 가출충동 발생 이유 .....	120
3) 가출시도 경험 .....	122
2. 자살 .....	124
1) 자살충동 경험 .....	124
2) 자살충동 발생 이유 .....	126
제6장 주관적 행복 영향요인 종합분석 .....	130
A. 분석모형 .....	131
B. 2012년 자료 분석 .....	133
1. 2012년 전체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33
2. 2012년 초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36
3. 2012년 중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37
4. 2012년 고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39
C. 2013년 자료 분석 .....	141
1. 2013년 전체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41
2. 2013년 초등학생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43
3. 2013년 중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45
4. 2013년 고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147
부록 : 설문지 .....	149

<표 1-1> 주요 연구내용 .....	9
<표 1-2> 설문조사의개요 .....	10
<표 1-3> 표본 특성 .....	11
<표 1-4>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	12
<표 1-5> 2009년~2012년 측정지표 .....	14
<표 1-6>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의 지표별 표준점수 .....	17
<표 2-1> 2013년도 영역별 OECD 국가 행복지수 .....	20
<표 3-1> 물질적 빈곤 영역 국제비교 .....	44
<표 3-2> 보건과 안전 영역 국제비교 .....	45
<표 3-3> 교육 영역 국제비교 .....	46
<표 3-5>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 국제비교 .....	47
<표 3-6>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 국제비교 .....	49
<표 3-7> 주관적 행복 영역 국제비교 .....	50
<표 3-8> 행복지수 분석 .....	51
<표 3-9> 2013년도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	51
<표 4-1> 2013년 생활 영역별 만족도 .....	53
<표 4-2> 2011년~2013년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_ 학교급별 .....	54
<표 4-3> 2013년 부모자녀 관계 .....	56
<표 4-4> 2011년~2013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추이 .....	56
<표 4-5> 2013년, 부모와의 대화 내용 .....	57
<표 4-6> 긍정적 감정 경험 수준 .....	58
<표 4-7> 부정적 감정 경험 수준 .....	59
<표 4-8> 학습중인 사교육 기관 및 서비스 수 .....	63
<표 4-9> 2011년~2013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추이 .....	63
<표 4-10>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	64
<표 4-11> 2011년~2013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	65
<표 4-12> 평일 귀가시간 .....	66
<표 4-13> 평일 평균 수면시간 .....	66
<표 4-14> 스마트폰 사용(예상) 기능 .....	66
<표 4-15> 주관적 행복도 .....	69
<표 4-16> 2013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	71
<표 4-17> 2011년~2013년 세부요소별 주관적 행복 변화추이 .....	72
<표 4-18> 2011년~2013년 세부요소별 주관적 행복 변화추이 : 학교급별 .....	72
<표 4-19> 스트레스 수준 : 범주별 .....	73
<표 4-20> 스트레스 수준 : 세부 요소별 .....	74
<표 4-21> 2011년~2013년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	75
<표 4-22> 2011년~2013년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 학교급별 .....	76
<표 4-23>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	77
<표 4-24>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	78
<표 4-25>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및 상황 .....	80
<표 4-26> 행복의 요건 .....	81

<표 4-27> 2011년~2013년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_ 학교급별 .....	83
<표 4-28> 최종 기대학력 .....	84
<표 4-29> 2011년~2013년 최종 기대학력 변화추이 .....	85
<표 5-1>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89
<표 5-2> 학년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90
<표 5-3>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	91
<표 5-4> 학년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	92
<표 5-5>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 .....	93
<표 5-6> 학년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 .....	94
<표 5-7>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	95
<표 5-8> 학년별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	96
<표 5-9>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	97
<표 5-10>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장소 .....	98
<표 5-11>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방법 .....	99
<표 5-12> 학년별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방법 .....	100
<표 5-13> 학교폭력 발생시 가장 도움이 되는 요청방법 .....	101
<표 5-14>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유무 .....	101
<표 5-15> 학년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유무 .....	103
<표 5-16> 최근 1년간 내가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104
<표 5-17> 학년별 최근 1년간 내가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105
<표 5-18>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	106
<표 5-19> 학년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	107
<표 5-20> 학교폭력 경험 유형 .....	108
<표 5-21>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	109
<표 5-22>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	110
<표 5-2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의 수 .....	111
<표 5-24>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	112
<표 5-2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 .....	113
<표 5-2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 .....	114
<표 5-27>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115
<표 5-28>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	116
<표 5-29> 가출충동 발생 이유 .....	120
<표 5-30> 2011년~2013년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	121
<표 5-31> 자살충동 발생 이유 .....	126
<표 5-32> 2011년~2013년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	128
<표 6-1> 2012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33
<표 6-2> 2012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35
<표 6-3> 2012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37
<표 6-4> 2012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39
<표 6-5> 2013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41
<표 6-6> 2013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43
<표 6-7> 2013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45
<표 6-8> 2013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	147

<그림 2-1>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	19
<그림 2-2> 2011년~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	21
<그림 2-3> 2011년~2013년 상대적 행복도 변화 .....	22
<그림 4-1> 2011년~2013년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	56
<그림 4-2> 2011년~2013년 긍정적 감정 변화추이 .....	60
<그림 4-3> 2011년~2013년 부정적 감정 변화추이 .....	61
<그림 4-4> 사교육 이용률 .....	61
<그림 4-5> 2011년~2013년 사교육 이용률 변화추이 .....	62
<그림 4-6> 스마트폰 사용률 .....	67
<그림 4-7> 스마트폰 사용(예상) 기능 .....	67
<그림 4-8> 2011년~2013년 주관적 행복도 변화추이 .....	70
<그림 4-9> 2011년~2013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의 변화추이 .....	79
<그림 4-10> 2011년~2013년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 전체 .....	80
<그림 4-11> 장래 희망직업 .....	86
<그림 4-12> 부모자녀간 희망직업 일치율 .....	87
<그림 4-13> 역할모델과 멘토 '없음' 비율 .....	88
<그림 5-1>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	117
<그림 5-2> 가출충동 경험률 .....	118
<그림 5-3> 2011년~2013년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	119
<그림 5-4> 가출시도 경험 .....	120
<그림 5-5> 2011년~2013년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	123
<그림 5-6> 자살충동 경험률 .....	124
<그림 5-7> 2011년~2013년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	125
<그림 6-1> 행복 영향요인 분석모형 .....	131
<그림 6-2> 2012년 전체 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33
<그림 6-3> 2012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35
<그림 6-4> 2012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37
<그림 6-5> 2012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39
<그림 6-6> 2013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41
<그림 6-7> 2013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43
<그림 6-8> 2013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45
<그림 6-9> 2013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47
<그림 7-1> 2009년~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	150
<그림 7-2> 2010년~2013년 상대적 행복도 변화 .....	151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제1장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다.
- 학교폭력 경험은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과 여타 일상생활의 특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 2. 주요연구내용

〈표 1-1〉 주요연구내용

영역	세부내용	
한국과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1. 물질적 행복	• 상대적 빈곤, 미취업 가정, 결핍 등
	2. 보건과 안전	•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 등
	3. 교육	• 학업성취, 교육참여, 청소년실업 등
	4. 가족과 친구관계	•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 등
	5. 행동과 생활양식	• 건강행동, 위험행위 등
	6. 주관적 행복	•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개인행복 등
생활양식과 행복가치관	1. 생활양식	• 생활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 교우관계 • 사교육 실태 • 일상생활
	2. 행복도·스트레스 및 행복 가치관	• 행복 수준 • 스트레스 수준 • 행복에 대한 의식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1.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학교폭력 인식 수준 • 학교폭력 피해 실태 • 학교폭력 가해 실태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특성
	2. 일탈행동	• 가출 및 자살 충동 경험 실태

## 1. 설문조사

### 1) 조사설계

- 2013년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5일에서 4월 1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2년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급을 표집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비례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의 학교에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효표본 수는 총 7,104명으로 초등학생 1,807명, 중학생 2,656명, 그리고 고등학생 2,641명이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가중치의 산출방식은 첫 번째, 이 설문조사에서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조사된 학급의 학생 수를 동일적으로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권역내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의 비율을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권역내의 성별의 비율을 맞추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표 1-2〉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 7,104명 (초등학생 1,807명, 중학생 2,656명, 고등학생 2,641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 시도교육청의 2012년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학급을 표집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비례 확률추출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기간	2013년 3월 21일 ~ 2013년 4월 12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2) 표본 특성

〈표 1-3〉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		중		고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104	100.0	1,807	100.0	2,656	100.0	2,641	100.0	
성별	남	3,805	53.6	945	52.3	1,378	51.9	1,482	56.1	
	여	3,299	46.4	862	47.7	1,278	48.1	1,159	43.9	
거주 지역	수도권	3,485	49.1	910	50.4	1,305	49.1	1,271	48.1	
	강원도	209	2.9	51	2.8	80.0	3.0	79.0	3.0	
	충청권	761	10.7	192	10.6	285	10.7	284	10.8	
	영남권	1,866	26.3	461	25.5	695	26.2	711	26.9	
	호남권	783	11.0	194	10.7	292	11.0	297	11.2	
지역 규모	대도시	3,433	48.3	837	46.3	1,268	47.7	1,327	50.3	
	중소도시	2,824	39.7	764	42.3	1,077	40.6	983	37.2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847	11.9	206	11.4	311	11.7	331	12.5	
학 교 급	초등 학교	4학년	1,807	-	620	34.3	-	-	-	-
		5학년			595	32.9	-	-	-	-
		6학년			592	32.8	-	-	-	-
	중학교	1학년	2,656	-	-	-	933	35.1	-	-
		2학년			-	-	823	31.0	-	-
		3학년			-	-	900	33.9	-	-
	고등 학교	1학년	2,641	-	-	-	-	-	865	32.8
		2학년			-	-	-	-	888	33.6
		3학년			-	-	-	-	888	33.6

## 2. OECD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했다.
-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 서베이(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을 이용했다.

- 2013년 연구에서는 보건과 안전영역의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 홍역·소아마비·DPT3 예방접종, 교육영역의 학업유지율, 실업상태 청소년 비율,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의 십대 출산율 지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측정했다.

〈표 1-4〉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1)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3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비율	19세 이하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OECD/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OECD/PISA 2006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영아의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DI 2011 OECD Health data 2011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예방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11 UNICEF 2011	
			소아마비 예방접종				
DPT3 예방접종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십만명당)		19세 이하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수학·과학 시험점수	15세	OECD/PISA 2009		
	교육 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Education data 2012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D	교육개발원 2010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1) 교육자료: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로 총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3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11, 13, 15세	15세	
			마약사용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11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03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표 1-5〉 2009-2012년 측정지표

영역	구성 요소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OECD 2005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OECD 2005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OECD 2008	본연구설문지 (KCWI, 2011)	OECD 2008	본연구설문지 (KCWI, 2012)
	결핍	교육여건	PISA 2003		PISA 2003		OECD / PISA 2009		OECD / PISA 2009	
		문화적 결핍		OECD / PISA 2003		OECD / PISA 2003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OECD Health data 2002, 2003	사망원인통계 2007	UN 2010 OECD Health data 2009	교육개발원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0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0 World Bank 2010	
		저체중아의 비율		OECD Health data 2002,2003						
	예방 접종	질병예방접종 여부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orld Bank 2008		WDI 2009		WDI 2009	
	사고사	아동사고사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8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PISA 2003		PISA 2006 (OECD 2009)	PISA 2006	OECD / PISA 2009		OECD / PISA 2009	
	교육 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5)	국제통계연감 2007 (교육 정도별 취학률)	OECD 2009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OECD 2010 교육지표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조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고용 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PISA 2006		PISA 2006	

영역	구성 요소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설문지 (KCWI, 2012)	
		의붓 가정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PISA 2000		PISA 2000		PISA 2000		PISA 2000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HBSC 2001	HBSC 2001	HBSC 2006	HBSC 2012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아침식사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설문지 (KCWI, 2012)	
		과일섭취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과체중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운동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설문지 (KCWI, 2012)	
		임신과 출산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설문지 (KCWI, 2012)		
	학교 생활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부정적 생각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했다.
  - ① 지역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② 지역 규모별 :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 ③ 교급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SE와 SPSS를 활용해 분석했다.

#### • 행복지수 산출 방법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 1-6〉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1.57	10.2	102.69	110.7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4.33	3.4	104.42	
	결핍	교육여건	15세	1.85	1.8	107.18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8.94	5.1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58	4	104.49	108.36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56	4.9		
	예방접종	홍역	12 ~23개월	93.77	99	109.71	
		소아마비		95.92	99		
		DPT3		96.12	99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78	22.4	103.18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501.12	539	120.36	122.99
		수학		504.69	546		
		과학		509.31	538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6	86	100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15-19세	7.05	8.5	105.16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15세	28.7	15.4	115.04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4.87	8.9	119.43	95.10
		의붓 가정	9.3	2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01	50.6	73.95	
		함께 대화하기		60.66	41.2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68.06	66.1	98.17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5.77	84.5	136.68	129.07
		과일섭취	11,13,15세	38.83	64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38	5.9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3.96	6		
	건강 위협행위	흡연	11,13,15세	24.66	1.9	109.86	
		음주		9.62	8		
		마약		17.79	0.4		
		섹스	15세	24.57	0.5		
	임신과 출산	15-19세 (여)	11.04	5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3.9	19.6	86.57	72.54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7.56	35.6	110.56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13,15세	85.72	66.6	73.64	
		비소속감	15세	6.8	16.3		
		어울림		9.28	6.7		
외로움		7.4		15.3			

2)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 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 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표산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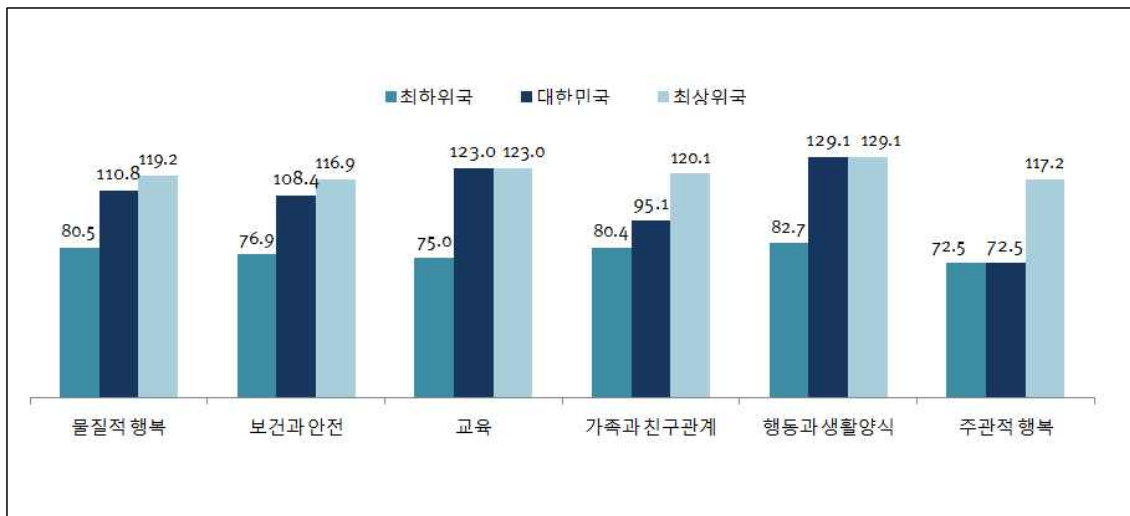
## 제2장 연구결과요약

### 1.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가비교

-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에서 122.99(OECD국가 평균=100)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5개 영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OECD국가평균=100)



〈표 2-1〉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OECD국가평균=100)

구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미국 80.5	미국 76.9	오스트리아 75.0	미국 80.5	체코 82.7	대한민국 72.5
대한민국	110.8	108.4	123.0	95.1	129.1	72.5
최상위국	핀란드 119.2	스웨덴 116.9	대한민국 123.0	이탈리아 120.1	대한민국 129.1	스페인 117.2

## 2. 2013년도 OECD 국가 행복지수 영역별 비교<sup>3)</sup>

〈표 2-2〉 2013년도 영역별 OECD 국가 행복지수

(OECD국가평균=100)

순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1	핀란드	119.19	스웨덴	116.94	대한민국	122.99	이탈리아	120.09	대한민국	129.07	스페인	117.23
2	오스트리아	113.51	아이슬란드	116.52	아일랜드	118.51	네덜란드	115.83	덴마크	113.05	네덜란드	114.2
3	체코	111.89	핀란드	113.21	스페인	108.01	포르투갈	114.94	노르웨이	110.59	그리스	111.76
4	대한민국	110.78	네덜란드	109.06	뉴질랜드	107.73	스페인	107.82	네덜란드	107.26	이탈리아	107.32
5	스페인	106.87	대한민국	108.36	벨기에	106.75	노르웨이	107.61	아일랜드	105.9	스위스	106.26
6	프랑스	104.46	아일랜드	106.01	네덜란드	106.12	스위스	107.23	포르투갈	104.46	오스트리아	105.58
7	네덜란드	103.99	독일	105.96	포르투갈	104.96	스웨덴	104.76	독일	101.89	스웨덴	104.76
8	이탈리아	100.7	프랑스	105.88	아이슬란드	103.53	아일랜드	103.99	캐나다	99.2	미국	104.48
9	일본	99.79	일본	105.43	이탈리아	103.46	덴마크	103.93	오스트리아	99.08	아일랜드	103.92
10	벨기에	98.32	노르웨이	104.63	미국	103.36	벨기에	103.11	핀란드	98.64	핀란드	102.21
11	그리스	95.64	체코	102.6	폴란드	103.33	아이슬란드	101.62	벨기에	97.67	독일	101.98
12	독일	95.42	이탈리아	101.61	호주	102.05	독일	100.83	프랑스	97.44	프랑스	101.77
13	뉴질랜드	94.79	스위스	101.5	핀란드	101.17	헝가리	99.47	스위스	97.04	체코	101.51
14	영국	93.22	그리스	100.44	프랑스	99.84	프랑스	97.1	이탈리아	94.07	포르투갈	100.53
15	포르투갈	92.98	캐나다	100.02	그리스	95.21	핀란드	95.25	스페인	94	노르웨이	100.31
16	헝가리	92.06	영국	98.22	영국	94.63	대한민국	95.1	그리스	93.87	아이슬란드	97.79
17	폴란드	85.92	스페인	98.02	스웨덴	93.8	그리스	93.28	영국	93.05	영국	97.11
18	미국	80.47	덴마크	96.33	헝가리	92.84	폴란드	93.01	헝가리	90.79	덴마크	94.79
19	-	-	호주	96.01	체코	92.14	오스트리아	92.16	폴란드	90.25	캐나다	93.72
20	-	-	폴란드	95.06	독일	91.94	체코	91	체코	82.66	헝가리	88.69
21	-	-	헝가리	94.8	덴마크	91.76	영국	86.35	-	-	폴란드	85.89
22	-	-	벨기에	92.33	스위스	90.53	캐나다	85.06	-	-	벨기에	85.65
23	-	-	포르투갈	88.55	노르웨이	90.39	미국	80.44	-	-	대한민국	72.54
24	-	-	뉴질랜드	87.45	오스트리아	74.96	-	-	-	-	-	-
25	-	-	오스트리아	78.17	-	-	-	-	-	-	-	-
26	-	-	미국	76.91	-	-	-	-	-	-	-	-
	평균	100.0	평균	100.0	평균	100.0	평균	100.0	평균	100.0	평균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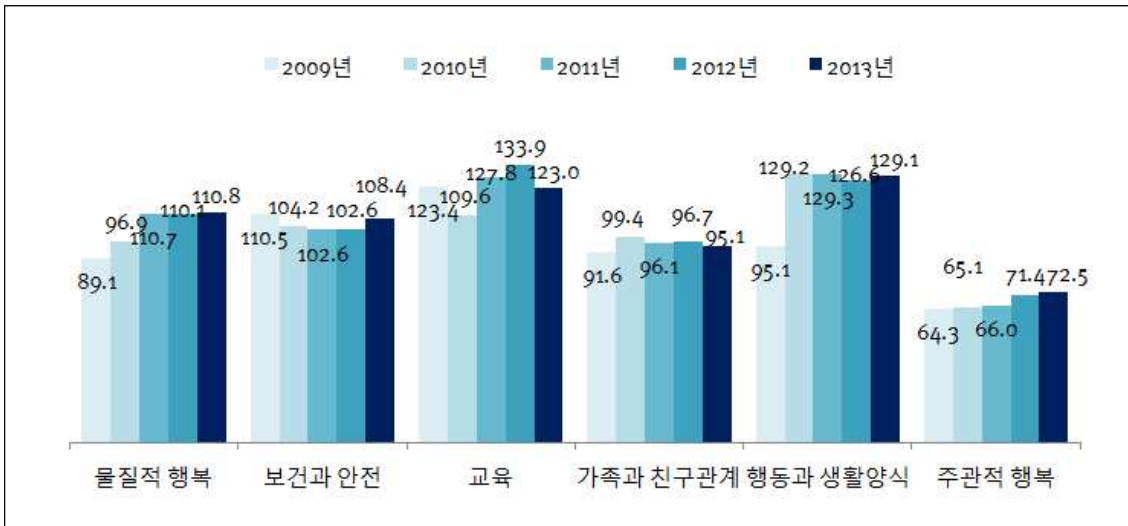
3) 행복지수 수치가 비어 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임

### 1. 한국 행복지수 영역별 변화추이

-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2009년-2013년 하위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추세를 나타냈다.
  - 물질적 행복지수는 2009년과 2010년 OECD 국가 평균(100)을 밑돌았으나, 2011년부터 OECD 평균을 상회했으며 2013년에는 110.8을 기록했다.
  - 반면, 가족과 친구관계 지수는 5년 연속 평균을 밑돌았다.
  - 주관적 행복지수도 5년 연속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09년 64.3에서 2013년 72.5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2〉 2009년~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OECD국가평균=100)



〈표 2-3〉 2009년~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변화

(OECD국가평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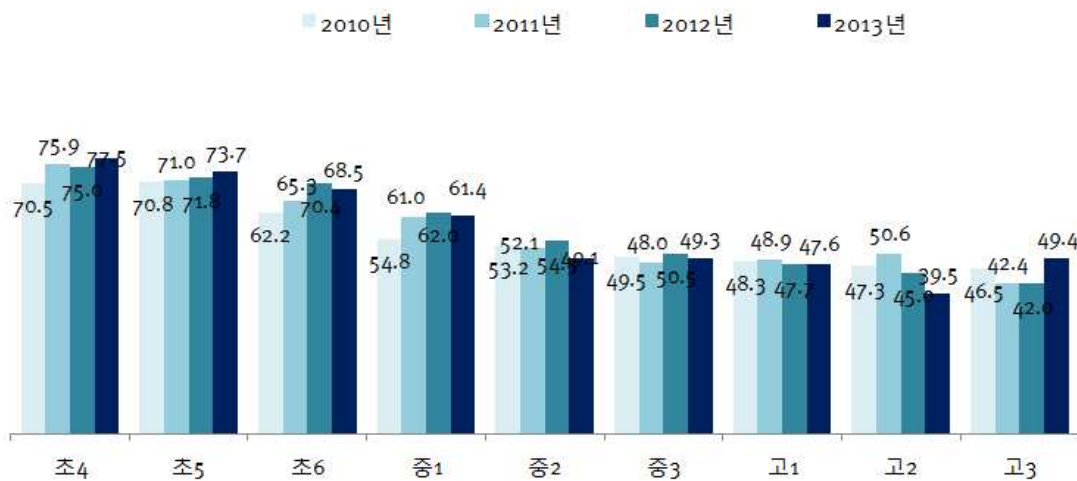
구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	110.7	102.6	127.8	96.1	129.3	66.0
2012	110.1	102.6	133.9	96.7	126.6	71.4
2013	110.8	108.4	123	95.1	129.1	72.5

## 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상대적 행복도 변화추이

- 한편, 2013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학생 범주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아래 <그림 2-3>과 같은 변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증가한 한편, 고등학생 집단은 이 비율이 2010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림 2-3> 2009년~2013년 상대적 행복도 변화<sup>4)</sup>

(단위 : %)



4)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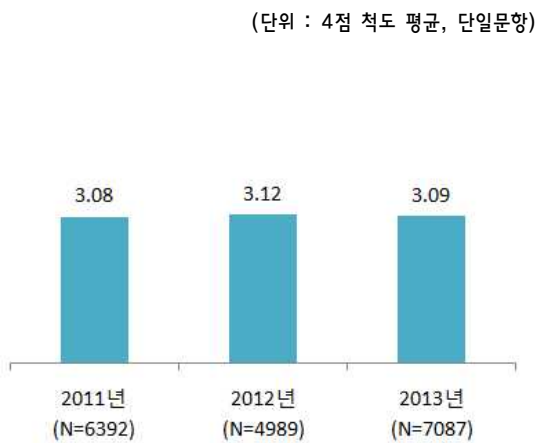
### 1. 주관적 행복과 생활 만족도

- 주관적 행복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은 4점 척도(일본과의 비교문항) 단일 항목과 5점 척도(OECD 비교문항) 5개 항목의 2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 ✓ 주관적 행복도의 2011년-2013년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점 평균, 2011년 3.08점에서 2012년 3.12점으로 약간 상승했다가, 2013년 3.09점으로 다시 0.03포인트 감소하였다.
- ✓ 5개 항목별 만족도 평가결과는 2011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기준, 0.06포인트 증가하였다. 5개 항목 가운데에서 '내 삶에 만족한다'의 증가폭이 0.13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외로움'으로 0.01포인트 증가하였다. .

〈그림 2-4〉 주관적 행복



〈표2-4〉 5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건강하다고 생각	4.03	4.08	4.09	▲0.06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3.91	3.95	3.96	▲0.05
외로움 (reverse)	3.83	3.86	3.84	▲0.01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69	3.72	3.75	▲0.06
내 삶에 만족	3.57	3.66	3.70	▲0.13
준거집단 소속감	3.54	3.63	3.56	▲0.02
<b>종합평균</b>	<b>3.76</b>	<b>3.82</b>	<b>3.82</b>	<b>▲0.0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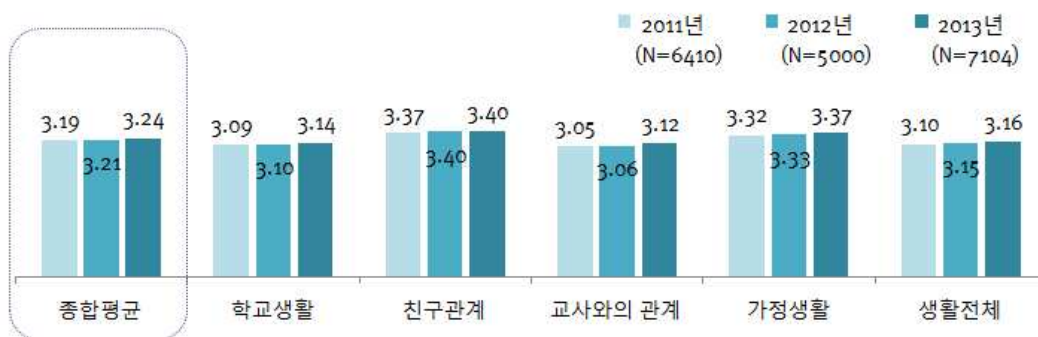


• 생활 만족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 2013년도 5개 영역별 만족도의 순위는 친구관계 > 가정생활 > 생활전반 > 학교생활 > 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 ✓ 2011년~2013년, 3개년의 생활 영역별 만족도 비교 결과, 5개 영역 종합평균(5점 척도)은 2011년 3.19점에서 2013년 3.24점으로 조금씩 상승하였다.  
한편,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세부 영역별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2-5〉 생활 만족도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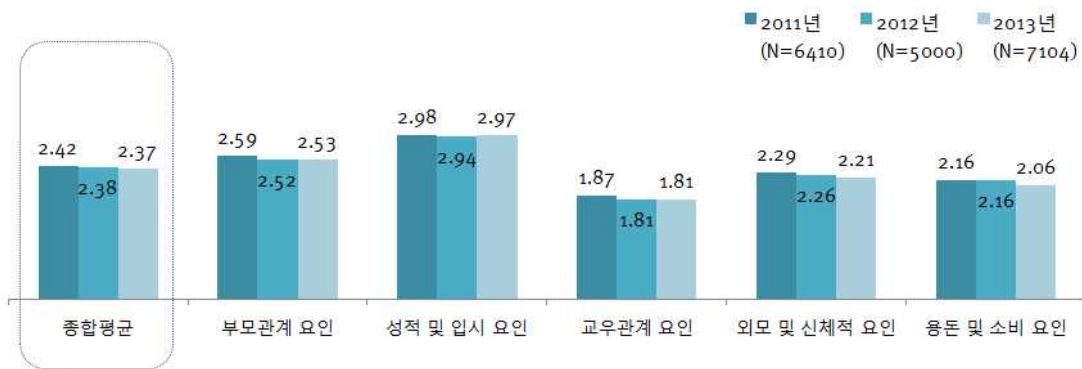
● 스트레스 수준

5개 영역, 총 17개 항목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 ✓ 17개 항목 종합평균은 2011년 2.42, 2012년 2.38, 2013년 2.37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은 5점 척도 평균 3.0(보통) 이하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 한편,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은 ‘성적 및 입시’인 반면, 가장 스트레스가 낮은 요인으로는 ‘교우관계’로 나타났다.
- ✓ 2011년 대비 스트레스 증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근소한 감소추세가 확인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 및 입시’ ‘부모관계’ 두 범주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입시로 인한 부담감이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6〉 범주별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표2-5〉 2011년 대비 스트레스 증감 수준

(gap = 2013년 - 2011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관계 요인	▽0.06	▲0.02	▽0.15	▽0.15
성적 및 입시 요인	▽0.01	▲0.07	▽0.09	▽0.12
교우관계 요인	▽0.06	-	▽0.04	▽0.13
외모 및 신체적 요인	▽0.08	▽0.04	▽0.10	▽0.16
용돈 및 소비 요인	▽0.10	▽0.04	▽0.16	▽0.18
종합평균	▽0.05	-	▽0.10	▽0.14

## 2. 행복 가치관

### •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고'(44.9%),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24.6%) 행복하지만, '성적에 대한 압박(24.3%)'과 '학습부담'(21.0%)이 너무 클 때,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16.6%)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 반면, '성적이 좋을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해 부모세대가 강조하는 공부와 성적이 어린이·청소년들 자신의 행복 요건에선 큰 비중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 행복을 느끼는 장소나 집단에 대한 응답결과의 변화추이로는,
  - 2011년 : 집(26.3%) > 친구(25.6%) > 학교(17.7%) >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10.9%) > 학원(7.7%)의 순서였으나,
  - 2013년 : 친구(35.8%) > 집(33.1%) > 학교(10.6%) >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7.0%) > 학원(1.9%)로 변화되었다. 즉, 친구와 집의 비중이 늘어난 대신, 학교, 학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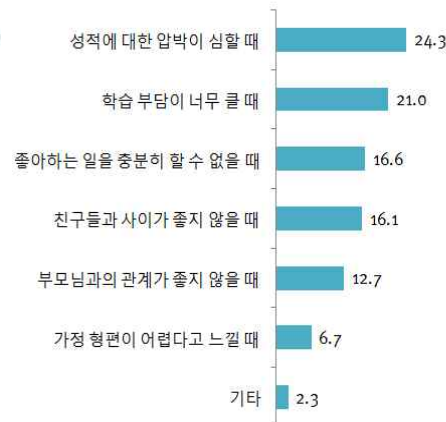
〈그림 2-7〉 행복할 때

(N=7,079,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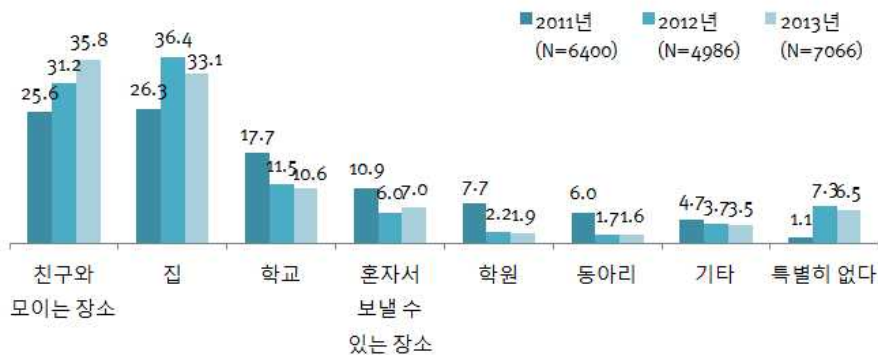
〈그림 2-8〉 행복하지 않을 때

(N=7,079, 단위(%))



〈그림 2-9〉 2011년~2013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의 변화추이

(단위 : %)



● 행복의 요건

✓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화목한 가족'(26.0%) > '자유'(16.5%) > '성적 향상'(14.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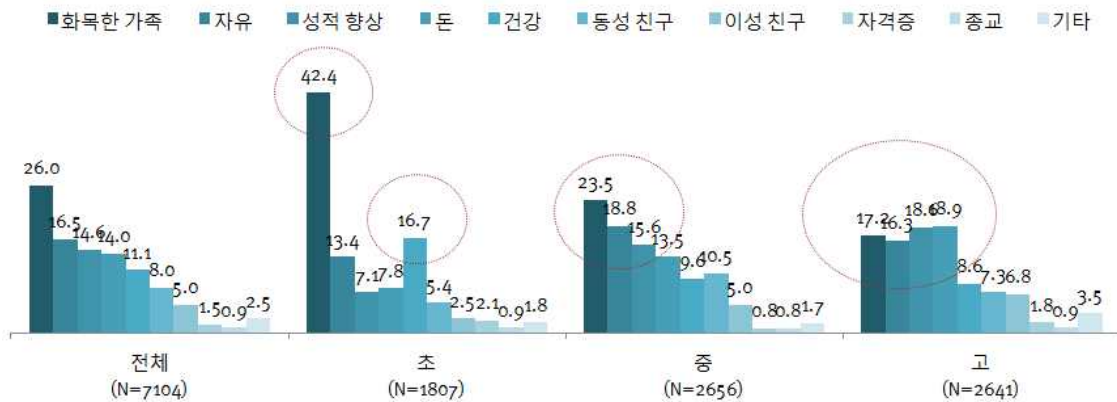
- 초등학생 : 화목한 가족(42.4%) > 건강(16.7%) > 자유(13.4%) > 돈(7.8%)
- 중학생 : 화목한 가족(23.5%) > 자유(18.8%) > 성적 향상(15.6%) > 돈(13.5%)
- 고등학생 : 돈(18.9%), 성적 향상(18.6%) > 화목한 가족(17.2%) > 자유(16.3%)

✓ 2011년~2013년 변화추이

- '화목한 가족'을 행복 요건으로 꼽은 비율, 2011년 34.5%에서 2013년 26.0%로 8.5%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항목은 '자유'(2011년 대비 ▲12.3%포인트)와 '성적 향상'(2011년 대비 ▲12.1%포인트)으로 2013년 큰 상승을 보였다. 또 행복의 요건으로 '돈'을 선택한 비율은 2012년 16.1%에서 2013년 14.0%로 약 2.1%포인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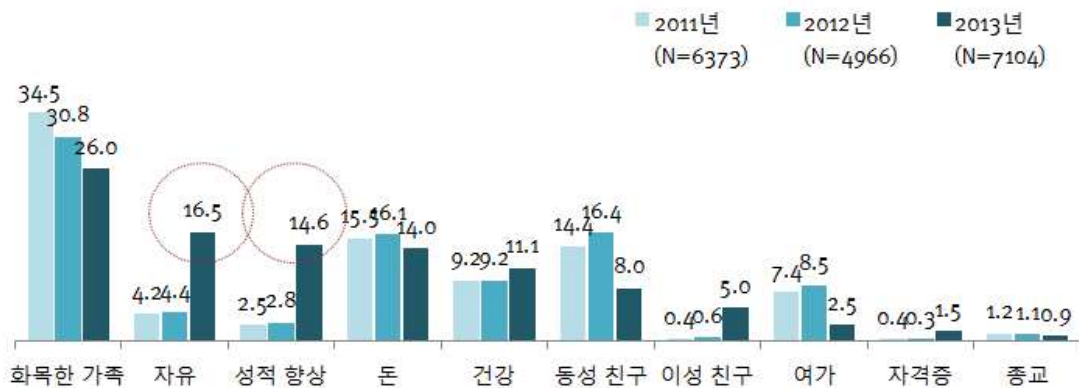
〈그림 2-10〉 행복의 요건

(단위 : %)



〈그림 2-11〉 2011년~2013년,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단위 : %)



### 3. 가족과 친구관계

- 부모자녀 관계

- ✓ 부모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대체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추이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관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공통으로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항목은 부모자녀 간 유연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2011년 대비 평가점수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6〉 2011년~2013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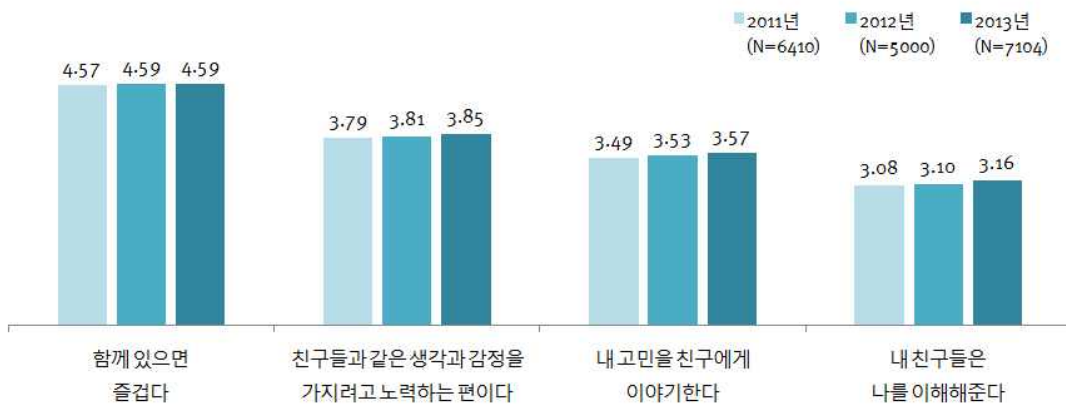
구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410	5,000	7,104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4.21	4.18	<b>4.22</b>	<b>▲0.01</b>	4.53	4.53	<b>4.56</b>	<b>▲0.03</b>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3.69	3.74	<b>3.83</b>	<b>▲0.14</b>	4.12	4.18	<b>4.23</b>	<b>▲0.11</b>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66	3.69	<b>3.76</b>	<b>▲0.10</b>	4.04	4.1	<b>4.14</b>	<b>▲0.10</b>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3.25	3.34	<b>3.43</b>	<b>▲0.18</b>	3.77	3.87	<b>3.89</b>	<b>▲0.12</b>

• 교우 관계

- ✓ 교우 관계 속 '긍정적 감정'은 전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채 근소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교우 관계 속 '부정적 감정' 또한,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친구들과의 내면적 소통과 관련된 두 개 항목에서 약간의 감소가 발견되었다. 즉,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의 평균값이 전년 대비 각각 0.02포인트 씩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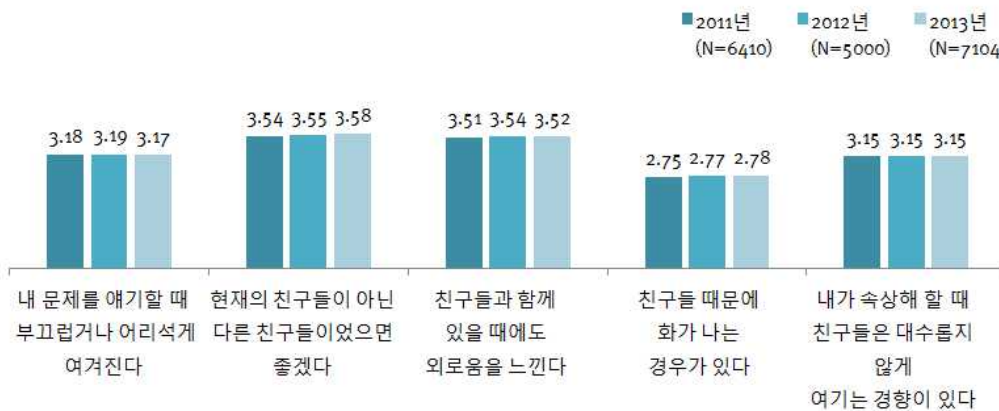
<그림 2-12> 2011년~2013년 긍정적 감정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그림 2-13> 2011년~2013년 부정적 감정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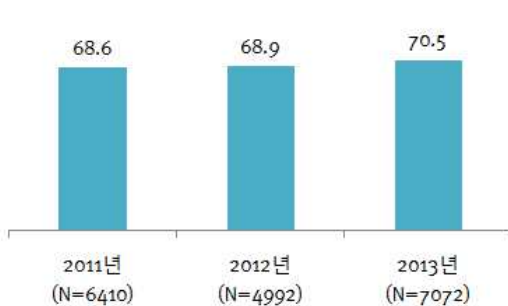
#### 4. 사교육 실태

✓ 사교육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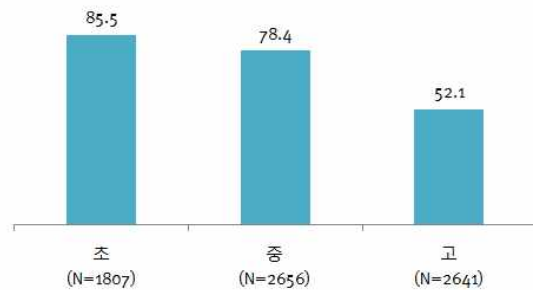
- 2013년 현재 초중고생의 약 70.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은 85.5%, 중학생은 78.4%, 고등학생은 52.1%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사교육 이용률은 2011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교육 이용 기관 수는 1인당 평균 2개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약 9시간으로 2011년 대비 평균 1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사교육 이용률 변화추이  
(단위 : %)



〈그림 2-15〉 2013 학교급별 사교육 이용률  
(단위 : %)



〈그림 2-16〉 사교육 이용기관/서비스 수 변화추이  
(단위 : 개)



〈그림 2-17〉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주 평균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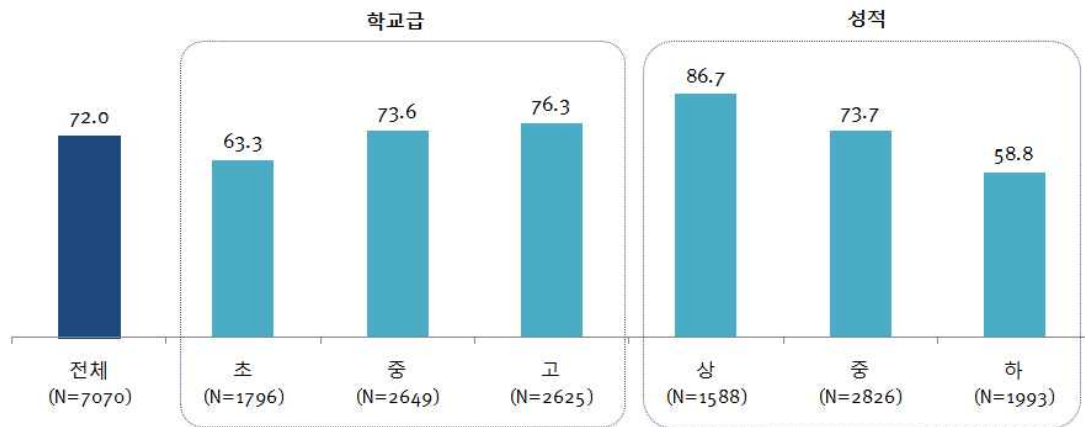
## 5. 주관적 미래 전망

### • 기대학력

-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향후 자신의 기대 학력에 대해 '4년제 대졸'은 55.0%, '대학원 이상'은 17.0%로, 전체 ⅔가 넘는 72.0%가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이러한 고학력 기대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 또, 성적이 좋을수록 고학력 기대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적 상위집단에서는 86.7%, 성적 하위집단에서는 58.8%가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하위집단에서도 절반 이상이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2-18〉 최종 기대학력

(4년제 대졸 + 대학원 이상) 기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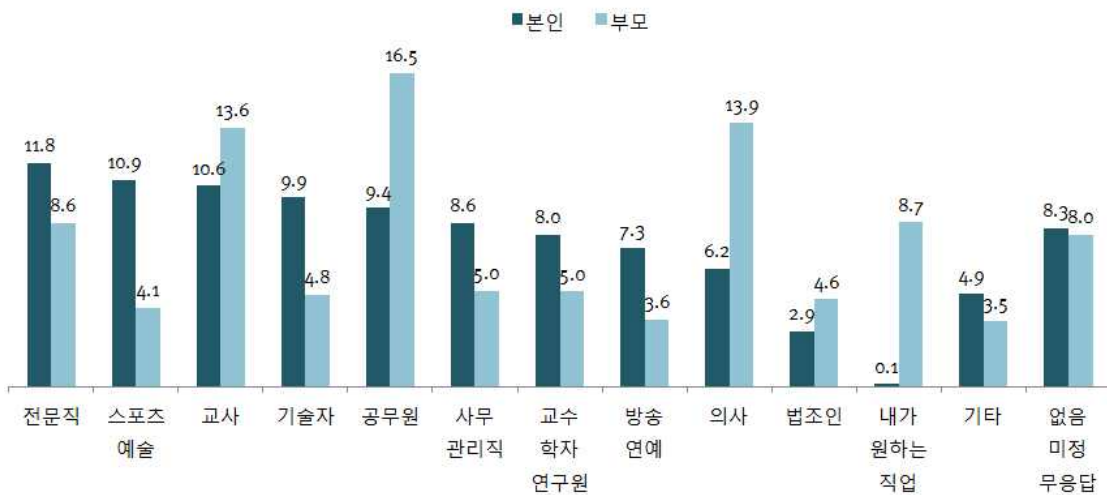


● 미래 희망직업

- ✓ 초,중,고 학생 본인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미래 희망직업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다.
  - 초,중,고 학생 본인 희망직업으로는 전문직(12.8%) > 스포츠/예술(10.9%) > 교사(10.6%) > 기술자(9.9%) > 공무원(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미래 희망직업으로는 공무원(16.5%) > 의사(13.9%) > 교사(13.6%) > 전문직(8.6%)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 ✓ 부모-자녀 간 미래 희망 직업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초중고생들의 경우 전문·기술직, 스포츠/예술 등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의 직업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 의사, 교사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19〉 장래 희망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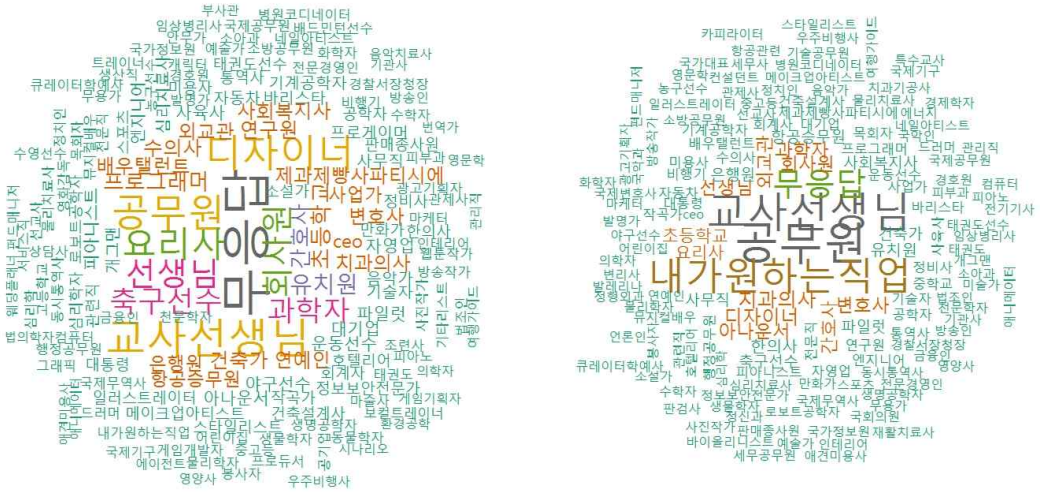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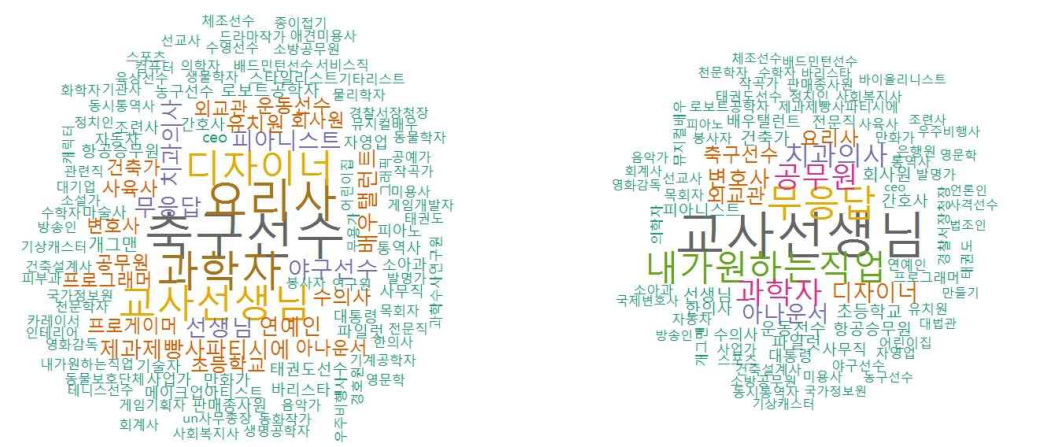
〈그림 2-20〉 부모-자녀 간 희망직업의 차이에 대한 R-분석 결과 1

본인의 희망직업	부모의 희망직업
----------	----------

▶ 전체



▶ 초등학교





### 1.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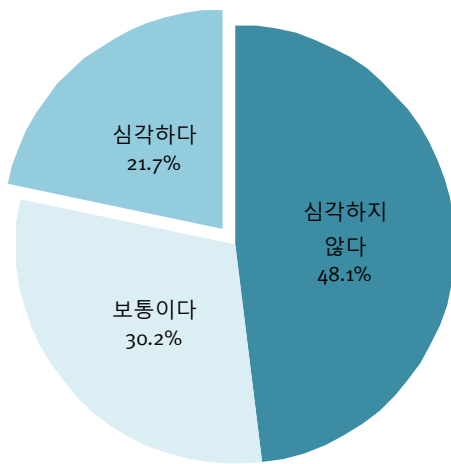
-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48.1%, ‘보통’이라는 응답은 30.2%, ‘심각하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즉 5명중 1명 꼴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6.9%이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3.3%,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6.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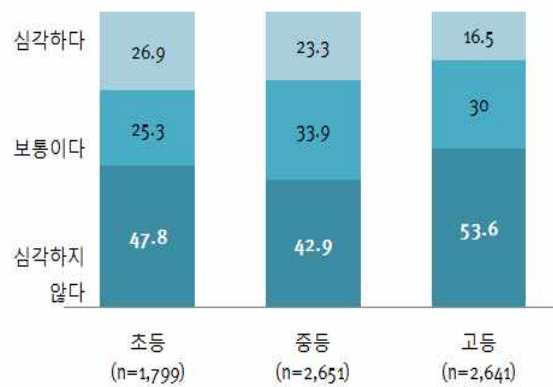
〈그림 2-22〉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수준

(N=7,091)



〈그림 2-23〉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수준\_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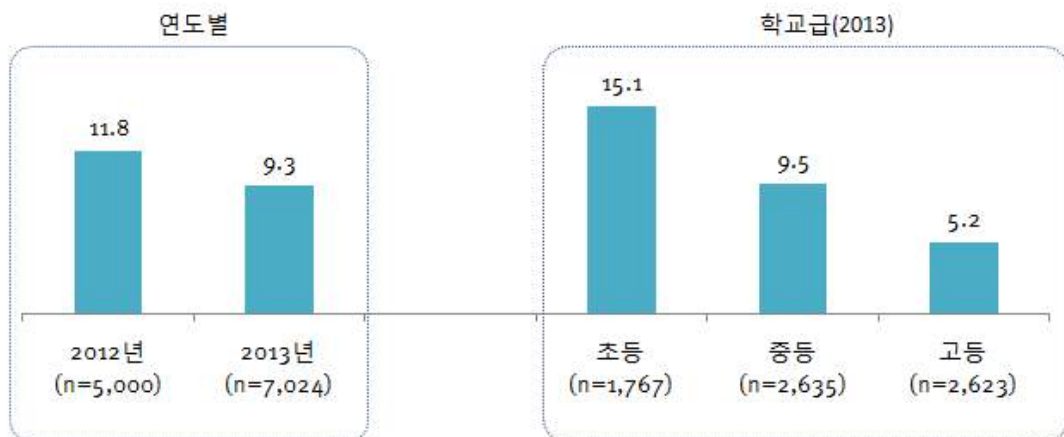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5.1%이고, 중학생은 9.5%, 그리고 고등학생은 5.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은 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3번(25.0%), 11번 이상(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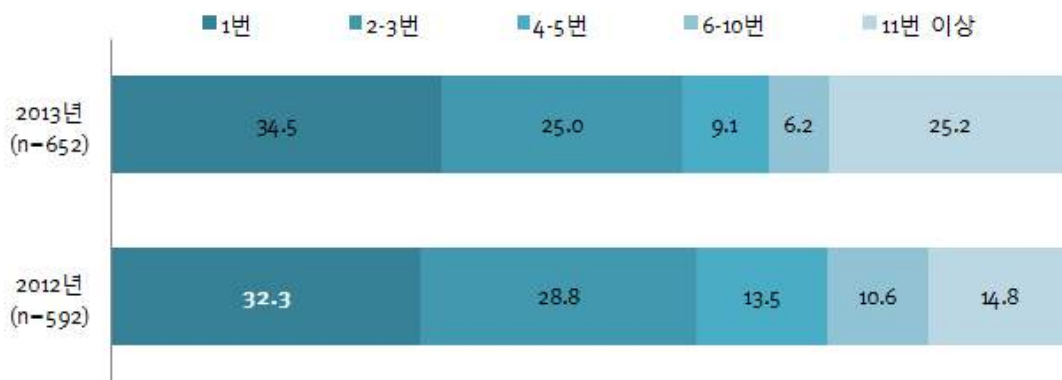
〈그림 2-24〉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



〈그림 2-25〉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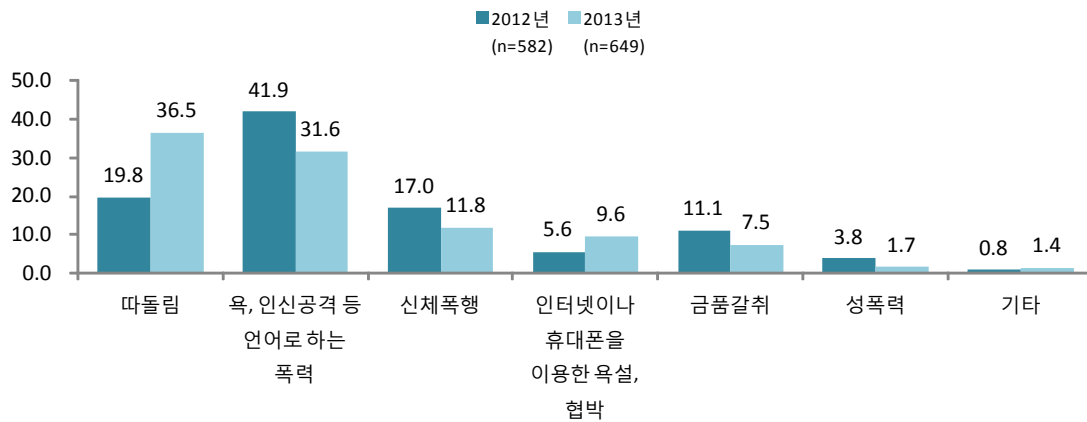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 유형

- ✓ 2013년도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전반적으로는 따돌림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폭력(31.6%), 신체폭행(11.8%), 사이버 언어폭력(9.6%), 금품갈취(7.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 2012년도 조사에서는 언어폭력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따돌림(19.8%), 신체폭행(17.0%), 금품갈취(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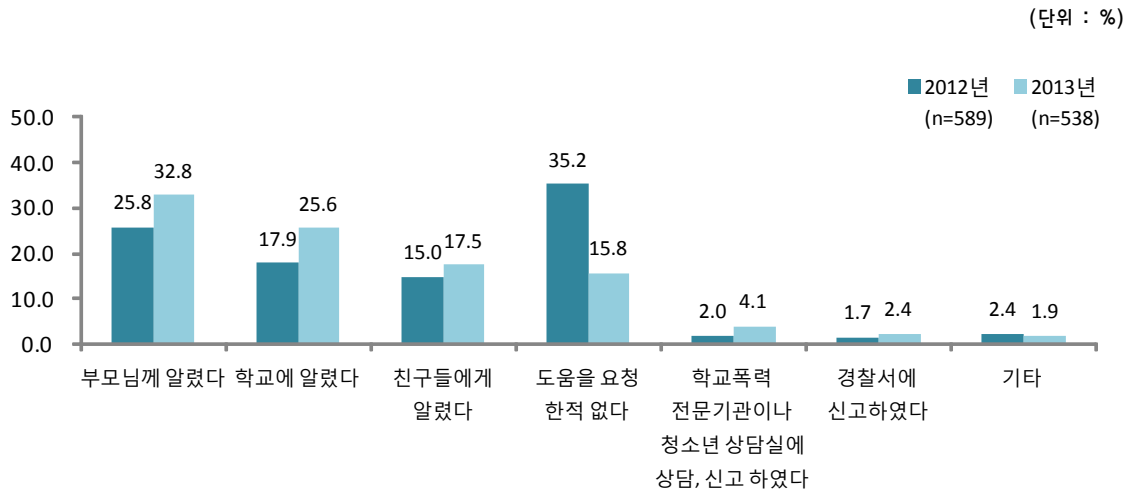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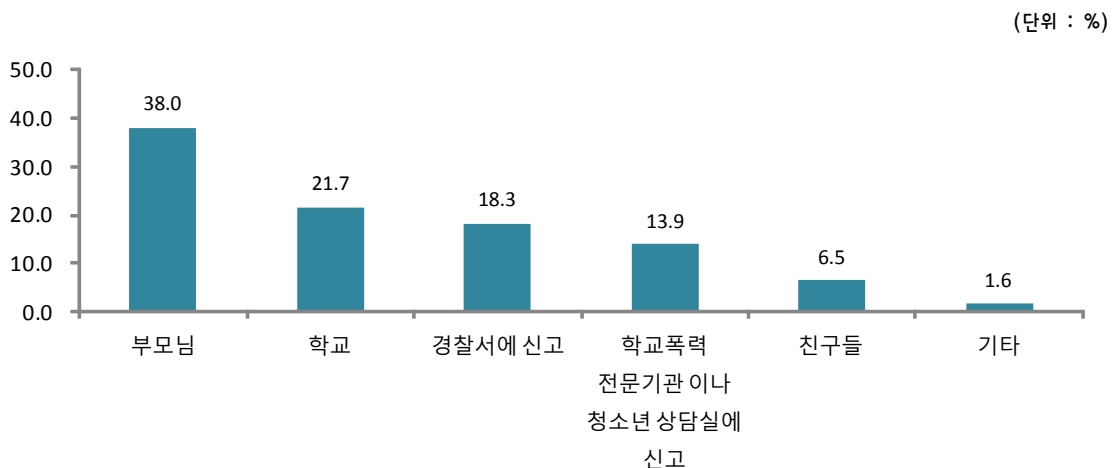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 도움요청 실태

- ✓ 2013년도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 및 방식은 부모님께 알렸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 알렸다(25.6%), 친구들에게 알렸다(17.5%),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2012년도 조사에서는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35.2%로 2013년 조사(15.8%)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 ✓ 학교폭력 발생시 가장 도움이 되는 요청 대상 및 방식으로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학교(21.7%), 경찰서에 신고(18.3%),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 하였다(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학교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방법



〈그림 2-28〉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요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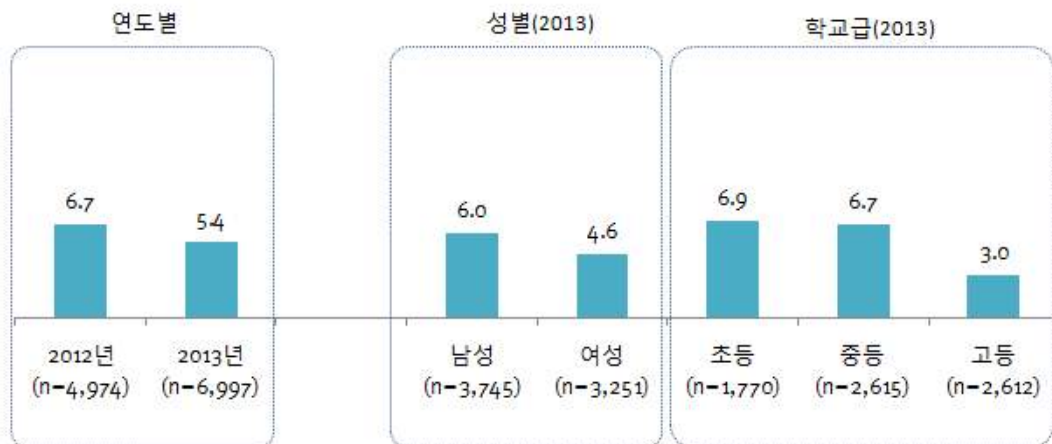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 2013년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2012년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6.7%로 학교폭력의 가해 경험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 ✓ 2013년도 조사에서 성별로는 남학생의 6.0%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4.6%로 남학생의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6.7%), 고등학생(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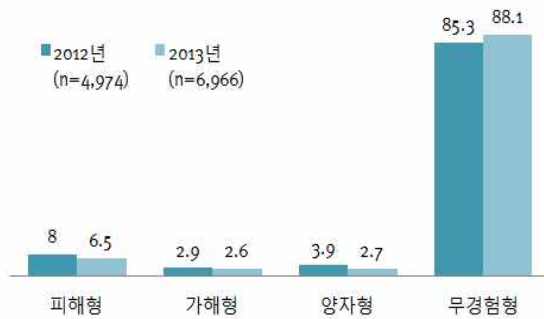


• 학교폭력 경험 유형

- ✓ 2013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그리고 무경험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무경험형이 8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형(6.5%), 양자형(2.7%), 그리고 가해형(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피해형과 양자형이 각각 10.6%와 4.4%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형이 4.0%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0〉 학교폭력 경험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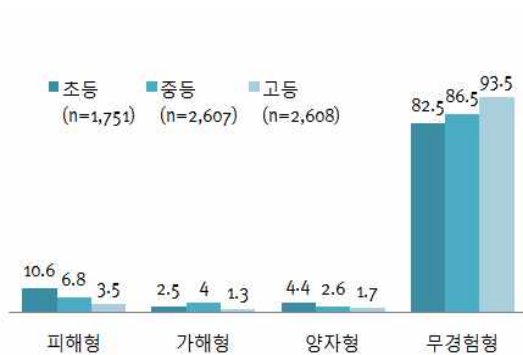
〈그림 2-31〉 학교폭력 경험 유형\_성별

(단위 : %)



〈그림 2-32〉 학교폭력 경험 유형\_학교급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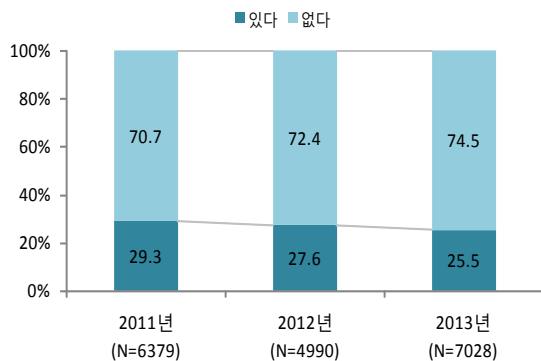
## 2. 가출 및 자살

- 가출 및 자살충동 경험률, 가출시도율

-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출 및 자살충동 경험률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가출충동 : 2011년 29.3%, 2013년 25.5%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3.8%포인트가 감소하였다.
  - 자살충동 : 2011년 24.9%, 2012년 21.2%, 2013년 23.1%로 등락을 하며 유지되고 있다.
- ✓ 가출시도율은 2011년 25.4%에서 2013년 23.1%로 2.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출충동 유경험자 중 평균 5명의 1명꼴로 실제 가출을 시도해본 것으로 응답되었다.
  - 2013년 기준 학교급별 가출 시도율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출 시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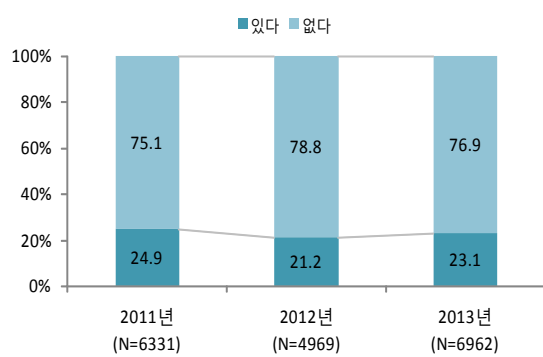
〈그림 2-33〉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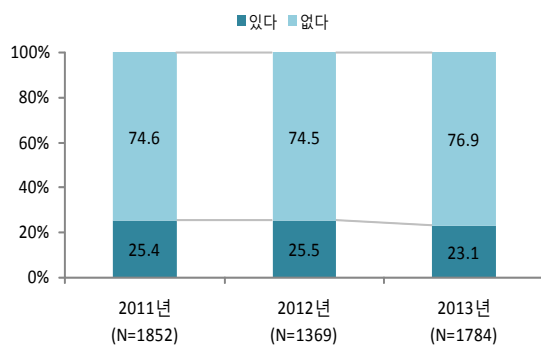
〈그림 2-34〉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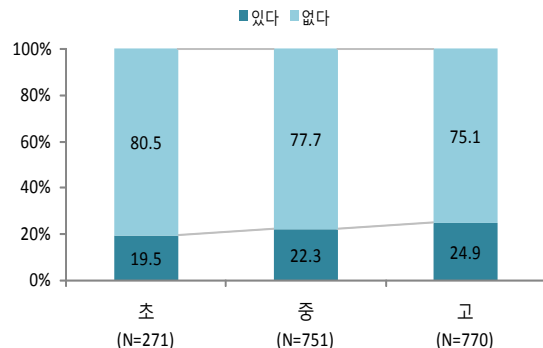
〈그림 2-35〉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단위 : %)



〈그림 2-36〉 2013년 학교급별 가출시도율

(단위 : %)



• 가출과 자살 충동의 이유

-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가출/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① 부모님과의 갈등을 비롯한 가족요인과 ② 성적 하락 및 학업부담의 두 가지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 ‘부모님과의 갈등’ 요인은 ‘가출’의 이유로 매년 평균 70% 이상, ‘자살’의 이유로는 매년 평균 37% 정도 비중으로 응답되고 있다.
  - 한편, ‘성적 하락 및 학업부담’ 요인은 ‘가출’의 이유로 2013년에는 6.8%, 자살의 경우 2013년 14.3%의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 ✓ 이처럼 자살 충동의 이유는 가출충동의 이유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 발견된다. 즉, ‘부모와의 갈등’ 요인은 가출요인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자살충동 이유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비중이 감소한다.
  - 반면, 자살의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갈등, 주위의 무관심,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 가출이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원인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 자살의 경우 가출에 비해 충동을 느끼는 원인이 다양할 뿐 아니라,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과의 관계, 학교폭력 등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등이 어린이·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7〉 가출 및 자살충동 발생이유의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가출충동 이유			자살충동 이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1,855	1,367	1,784	1,570	1,047	1,598
부모님과의 갈등	70.2	71.0	74.7	37.2	36.2	36.8
친구들과 어울려서	1.7	2.4	1.3	1.0	1.0	0.9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0.8	0.9	0.6	1.7	3.4	4.8
선생님과의 갈등	0.6	0.7	0.5	0.5	0.9	0.8
친구들과의 갈등	2.4	1.2	0.6	9.4	8.7	9.3
성적 하락	7.4	6.7	6.8	15.9	12.6	14.3
주위의 무관심	3.5	3.2	3.4	5.4	6.0	8.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1.7	1.7	2.8	3.3	4.2
기타	11.6	12.2	10.2	26.0	28.0	2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제3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담당연구자

김 경 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물질적 행복〉 지수 측정 요소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개별 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정의 성인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아동의 비율
빈곤	교육여건	교육자재(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미만 소유한 비율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물질적 행복 국제 비교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0.2%로 OECD 국가 평균 11.5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65%로 OECD 국가 평균인 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1.85%로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 한국의 문화적 결핍 수치는 5.1로 OECD 국가 평균(8.9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물질적 빈곤 영역 국제비교

(단위 : %)

	1. 상대적 빈곤		2. 미취업 가정		3. 빈곤				
	중위수입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교육여건		문화적 결핍		
영국	10.1		6.6		1.8		13.2		
핀란드	4.2		3.6		1.0		5.2		
헝가리	8.7		10.4		2.1		5.3		
캐나다	15.1		-		2.1		7.5		
벨기에	10.0		5.6		1.0		13.1		
독일	16.3		5.9		0.5		9.4		
이탈리아	15.5		4.1		1.2		8.3		
프랑스	7.6		4.6		1.2		12.1		
스위스	9.4		-		0.7		11.8		
스페인	17.3		2.8		0.9		4.7		
체코	10.3		3.7		1.2		4.6		
오스트리아	6.2		3.7		0.6		9.0		
그리스	13.2		2.3		6.1		8.2		
포르투갈	16.6		3.0		1.4		16.6		
대한민국	10.2		3.4		1.8		5.1		
스웨덴	4.0		-		1.6		5.3		
네덜란드	11.5		3.3		0.6		13.1		
폴란드	21.5		5.5		2.1		9.7		
뉴질랜드	15.0		6.0		2.2		7.0		
미국	20.6		2.8		4.8		16.1		
노르웨이	4.6		-		1.3		6.0		
덴마크	2.7		-		0.7		11.1		
아일랜드	16.3		-		2.9		10.2		
호주	11.8		-		2.2		7.4		
일본	13.7		0.6		5.6		9.4		
아이슬란드	8.3		-		0.4		3.1		
기술 통계	평균		4.3		1.9		8.9		
	표준편차		2.14334		1.49993		3.64463		
	95%신뢰구간		2.7	21.5	0.6	10.4	0.4	6.1	3.1

**〈보건과 안전〉 지수 측정 요소**

영아 사망	영아사망률	사망한 0-1세의 비율 (출산 1,000명당)
	저체중아 비율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예방 접종	질병의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	홍역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소아마비	소아마비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Diphtheria
	DPT3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3년 동안 연평균 자살/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 10만명당 비율

**〈보건과 안전〉 국제 비교**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4.0%로 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4.9%로 OECD 국가 평균(6.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3.77%)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5.92%)보다 높은 수준이다.
- DPT3 (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도 OECD 국가 평균(96.1%)보다 높았다.
- 아동사고사 연평균 비율은 십만명당 22.4로 OECD 국가 평균(23.7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2〉 보건과 안전 영역 국제비교

(단위 : %)

	1. 영아사망		2. 예방접종			3. 사고사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홍역예방	소아마비	DPT	아동사고사	
영국	4.0	7.4	90.0	96.0	95.0	21.2	
핀란드	2.0	4.3	97.0	99.0	99.0	23.5	
헝가리	5.0	8.4	99.0	99.0	99.0	25.8	
캐나다	5.0	6.0	98.0	99.0	95.0	23.4	
벨기에	4.0	7.6	95.0	96.0	98.0	29.0	
독일	3.0	6.9	99.0	94.0	99.0	21.2	
이탈리아	3.0	7.0	90.0	96.0	96.0	21.8	
프랑스	3.0	6.6	89.0	99.0	99.0	21.0	
스위스	4.0	6.6	92.0	96.0	95.0	20.3	
스페인	4.0	7.8	95.0	97.0	97.0	23.5	
체코	3.0	7.6	98.0	99.0	99.0	24.9	
오스트리아	4.0	7.1	76.0	83.0	83.0	24.6	
그리스	4.0	8.4	99.0	99.0	99.0	23.2	
포르투갈	3.0	8.2	96.0	97.0	98.0	34.6	
대한민국	4.0	4.9	99.0	99.0	99.0	22.4	
스웨덴	2.0	4.1	96.0	98.0	98.0	19.3	
네덜란드	3.0	5.5	96.0	97.0	97.0	20.5	
폴란드	5.0	6.1	98.0	96.0	99.0	28.1	
뉴질랜드	5.0	5.9	93.0	96.0	95.0	32.1	
미국	6.0	8.2	90.0	94.0	94.0	32.7	
노르웨이	3.0	5.2	93.0	94.0	94.0	21.5	
덴마크	3.0	6.1	87.0	91.0	91.0	22.9	
아일랜드	3.0	4.8	92.0	96.0	95.0	22.0	
호주	4.0	6.1	94.0	92.0	92.0	23.7	
일본	2.0	9.6	94.0	96.0	98.0	18.2	
아이슬란드	2.0	4.1	93.0	96.0	96.0	17.0	
기술 통계	평균	3.58	6.56	93.8	95.9	96.1	23.8
	표준편차	1.06	1.47	5.01	3.42	3.54	4.37
	95% 신뢰구간	2.0   6.0	4.1   9.6	76   99	83   99	83   99	17   34.6

### 〈교육〉 지수 측정 요소

학업성취	읽기점수	15세 학업성취 :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의 세 영역, 즉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로 측정
	수학점수	
	과학점수	
교육참여	학업유지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 아동 비율
	실업상태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
학업열망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교육〉 국제 비교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39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의 수학점수는 OECD국가 평균(504.69)을 크게 상회(546점),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
- 한국의 과학점수는 538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9.31)보다 크게 높아,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
- 한국 청소년의 학업유지 비율은 OECD 국가 평균(86%)과 동일한 수준
- 실업상태 청소년 비율은 한국 8.5%로 OECD 평균(7.05%)보다 높았다.
- 학업열망을 나타내는 미숙련일자리 기대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28.7%) 보다 낮다.

〈표 3-3〉 교육 영역 국제비교

(단위 : 점수, %)

	1. 학업성취			2. 교육참여		3. 학업열망						
	읽기점수	수학점수	과학점수	학업유지	실업상태	미숙련일자리						
영국	494	492	514	77.0	10.0	29.0						
핀란드	536	541	554	87.0	5.1	42.7						
헝가리	494	490	503	92.0	4.6	39.7						
캐나다	524	527	529	-	8.2	22.5						
벨기에	506	515	507	93.0	6.0	30.1						
독일	497	513	520	89.0	3.7	39.5						
이탈리아	486	483	489	83.0	12.5	26.7						
프랑스	496	497	498	84.0	7.9	25.2						
스위스	501	534	517	85.0	4.8	41.5						
스페인	481	483	488	84.0	12.8	21.3						
체코	478	493	500	90.0	3.8	31.4						
오스트리아	470	496	494	78.0	5.3	40.3						
그리스	483	466	470	83.0	7.5	17.8						
포르투갈	489	487	493	86.0	7.4	15.4						
대한민국	539	546	538	86.0	8.5	15.4						
스웨덴	497	494	495	86.0	5.4	29.6						
네덜란드	508	526	522	91.0	3.8	25.0						
폴란드	500	495	508	93.0	3.6	24.0						
뉴질랜드	521	519	532	79.0	10.4	25.1						
미국	500	487	502	82.0	7.7	14.9						
노르웨이	503	498	500	86.0	3.5	31.5						
덴마크	495	503	499	85.0	5.5	33.2						
아일랜드	496	487	508	96.0	10.5	25.1						
호주	515	514	527	81.0	8.1	27.5						
일본	520	529	539	-	9.9	47.0						
아이슬란드	500	507	496	88.0	6.8	24.9						
기술 통계	평균	501.1	504.7	509.3	86.0	7.1	28.7					
	표준편차	16.8	20.2	19.1	4.90	2.76	8.84					
	95% 신뢰구간	470	539	466	546	470	554	77	96	3.5	12.8	14.9

### 〈가족과 친구관계〉 지수 측정 요소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의붓 가정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가족과 친구관계〉 국제 비교

- 가족과 부모관계를 나타내는 4개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 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4〉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 국제비교

(단위 : %)

	1. 가족구조		2. 부모관계		3. 친구관계					
	홀부모 가정	의붓 가정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친절한 급우관계					
영국	20.0	13.0	66.7	60.5	63.3					
핀란드	15.0	13.0	59.8	78.8	66.2					
헝가리	17.0	10.0	74.7	90.2	58.2					
캐나다	18.0	11.0	71.8	46.9	58.5					
벨기에	14.0	14.0	89.7	55.1	75.5					
독일	15.0	9.0	81.5	42.5	78.0					
이탈리아	12.0	2.0	93.8	87.2	68.5					
프랑스	14.0	13.0	90.4	63.9	56.7					
스위스	14.0	8.0	89.9	48.6	78.8					
스페인	12.0	3.0	83.4	60.2	67.0					
체코	16.0	14.0	72.9	72.0	56.3					
오스트리아	18.0	7.0	68.2	47.1	69.3					
그리스	10.0	3.0	69.6	58.1	44.2					
포르투갈	12.0	7.0	86.2	70.6	79.3					
대한민국	8.9	2.0	50.6	41.2	66.1					
스웨덴	13.0	14.0	84.1	51.6	82.5					
네덜란드	13.0	7.0	90.0	70.6	80.5					
폴란드	13.0	5.0	78.4	49.7	51.0					
뉴질랜드	-	-	64.4	61.9	-					
미국	23.0	15.0	65.7	67.9	56.3					
노르웨이	14.0	12.0	87.3	64.0	78.3					
덴마크	19.0	12.0	85.6	71.2	77.2					
아일랜드	15.0	7.0	77.1	62.0	73.5					
호주	-	-	69.9	51.3	-					
일본	-	-	85.6	60.2	-					
아이슬란드	16.0	13.0	90.8	43.9	80.3					
기술 통계	평균	14.9	9.3	78.0	60.7	68.1				
	표준편차	3.26	4.26	11.3	13.1	10.9				
	95% 신뢰구간	8.9	23	2	15	50.6	93.8	41.2	90.2	44.2



### 〈행동과 생활양식〉 지수 측정 요소

건강행동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율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위험행동	흡연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음주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마약	11, 13, 15세의 마약사용 비율
	성관계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콘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의 비율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싸움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왕따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 의해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비율

### 〈행동과 생활양식〉 국제 비교

#### 1. 건강행동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이 84.5%로, OECD 국가 평균 (65.8%)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2013년 설문에서 측정한 한국의 과일섭취 비율은 64.0%로 OECD 국가 평균( 38.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비율은 한국의 경우 5.9%로 OECD국가 평균(14.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의 경우 한국은 6.0일로 OECD국가 평균(3.9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위험행동

- 한국 아동·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1.9%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한국 아동·청소년의 음주경험 비율은 8%로 OECD 국가 평균(9.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 한국 아동·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0.4%로 OECD 국가 평균(17.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한국 십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0.5%로, OECD 국가 평균(24.6%)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44.2%로 OECD 국가 평균(75.3)%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십대의 출산비율은 5%로 OECD 국가 평균(1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지난 12개월동안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3.6%로 OECD 국가 평균(3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2개월간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5.7%로, OECD 평균 25.8%보다 크게 낮았다.

〈표 3-5〉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 국제비교

(단위 : %)

	1. 건강행동				2. 위험행동								
	아침 식사	과일 섭취	과체중	운동	흡연	음주	마약	성관계	콘돔 사용	임신 출산	싸움	왕따	
영국	61.2	38.8	11.9	4.2	21.0	13.2	23.0	2.90	73.5	30.0	36.3	28.3	
핀란드	67.8	24.7	15.5	3.8	29.0	5.5	9.5	22.0	69.5	9.0	28.3	30.3	
헝가리	51.5	35.3	15.2	3.7	37.3	13.0	15.5	30.5	76.5	14.0	43.7	28.0	
캐나다	61.5	44.5	20.2	4.4	16.3	7.0	33.0	25.5	74.5	12.0	36.0	35.3	
벨기에	74.3	29.3	10.7	3.1	21.7	10.5	20.0	26.5	74.0	12.0	31.7	29.3	
독일	65.5	38.3	13.2	3.6	25.0	8.7	11.5	22.0	79.5	7.0	23.0	36.0	
이탈리아	61.8	41.5	17.2	3.5	26.0	17.2	19.5	24.0	78.0	5.0	36.0	11.0	
프랑스	66.3	39.2	10.5	3.1	29.3	10.2	27.0	27.5	86.0	6.0	35.3	34.0	
스위스	55.8	42.8	8.5	3.9	32.0	9.3	29.5	19.5	82.0	4.0	29.0	36.3	
스페인	65.2	38.3	16.8	3.8	24.3	10.2	27.5	21.5	83.0	11.0	55.7	14.7	
체코	53.8	41.8	14.8	4.3	48.0	21.7	30.5	24.0	-	10.0	45.3	15.7	
오스트리아	53.3	40.5	14.0	4.2	31.7	13.5	13.5	32.0	81.5	10.0	36.7	40.3	
그리스	51.0	33.8	20.8	3.9	20.0	18.3	7.0	28.5	86.5	10.0	49.3	27.7	
포르투갈	83.2	44.0	18.7	3.4	24.7	4.0	12.0	22.5	82.0	13.0	28.7	38.3	
대한민국	84.5	64.0	5.9	6.0	1.9	8.0	0.4	0.5	44.2	5.0	13.6	5.7	
스웨덴	74.0	28.3	11.7	3.9	26.0	5.3	-	31.5	63.5	6.0	31.3	12.0	
네덜란드	85.2	32.7	8.3	4.1	22.3	8.8	21.0	20.5	75.0	4.0	33.3	24.3	
폴란드	60.0	30.7	17.0	4.0	33.0	7.2	19.0	16.0	80.5	13.0	36.0	26.3	
뉴질랜드	-	-	-	-	-	-	-	-	-	21.0	-	-	
미국	50.7	42.7	29.3	4.4	16.3	5.8	28.0	-	-	30.0	34.0	27.7	
노르웨이	69.5	42.2	12.0	3.5	21.7	4.8	5.5	28.0	-	8.0	-	26.0	
덴마크	73.5	48.8	9.3	3.8	26.3	10.8	15.0	38.0	-	5.0	30.3	19.3	
아일랜드	71.3	36.7	15.3	4.5	20.0	5.3	15.0	22.0	73.5	11.0	35.3	28.0	
호주	-	-	-	-	-	-	-	-	-	13.0	-	-	
일본	-	-	-	-	-	-	-	-	-	6.0	-	-	
아이슬란드	71.8	34.2	14.0	-	13.3	3.0	8.5	29.0	67.5	12.0	31.7	19.0	
기술 통계	평균	65.8	38.8	14.4	4.0	24.7	9.6	17.8	24.6	75.3	11.0	34.6	25.8
	표준편차	10.6	8.0	5.0	0.6	9.0	4.8	9.0	7.3	9.7	6.8	8.7	9.4
	95% 신뢰구간	50.7	24.7	5.9	3.1	1.9	3.0	0.4	0.5	44.2	4.0	13.6	5.7
		85.2	64.0	29.3	6.0	48.0	21.7	33.0	38.0	86.5	30.0	55.7	40.3

### 〈주관적 행복〉 지수 측정 요소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개인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

### 〈주관적 행복〉 국제 비교

- 주관적 행복을 나타내는 6개 요소 중 ‘학교생활 만족도’(한국 35.6%, OECD 국가평균 27.6%) 이외에 나머지 5개 요소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6〉 주관적 행복 영역 국제비교

(단위 : %)

	1. 건강		2. 학교생활		3. 개인행복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척도		부정적 생각							
							소속감		주변 적응		외로움			
영국	16.3		28.2		86.0		6.8		8.7		5.4			
핀란드	12.3		15.5		89.8		5.5		8.4		6.2			
헝가리	19.7		31.5		82.7		9.3		7.6		7.3			
캐나다	14.8		27.2		83.7		8.9		10.5		7.6			
벨기에	20.2		26.2		90.3		7.9		15.6		6.4			
독일	12.7		33.3		84.2		6.1		11.4		6.2			
이탈리아	9.2		15.0		85.8		4.9		6.2		6.0			
프랑스	11.7		32.5		85.5		7.7		12.3		6.4			
스위스	7.7		21.0		87.5		7.1		11.7		6.6			
스페인	6.8		26.2		89.8		3.3		8.9		4.4			
체코	10.0		17.5		85.0		9.7		6.4		7.0			
오스트리아	12.5		34.2		85.8		5.8		8.2		7.2			
그리스	6.5		19.5		89.0		6.3		8.3		6.5			
포르투갈	11.7		23.2		84.7		6.4		11.7		5.0			
대한민국	19.6		35.6		66.6		16.3		6.7		15.3			
스웨덴	13.3		24.2		87.0		5.2		4.9		6.7			
네덜란드	13.7		38.7		94.2		3.9		6.9		2.9			
폴란드	17.5		20.5		80.0		8.2		9.9		8.4			
뉴질랜드	-		-		-		7.7		10.4		6.6			
미국	21.2		31.0		84.2		-		-		-			
노르웨이	17.2		39.0		88.0		5.6		9.1		7.0			
덴마크	16.7		27.3		86.0		5.3		11.8		6.2			
아일랜드	12.7		24.0		86.5		5.6		7.8		4.6			
호주	-		-		-		7.7		8.9		6.5			
일본	-		-		-		5.9		18.1		29.8			
아이슬란드	15.7		42.5		89.2		9.8		10.9		10.3			
기술 통계	평균		13.9		27.6		85.7		6.8		9.3		7.4	
	표준편차		4.3		7.6		5.1		2.9		3.5		5.2	
	95% 신뢰구간		6.5   21.2		15   42.5		66.6   94.2		0   16.3		0   18.1		0   29.8	

- 2013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과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각각 123.99와 129.07(OECD국가 평균=10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한 한편,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영역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주관적 행복 영역은 72.5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3-7〉 행복지수 분석

(OECD국가평균=100)

영역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47	76.91	74.96	80.44	82.66	72.54
대한민국	110.78	108.36	122.99	95.1	129.07	72.54
최상위국	119.19	116.94	122.99	120.09	129.07	116.9

〈표 3-8〉 2013년도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5)

(OECD국가평균=100)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한국	110.78	108.36	122.99	95.1	129.07	72.54
포르투갈	92.98	88.55	104.96	114.94	104.46	100.53
그리스	95.64	100.44	95.21	93.28	93.87	111.76
오스트리아	113.51	78.17	74.96	92.16	99.08	105.58
체코	111.89	102.6	92.14	91	82.66	101.51
스페인	106.87	98.02	108.01	107.82	94	117.23
스위스	-	101.5	90.53	107.23	97.04	106.26
프랑스	104.46	105.88	99.84	97.1	97.44	101.77
이탈리아	100.7	101.61	103.46	120.09	94.07	107.32
독일	95.42	105.96	91.94	100.83	101.89	101.98
벨기에	98.32	92.33	106.75	103.11	97.67	85.65
캐나다	-	100.02	-	85.06	99.2	93.72
헝가리	92.06	94.8	92.84	99.47	90.79	88.69
핀란드	119.19	113.21	101.17	95.25	98.64	102.21
영국	93.22	98.22	94.63	86.35	93.05	97.11
아이슬란드	-	116.52	103.53	101.62	-	97.79
일본	99.79	105.43	-	-	-	-
호주	-	96.01	102.05	-	-	-
아일랜드	-	106.01	118.51	103.99	105.9	103.92
덴마크	-	96.33	91.76	103.93	113.05	94.79
노르웨이	-	104.63	90.39	107.61	110.59	100.31
미국	80.47	76.91	103.36	80.44	-	104.48
뉴질랜드	94.79	87.45	107.73	-	-	-
폴란드	85.92	95.06	103.33	93.01	90.25	85.89
네덜란드	103.99	109.06	106.12	115.83	107.26	114.2
스웨덴	-	116.94	93.8	104.76	-	104.76

5) 행복지수 수치가 비어 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제4장 생활양식과 행복 가치관

담당연구자

이 미 란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박사)

## 1. 일상생활 만족도

### 1) 생활 영역별 만족도

- 초중고생의 생활 영역을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정생활, 생활 전체의 5개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5개 영역 평균 3.24(5점 척도)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생활 영역별로는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령과 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 성적이 높고 가정경제수준이 유복할수록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2013 생활 영역별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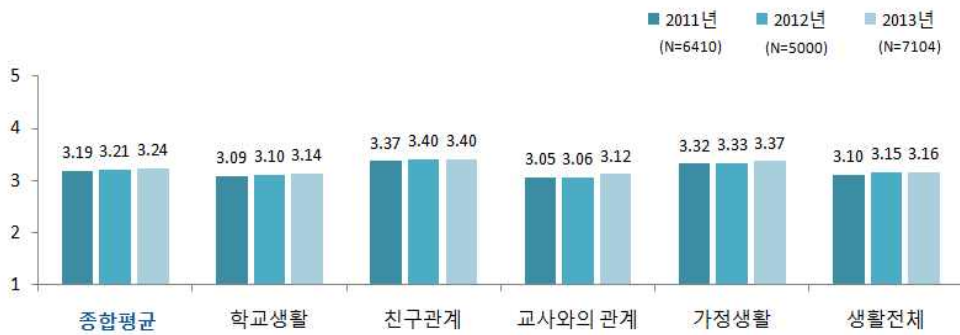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수준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88	2826	1993	1316	5123	605
학교생활	3.14	3.39	3.16	2.94	3.13	3.14	3.34	3.18	2.96	3.40	3.10	2.87
친구관계	3.40	3.56	3.41	3.27	3.45	3.34	3.5	3.42	3.33	3.61	3.37	3.20
교사와의 관계	3.12	3.36	3.08	2.99	3.12	3.12	3.3	3.16	2.97	3.31	3.09	2.92
가정생활	3.37	3.65	3.35	3.19	3.38	3.35	3.52	3.41	3.22	3.68	3.35	2.84
생활전체	3.16	3.47	3.15	2.97	3.19	3.13	3.33	3.22	3.00	3.46	3.13	2.78
종합평균	3.24	3.49	3.23	3.07	3.26	3.21	3.40	3.28	3.09	3.49	3.21	2.92

## 2)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2013년, 3개년의 생활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학교생활을 비롯한 5개 영역의 종합평균(4점 척도) 점수가 2011년 3.19점에서 2013년 3.24점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세부 영역별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4-1〉 2011년~2013년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단위 : 4점 척도 평균)



- 학교급별로 2011년 대비 2013년의 만족도 증감을 살펴본 결과, 2년 전에 비해 만족도가 감소한 영역은 없었으며, 5개 영역 종합평균 만족도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대비 0.07포인트, 중학생은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2011년~2013년 생활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 \_ 학교급별

(단위 : 4점 척도 평균)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2026	1601	1807		2198	1767	2656		2186	1632	2641	
학교생활	3.32	3.36	3.39	▲0.07	3.08	3.10	3.16	▲0.08	2.90	2.86	2.94	▲0.04
친구관계	3.54	3.57	3.56	▲0.02	3.34	3.39	3.41	▲0.07	3.24	3.23	3.27	▲0.03
교사와의 관계	3.28	3.28	3.36	▲0.08	2.99	3.01	3.08	▲0.09	2.91	2.89	2.99	▲0.08
가정생활	3.59	3.62	3.65	▲0.06	3.29	3.25	3.35	▲0.06	3.10	3.12	3.19	▲0.09
생활전체	3.39	3.44	3.47	▲0.08	3.06	3.12	3.15	▲0.09	2.88	2.90	2.97	▲0.09
<b>종합평균</b>	<b>3.42</b>	<b>3.45</b>	<b>3.49</b>	<b>▲0.07</b>	<b>3.15</b>	<b>3.18</b>	<b>3.23</b>	<b>▲0.08</b>	<b>3.00</b>	<b>3.00</b>	<b>3.07</b>	<b>▲0.07</b>

## 2. 부모와의 관계

### 1) 부모자녀 관계

#### ①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 부모님과의 관계를 4개 문항, 5점 척도로 확인해 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체 평균 3.81점,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체 평균 4.21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부모와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항목별 평가에서는 ‘아버지/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라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4-3〉 2013년 부모자녀 관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88	2,826	1,993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부	<b>4.22</b>	4.54	4.20	4.02	4.21	4.24	4.42	4.26	4.07
	모	<b>4.56</b>	4.77	4.51	4.46	4.53	4.59	4.67	4.61	4.43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	<b>3.83</b>	4.22	3.84	3.55	3.84	3.83	4.10	3.87	3.61
	모	<b>4.23</b>	4.50	4.23	4.06	4.21	4.26	4.45	4.27	4.05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	<b>3.76</b>	4.14	3.74	3.50	3.82	3.69	4.00	3.78	3.57
	모	<b>4.14</b>	4.48	4.09	3.95	4.14	4.14	4.32	4.19	3.96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부	<b>3.43</b>	3.88	3.38	3.16	3.57	3.26	3.75	3.44	3.22
	모	<b>3.89</b>	4.30	3.83	3.68	3.86	3.93	4.12	3.94	3.69
종합평균	부	<b>3.81</b>	4.19	3.79	3.56	3.86	3.75	4.07	3.84	3.62
	모	<b>4.21</b>	4.51	4.17	4.04	4.19	4.23	4.39	4.25	4.03

-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버지와의 관계 점수를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교급별로는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초등학생(4.19), 중학생(3.79), 고등학생(3.56))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머니와의 관계 점수를 학교급, 성별, 성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어린 학생일수록(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순), 성적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성별에 따라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남학생 집단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관계 점수가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자관계’와 ‘모녀관계’의 동성 간 유대감이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부모와의 관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모와의 관계 평가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 근소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 관계의 세부 항목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공통으로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특히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항목은 부모자녀 간 유연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2011년 이래 올해까지 다른 세 개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 비해 2011년 대비 평가점수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아버지 : 2011년 대비 ▲0.18포인트, 어머니 : 2011년 대비 ▲0.12포인트).

〈표 4-4〉 2011년~2013년 부모와의 관계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 대비 증감	2011년	2012년	2013년	2011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6,410	5,000	7,104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4.21	4.18	<b>4.22</b>	<b>▲0.01</b>	4.53	4.53	<b>4.56</b>	<b>▲0.03</b>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3.69	3.74	<b>3.83</b>	<b>▲0.14</b>	4.12	4.18	<b>4.23</b>	<b>▲0.11</b>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66	3.69	<b>3.76</b>	<b>▲0.10</b>	4.04	4.10	<b>4.14</b>	<b>▲0.10</b>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3.25	3.34	<b>3.43</b>	<b>▲0.18</b>	3.77	3.87	<b>3.89</b>	<b>▲0.12</b>

2) 부모와의 대화 내용 6)

- 평소 부모님과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 학원, 공부와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학원 생활’이 전체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와 성적’ 15.7%, ‘미래 진로와 직업’ 12.6%, ‘취미와 여가활동’ 10.8%, ‘친구관계’ 10.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공통으로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대화를 주로 많이 나누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공부와 성적’,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화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향후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대화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 성적 상, 중, 하 집단별로는 성적 상위집단일수록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대화 비율이 높았고, 성적 하위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정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일수록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대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미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화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미와 여가활동’에 대한 대화의 비율은 상위집단에서 다소 높은 편이다.

〈표 4-5〉 2013년 부모와의 대화 내용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가정경제수준		
		초	중	고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1,588	2,826	1,993	1,316	5,123	605
학교/학원생활	32.6	37.4	32.4	29.4	41.5	34.0	24.9	36.7	32.7	22.9
공부와 성적	15.7	8.6	17.9	18.5	13.7	15.8	16.7	14.1	16.2	15.8
미래진로/직업	12.6	7.4	10.7	18.2	12.5	10.6	16.0	10.0	12.9	16.6
취미/여가활동	10.8	14.4	11.0	8.1	9.2	11.2	11.7	14.2	10.0	10.0
친구관계	10.0	13.2	10.7	7.0	8.5	10.4	10.4	10.2	10.1	7.2
기타	17.7	18.3	16.8	18.2	13.9	17.5	19.7	14.9	18.1	2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2013년도 신규 문항

### 3. 교우관계

#### 1) 친구관계

##### ① 친구들간 긍정적 감정의 경험 수준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점 척도 평균이 3.7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친한 교우관계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적 유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세부 항목별로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라는 항목이 전체 응답자 기준, 4.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것은 3.16점의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라는 항목이다. 이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덜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세부 집단별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적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친한 친구들간의 관계 점수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 4개 항목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즐겁고, 친구들과 생각과 감정의 공유를 위해 노력하며, 비교적 고민도 함께 나누는 편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관계를 맺고 싶어한다고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6〉 긍정적 감정 경험 수준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88	2,826	1,993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4.59	4.67	4.59	4.53	4.57	4.61	4.66	4.62	4.52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3.85	3.84	3.88	3.82	3.81	3.88	3.97	3.84	3.78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3.57	3.28	3.59	3.75	3.39	3.78	3.57	3.54	3.61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3.16	3.16	3.16	3.16	3.08	3.25	3.24	3.19	3.08
종합평균	3.78	3.73	3.80	3.80	3.70	3.87	3.85	3.79	3.73

② 친구들간 부정적 감정의 경험 수준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5가지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점 척도 평균이 3.24점으로 나타났다.7) 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세부 항목별로는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항목이 전체 응답자 기준, 2.78점으로 5개 항목 중 가장 부정적 감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집단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성적이 낮은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해 세부 항목 모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5개 항목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지만, 때때로 나의 속상한 감정을 친구들이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다소 망설여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표 4-7〉 부정적 감정 경험 수준 8)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88	2,826	1,993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어리석게 느껴진다	3.17	3.21	3.16	3.16	3.15	3.20	3.26	3.17	3.10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58	3.60	3.54	3.61	3.57	3.60	3.65	3.60	3.53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3.52	3.67	3.51	3.41	3.59	3.43	3.57	3.56	3.45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2.78	2.8	2.75	2.80	2.81	2.75	2.83	2.77	2.77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3.15	3.24	3.15	3.09	3.11	3.20	3.23	3.16	3.09
종합평균	3.24	3.30	3.22	3.22	3.24	3.23	3.31	3.25	3.19

7) 부정적 감정 요소 5개 항목의 척도는 ‘① 매우 그렇다부터’ 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척도 data reverse : ① 매우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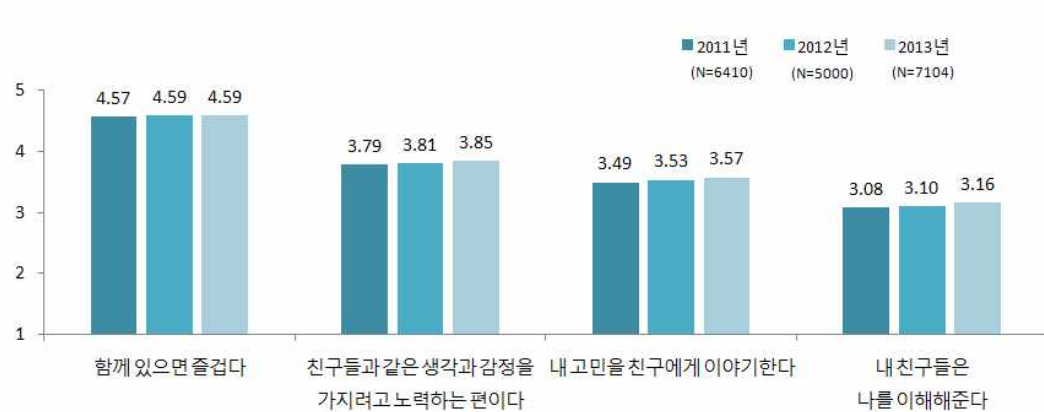
## 2) 친구관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① 친구들간 긍정적 감정의 경험 수준 변화추이

-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에 대한 초중고생들의 응답결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주 근소하게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각 항목별 평균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2011년~2013년 긍정적 감정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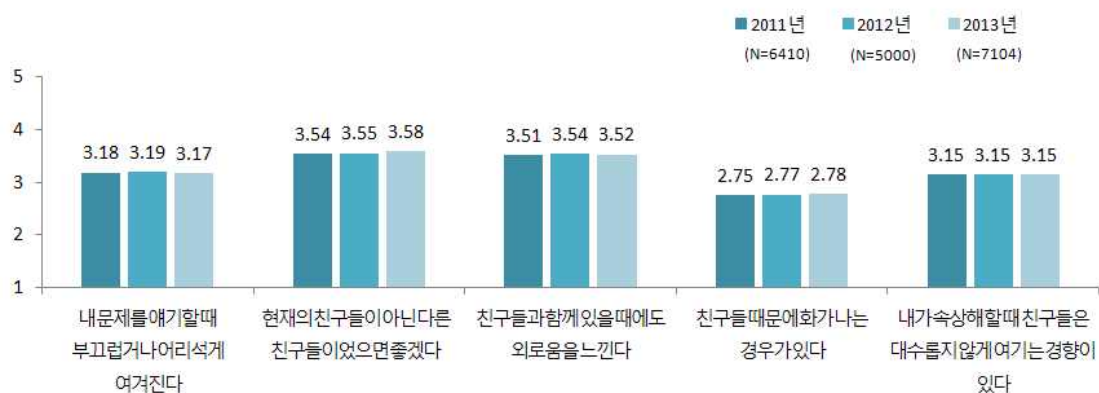


### ② 친구들간 부정적 감정의 경험 수준 변화추이

- 부정적 감정의 변화추이 역시 긍정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한편, 긍정적 감정에서는 감소한 항목이 없었으나 부정적 감정에서는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두 개 항목의 평균값이 전년 대비 각각 0.02포인트씩 낮아졌다.

〈그림 4-3〉 2011년~2013년 부정적 감정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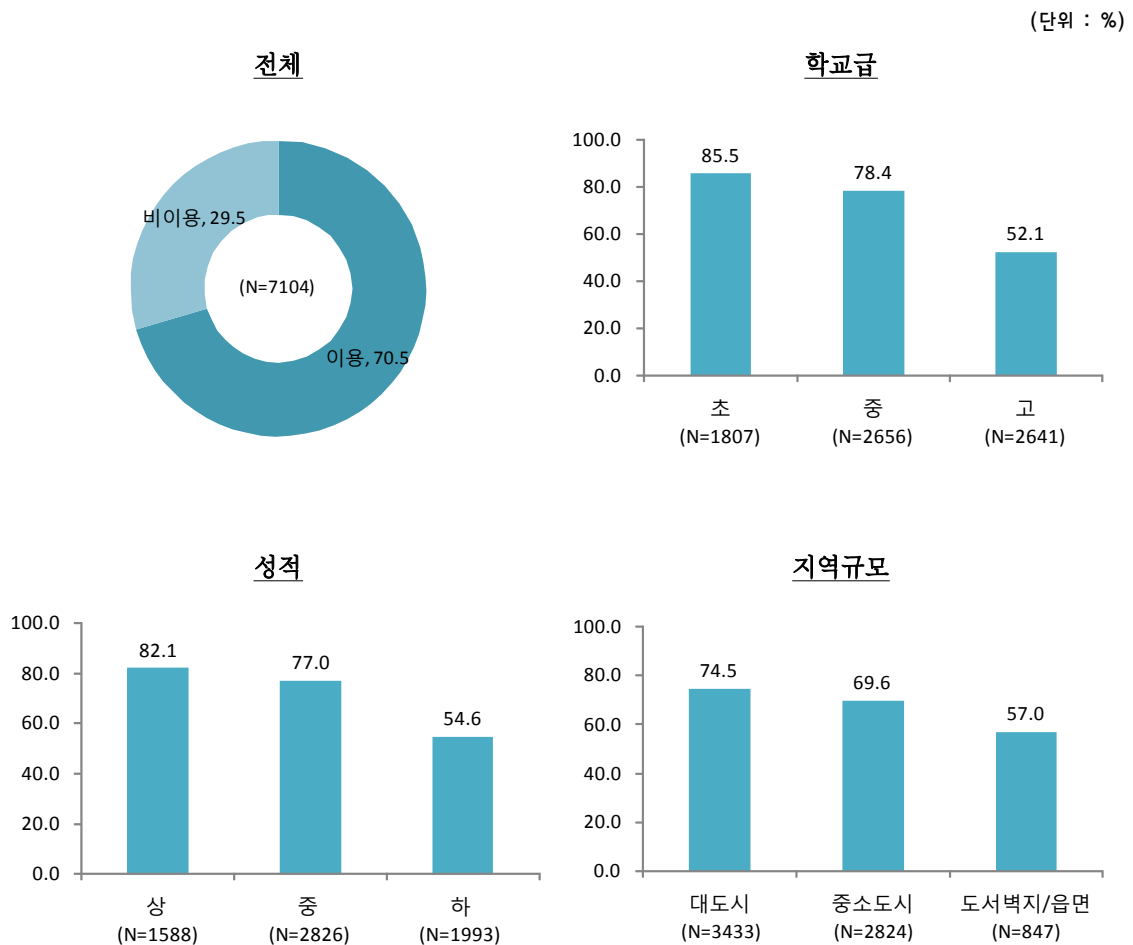
## 4. 사교육 실태

### 1) 사교육 이용률

#### ① 사교육 이용률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70.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사교육 비율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발견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85.5%로 10명 중 9명 정도, 즉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78.4%로서, 초등학생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엔 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 수준인 52.1%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약 74.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 도서벽지와 읍면 등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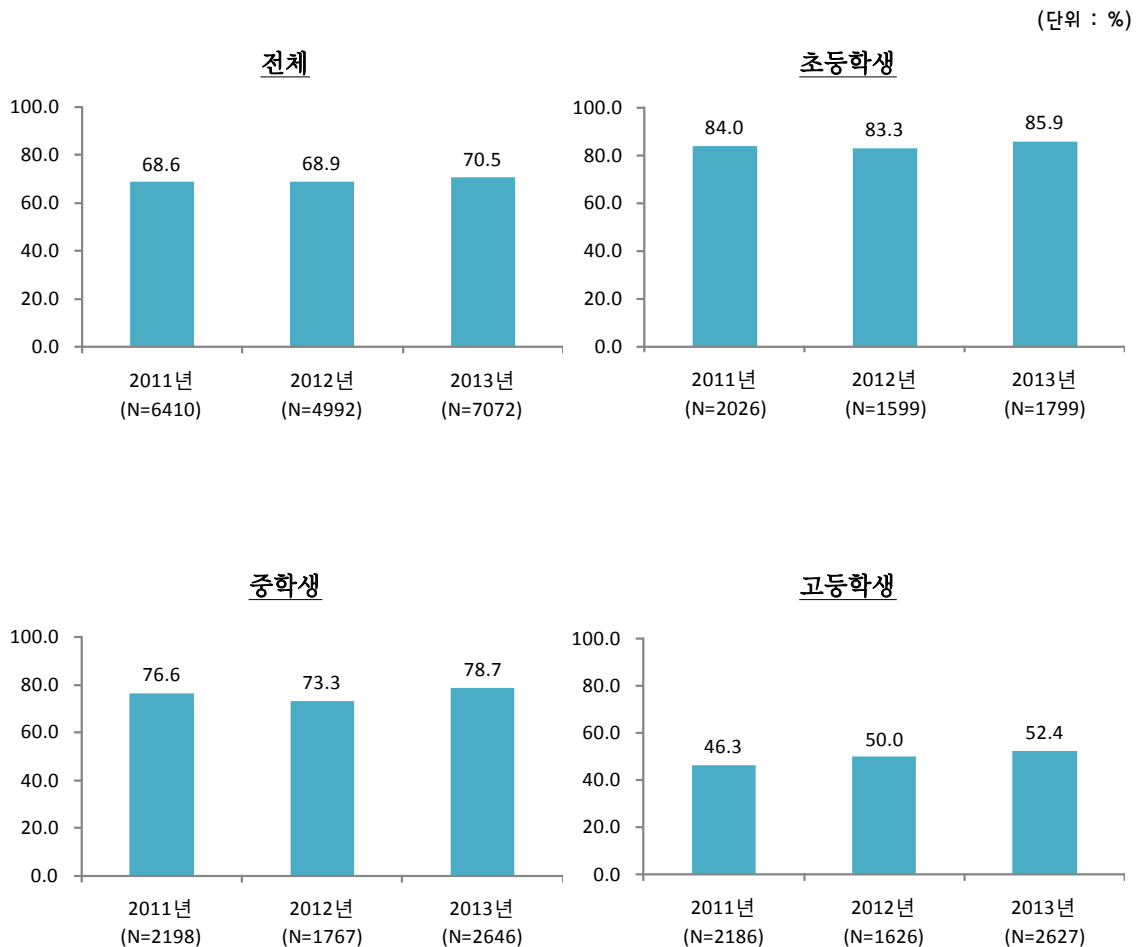
〈그림 4-4〉 사교육 이용률



② 사교육 이용률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이용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11년 68.6%에서 2013년 70.5로 1.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84.0%에서 2013년 85.9%로 1.9%포인트 증가했다.
  - 중학생 역시 2011년 76.6%에서 2013년 78.7%로 2.1%포인트 증가했다.
  -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011년 46.3%에서 2013년 52.4%로 약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2011년~2013년 사교육 이용률 변화추이



## 2)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 ①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

- 개별 학생들이 몇 가지의 사교육 서비스와 기관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평균 2(1.94)가지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4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전체 약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5개 수준, '4개 이상'이 약 20% 정도로 중고생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적 상위권 집단으로 갈수록 여러 개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습중인 사교육 기관 및 서비스 수

(단위 : %, 갯수)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초	중	고	상	중	하
사례수	5,005	1,546	2,082	1,377	1,303	2,177	1,089
1개	44.7	29.6	45.4	60.6	33.8	40.9	62.1
2개	31.8	29.7	35.3	29	31.5	34.3	27.3
3개	13.6	20.5	12.5	7.6	17.9	15	7.3
4개 이상	9.6	19.9	6.7	2.3	16.7	9.6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94	2.46	1.84	1.52	2.31	1.99	1.52

### ②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갯수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일인당 평균 2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학교급별로도 큰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 평균 2.57개에서 2013년 2.46개로 다소 줄어든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전 두 개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9〉 2011년~2013년 사교육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수의 변화추이

(단위 : %, 갯수)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4375	3418	4991	1687	1319	1542	1679	1292	2082	1009	806	1377
1개	45.9	47.6	44.8	29.0	31.6	29.6	50.7	53.7	45.4	66.2	63.9	60.6
2개	29.4	30.1	31.9	28.0	30.3	29.7	32.0	30.6	35.3	27.6	29.1	29.0
3개	13.2	11.9	13.7	20.7	16.6	20.5	10.6	11.0	12.5	5.10	5.70	7.6
4개이상	11.5	10.4	9.6.0	22.4	21.5	19.9	6.7	4.70	6.7	1.10	1.30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갯수)	1.99	1.96	1.94	2.57	2.53	2.46	1.77	1.70	1.84	1.41	1.46	1.52



### 3) 사교육 시간

#### ① 사교육 시간

- 초중고생 전체의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약 9시간(53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595분, 초등학생 516분, 고등학생 469분 정도로 중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 이용 종류의 가짓수와 마찬가지로 성적 상위집단의 사교육 시간이 중, 하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규모별로는 도서벽지와 읍면 지역보다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사교육 시간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표 4-10〉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적			지역			
		초	중	고	상	중	하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읍면	
사례수	5005	1546	2082	1377	1303	2177	1089	2557	1965	483	
5시간 미만	35.5	39.5	30.2	39.2	26.6	36.1	44.7	33.1	37.1	42.2	
5-10시간 미만	25.2	23.7	22.1	31.5	26.1	26.1	22.4	26.1	23.7	26.2	
10-15시간 미만	19.6	17.8	23.2	16.2	23.9	19.4	15.1	21.1	19.0	14.4	
15-20시간 미만	10.5	10.0	14.2	5.6	13.2	9.6	9.5	10.8	10.4	9.6	
20시간 이상	8.2	8.0	9.5	6.6	10.0	8.0	7.1	8.2	8.8	6.5	
무응답	0.9	1.0	0.8	0.9	0.2	0.8	1.1	0.7	1.1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분	536	516	595	469	616	523	476	549	536	469
	시간 환산	8시간 56분	8시간 36분	9시간 55분	7시간 49분	10시간 16분	8시간 43분	7시간 56분	9시간 9분	8시간 56분	7시간 49분

②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사교육 시간의 전체적인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주당 평균 10시간이던 사교육 시간은 2012년 9시간 14분, 2013년 8시간 56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의 변화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1년 대비 2년 사이 약 1시간(55분), 중학생은 약 2시간 정도(126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 7시간 29분에서 2013년 7시간 49분으로 20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1〉 2011년~2013년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단위 : %, 시간분)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4355	3404	4959	1679	1315	1530	1666	1285	2065	1010	804	1365	
5시간 미만	32.9	34.7	35.9	35.7	37.2	39.9	25.7	29.2	30.4	40.2	39.3	39.5	
5-10시간 미만	25.3	25.6	25.4	21.6	23.7	23.9	23.8	21.5	22.3	34.0	35.4	31.8	
10-15시간 미만	19.0	19.8	19.8	22.1	20.5	18.0	18.5	21.6	23.4	14.7	15.4	16.4	
15-20시간 미만	10.2	10.3	10.6	10.3	10.3	10.1	13.0	13.7	14.3	5.3	4.8	5.7	
20시간 이상	12.6	9.7	8.3	10.3	8.2	8.1	19.1	14.0	9.5	5.8	5.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분	600	554	536	571	531	516	721	646	595	449	446	469
	시간 환산	10시간	9시간 14분	8시간 56분	9시간 31분	8시간 51분	8시간 36분	12시간 1분	10시간 46분	9시간 55분	7시간 29분	7시간 26분	7시간 49분

## 5. 일상생활

### 1) 귀가시간과 수면시간

#### ① 귀가시간

-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평일 평균 귀가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 44.7%가 오후 9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 70%가 9시 이후 늦은 귀가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밤 11시 이후 귀가비율이 28.9%에 이른다.

〈표 4-12〉 평일 귀가시간

(단위 : %)

	전체	학교급		
		초	중	고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오후 6시 이전	25.1	47.9	22.1	12.5
오후 7-8시경	19.7	30.7	23.3	8.4
오후 9-10시경	31.7	8.2	38.7	40.5
오후 11시 이후	13.0	0.4	5.8	28.9
일정치 않다	9.5	12.1	8.9	8.3
계	100.0	100.0	100.0	100.0

#### ② 수면시간

- 초중고생들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 평균 8시간 37분, 중학생 7시간 23분, 고등학생 6시간 2분으로,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는데,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평균 수면시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집단보다 약 1시간(61분)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족한 수면시간이 스트레스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시간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표 4-13〉 평일 평균 수면시간

(단위 : %, 시간/분)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스트레스 지수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807	2,656	2,641
평균	분	432	517	443	362	439	423	409	418	470
	시간환산	7시간 12분	8시간 37분	7시간 23분	6시간 2분	7시간 19분	7시간 3분	6시간 49분	6시간 58분	7시간 50분

## 2) 스마트폰 이용실태 9)

### ① 스마트폰 사용률

- 전체 초중고생의 82.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약 65.2%, 중고생의 경우 각각 88.0%, 8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수준별 스마트폰 사용률을 살펴보면, 성적 상위 집단의 사용비율이 하위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덜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가정경제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해 각 집단별 스마트폰 사용률을 확인해본 결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4-6〉 스마트폰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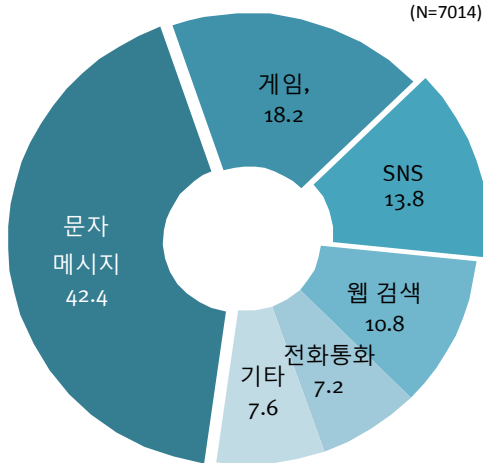


9) 2013년도 신규 문항

② 스마트폰 이용(예상) 기능<sup>10)</sup>

- 스마트폰 기능 중 초중고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이용 예상)하는 기능은 문자 메시지(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게임(18.2%), SNS(13.8%), 웹 검색(10.8%)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게임(30.9%)과 문자 메시지(27.2%)가 1, 2위를 차지했고, 중고생의 경우는 문자 메시지가 각각 42.2%와 52.9%로 1위로 응답됐다.
  - 한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30.9% > 중학생 19.5% > 고등학교 8.1%).
-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다. 남학생의 경우 문자 메시지(33.8%)와 게임(26.3%)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엔 문자 메시지 사용 비율이 52.2%로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게임보다는 SNS(15.7%) 기능 사용률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문자 교환이나 SNS를 이용한 사회적 교류와 친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7〉 스마트폰 사용(예상) 기능



〈표 4-14〉 스마트폰 사용(예상)기능

(단위 : %)

구분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사례수	1807	2656	2641	3805	3299
문자 메시지	27.2	42.2	52.9	33.8	52.2
게임	30.9	19.5	8.1	26.3	8.8
SNS	9.6	16.7	13.7	12.1	15.7
웹 검색	4.6	9.7	16.1	11.6	9.9
전화통화	16.6	4.5	3.4	7.5	6.8
기타	11.1	7.4	5.8	8.7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자에게는 현재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비사용자에게는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질문함

## 1. 주관적 행복과 스트레스

### 1) 주관적 행복도 11)

#### ①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 12)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 정도를 4점 척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4%가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44점, 중학생 3.05점, 고등학생 2.90점으로 나타남으로써 연령과 교급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스트레스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해 각 집단별 주관적 행복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상위 집단 2.70점, 중간 집단 3.01점, 하위 집단 3.48점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가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특징적인 것은 전체 6.8%에 해당하는 '모르겠다'와 '무응답'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성적이 낮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모름'이나 '무응답'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성적, 스트레스, 행복에 대한 거리감이라는 요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즉, 낮은 성적과 높은 스트레스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성적도 낮고 스트레스도 큰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름, 무응답'에는 '행복'에 대한 응답 회피 성향과 거리감이 담겨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표 4-15〉 주관적 행복도

(단위 : %, 4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스트레스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58	3409	2128	1588	2826	1993
행복함	79.4	87.2	79.3	74.3	79.3	79.5	58.7	80.6	92.7	86.0	82.4	71.8
행복하지 않음	13.8	5.5	14.1	19.1	14.1	13.4	30.2	12.7	3.6	9.9	11	19.3
모름/무응답	6.8	7.4	6.6	6.6	6.6	7.0	11.1	6.8	3.7	4.1	6.5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4점 척도)	3.09	3.44	3.05	2.90	3.11	3.08	2.70	3.01	3.48	3.25	3.15	2.92

11) 본 설문에서 주관적 행복은 몇 가지의 형태로 측정되었다.

a. 설문문항(2013) 29번: 4점 척도 단일문항 - "여러 가지 면에서 평소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 설문문항(2013) 27번: 5점 척도 6개문항 - 주관적 건강 인식, 학교생활 삶, 주거집단 소속감, 주변과의 어울림, 외로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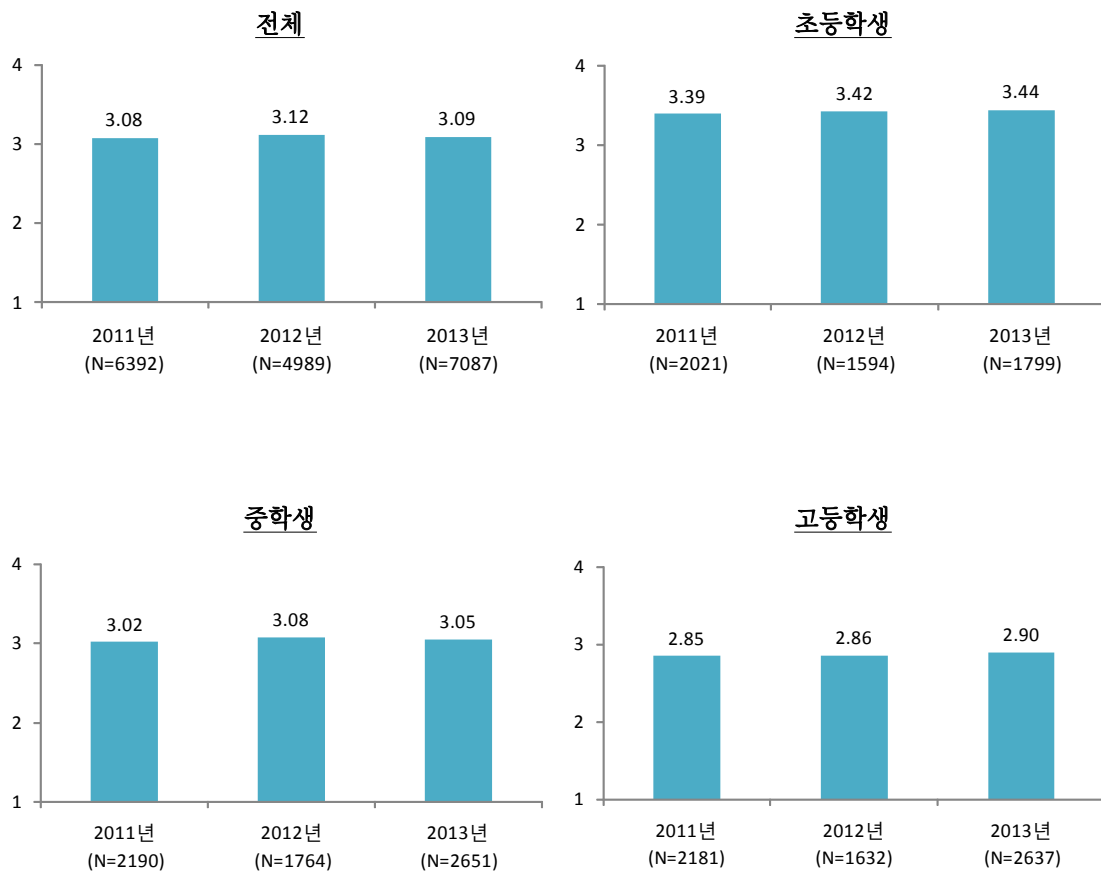
12) 4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측정

②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주관적 행복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2011년 3.08점(4점 척도 기준)에서 2013년 3.09점으로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학교급별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초중고 모두 2011년 대비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2011년~2013년 주관적 행복도 변화추이

(단위 : 4점 척도 평균)



2)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sup>13)</sup>

①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 초중고생들의 주관적인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6개의 하위 요소로 행복의 요소들을 구분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행복도는 3.82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 항목별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인식 점수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6개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준거집단 소속감', 3.56점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행복 수준이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고 모두 건강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준거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 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은 교급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각 항목별 점수가 낮아진다는 점인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reverse)<sup>14)</sup>와 '내 삶에 만족한다'라는 항목에서 다른 두 집단과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 고등학생들이 초중생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행복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상위 집단의 경우 6개 항목 종합평균 3.37점, 하위 집단이 4.26점으로 0.89포인트의 편차를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는 행복감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6〉 2013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스트레스			성적		
		초	중	고	남	여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1558	3409	2128	1588	2826	1993
건강하다고 생각	4.09	4.39	4.10	3.87	4.13	4.04	3.72	4.01	4.48	4.26	4.16	3.89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75	4.01	3.82	3.50	3.76	3.74	3.31	3.67	4.2	4.07	3.80	3.48
내 삶에 만족	3.70	4.20	3.70	3.37	3.78	3.61	3.03	3.60	4.36	4.00	3.80	3.39
준거집단 소속감	3.56	3.55	3.56	3.56	3.60	3.51	3.34	3.51	3.79	3.85	3.59	3.32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3.96	4.13	4.00	3.81	3.97	3.94	3.62	3.89	4.31	4.20	4.00	3.77
외로움 (reverse)	3.84	4.31	3.84	3.53	3.99	3.67	3.17	3.78	4.44	4.03	3.91	3.67
<b>종합평균</b>	<b>3.82</b>	<b>4.10</b>	<b>3.83</b>	<b>3.61</b>	<b>3.87</b>	<b>3.75</b>	<b>3.37</b>	<b>3.74</b>	<b>4.26</b>	<b>4.07</b>	<b>3.87</b>	<b>3.59</b>

13) 5점 척도 6개 문항으로 측정

14) 이 항목의 경우 척도점수를 역으로 환산해 처리함.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②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6개 항목의 행복 수준 측정결과에 대해 2011년부터 2013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2011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5점 척도 기준, 0.06포인트 증가했다.
  - 5개 항목 가운데에서 '내 삶에 만족한다'의 증가폭이 0.13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외로움'이 0.01포인트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엔 2011년 대비 0.03포인트 높아졌다.
  - 중고생의 경우는 두 집단 모두 2011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표 4-17〉 2011년~2013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건강하다고 생각	4.03	4.08	4.09	▲0.06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69	3.72	3.75	▲0.06
내 삶에 만족	3.57	3.66	3.70	▲0.13
준거집단 소속감	3.54	3.63	3.56	▲0.02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3.91	3.95	3.96	▲0.05
외로움 (reverse)	3.83	3.86	3.84	▲0.01
<b>종합평균</b>	<b>3.76</b>	<b>3.82</b>	<b>3.82</b>	<b>▲0.06</b>

〈표 4-18〉 2011년~2013년 세부 요소별 주관적 행복 수준 변화추이 : 학교급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2026	1601	1807	2198	1767	2656	2186	1632	2641
건강하다고 생각	4.30	4.30	4.39	3.99	4.06	4.10	3.81	3.88	3.87
학교생활 매우 좋아함	3.93	3.97	4.01	3.69	3.75	3.82	3.47	3.45	3.50
내 삶에 만족	4.05	4.11	4.20	3.48	3.64	3.70	3.22	3.24	3.37
준거집단 소속감	3.80	3.80	3.55	3.47	3.61	3.56	3.37	3.47	3.56
주변에 어울림과 적응	4.06	4.10	4.13	3.91	3.97	4.00	3.76	3.79	3.81
외로움 (reverse)	4.28	4.29	4.31	3.83	3.87	3.84	3.42	3.44	3.53
<b>종합평균</b>	<b>4.07</b>	<b>4.10</b>	<b>4.10</b>	<b>3.73</b>	<b>3.82</b>	<b>3.83</b>	<b>3.51</b>	<b>3.55</b>	<b>3.61</b>

### 3) 스트레스 수준

#### ① 범주별 스트레스 수준

- 5개 영역, 총 17개 항목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2.37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는 성적 및 입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2.97점). 반면 스트레스를 가장 덜 느끼는 영역은 교우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01점, 중학생 2.42점, 고등학생 2.57점으로 상위 교급으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및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다른 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3.33점).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학생 공통으로 성적과 입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외모 및 신체적 요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 주관적 행복을 묻는 질문에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구분해 각 집단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다.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2.91점)가 '행복' 집단(2.2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성적 및 입시와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3.54점,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3.1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및 입시, 부모관계라는 두 요소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및 스트레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성적 상, 중, 하 3개 집단별로 스트레스 점수를 살펴본 결과 성적과 스트레스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하위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 중 성적 및 입시 관련 점수가 3.23점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9〉 스트레스 수준 : 범주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성적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안함	상	중	하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5642	980	1588	2826	1993
부모관계 요인	2.53	2.08	2.68	2.69	2.56	2.51	2.40	3.18	2.33	2.50	2.71
성적 및 입시 요인	2.97	2.48	2.95	3.33	2.90	3.06	2.84	3.54	2.66	2.95	3.23
교우관계 요인	1.81	1.79	1.80	1.83	1.80	1.82	1.72	2.21	1.66	1.81	1.90
외모 및 신체적 요인	2.21	1.87	2.25	2.40	2.01	2.44	2.10	2.69	1.98	2.15	2.42
용돈 및 소비 요인	2.06	1.78	2.08	2.22	2.01	2.10	1.93	2.67	1.78	1.99	2.34
종합평균	2.37	2.01	2.42	2.57	2.3	2.45	2.25	2.91	2.13	2.33	2.58

②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수준

- 총 17개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수준 측정결과를 통해 스트레스가 높은 요소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부담 > 숙제나 시험 > 공부가 지겨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동일하게 '숙제나 시험 > 공부가 지겨워서 > 성적이 좋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학입시 및 취업부담 > 성적이 좋지 않아서 > 숙제나 시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녀학생 모두 '대학입시 및 취업부담 > 숙제나 시험 > 공부가 지겨워서 / 성적이 좋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스트레스 수준 : 세부 요소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부모 관계	1) 성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2.70	2.26	2.87	2.84	2.74	2.66
	2) 부모와의 의견충돌	2.68	2.16	2.86	2.85	2.66	2.69
	3) 부모의 지나친 간섭	2.45	2.03	2.61	2.57	2.51	2.38
	4) 부모와의 대화가 안 통해서	2.31	1.88	2.40	2.51	2.31	2.30
성적 및 입시	5) 성적이 좋지 않아서	2.88	2.27	2.90	3.27	2.80	2.97
	6) 숙제나 시험	3.10	2.69	3.25	3.24	3.02	3.20
	7) 대학입시 및 취업부담	3.15	2.69	3.62	3.04	3.29	3.29
	8) 공부가 지겨워서	2.93	2.48	2.97	3.20	2.90	2.97
교우 관계	9) 친구들의 놀림, 무시	1.81	1.93	1.79	1.74	1.81	1.81
	10) 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1.77	1.75	1.77	1.77	1.78	1.75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1.86	1.70	1.84	1.99	1.81	1.91
외모 및 신체	12) 체중 과다/과소	2.36	2.11	2.37	2.52	2.08	2.68
	13) 키가 크거나 작아서	2.21	2.03	2.26	2.28	2.15	2.28
	14) 얼굴 생김새	2.23	1.80	2.30	2.45	2.00	2.49
	15) 멋지고 이쁜 옷 못 입어서	2.03	1.55	2.06	2.32	1.80	2.29
용돈 및 소비욕구	16) 용돈 부족	2.00	1.69	2.03	2.18	1.96	2.03
	17) 갖고 싶은 물건 갖지 못해서	2.11	1.86	2.13	2.26	2.06	2.17

③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전체응답자의 5개 범주, 총 17개 항목의 종합평균점수는 2011년 2.42, 2012년 2.38, 2013년 2.37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스트레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척도 평균기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0.05포인트 감소함으로써 초중고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근소하게나마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 3개년 공통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범주는 '성적 및 입시' 요인으로, 반면, 3개년 공통 가장 스트레스가 낮은 범주는 '교우관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종합평균점수는 2011년 2.01점에서 2012년에 0.04포인트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2.01점으로 증가했다. 범주별로는 특히 성적 및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의 종합평균점수는 2011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요인(2011년 대비 0.15포인트 감소)과 용돈 및 소비욕구 요인(2011년 대비 0.16포인트 감소)의 감소폭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고등학생의 종합평균점수도 2011년 대비 0.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돈 및 소비욕구 요인의 스트레스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2011년 대비 0.18포인트 감소)

〈표 4-21〉 2011년~2013년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6,410	5,000	7,104	
부모관계 요인	2.59	2.52	2.53	▽0.06
성적 및 입시 요인	2.98	2.94	2.97	▽0.01
교우관계 요인	1.87	1.81	1.81	▽0.06
외모 및 신체적 요인	2.29	2.26	2.21	▽0.08
용돈 및 소비욕구 요인	2.16	2.16	2.06	▽0.10
종합평균	2.42	2.38	2.37	▽0.05

- 2011년 대비 스트레스 증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근소한 감소추세가 확인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생과는 달리 '성적 및 입시' '부모관계' 두 범주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입시로 인한 부담감이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2〉 2011-2013 스트레스 수준 변화추이 \_ 학교급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초				중				고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2026	1601	1807		2198	1767	2656		2186	1632	2641	
부모관계 요인	2.06	2.01	2.08	▲0.02	2.83	2.75	2.68	▽0.15	2.84	2.75	2.69	▽0.15
성적 및 입시 요인	2.41	2.35	<b>2.48</b>	▲0.07	3.04	3.04	<b>2.95</b>	▽0.09	3.45	3.40	<b>3.33</b>	▽0.12
교우관계 요인	1.79	1.69	1.79	-	1.84	1.85	1.80	▽0.04	1.96	1.88	1.83	▽0.13
외모 및 신체적 요인	1.91	1.92	1.87	▽0.04	2.35	2.33	2.25	▽0.10	2.56	2.52	2.40	▽0.16
용돈 및 소비욕구	1.82	1.83	1.78	▽0.04	2.24	2.24	2.08	▽0.16	2.40	2.40	2.22	▽0.18
종합평균	2.01	1.97	2.01	-	2.52	2.50	2.42	▽0.10	2.71	2.66	2.57	▽0.14

## 2. 행복에 대한 의식

### 1)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15)

-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과 관련된 질적인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 결과를 살펴보면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응답이 전체 44.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24.6%, '성적이 좋을 때' 12.8%, '부모님 및 가족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9.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에 가까운 44.9%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응답한 것은 공부와 입시의 압박에 쫓겨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면, '성적이 좋을 때' 행복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2.8%에 불과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부모세대는 공부와 성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어린이·청소년들 스스로의 행복 요건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동일하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응답이 각 집단 1순위로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절반에 해당하는 51.0%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하다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3〉 행복을 느끼는 경우 및 상황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사례수	7,079	1,798	2,646	2,634	3,789	3,290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44.9	34.5	46.0	51.0	47.2	42.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24.6	21.5	28.1	23.2	22.3	27.3
성적이 좋을 때	12.8	16.5	12.3	10.6	13.6	11.8
부모님/가족과의 관계 만족스러울 때	9.3	17.7	6.8	5.9	8.4	10.2
가정 형편이 넉넉할 때	4.1	3.1	3.8	5.1	4.0	4.2
공부가 재미있을 때 / 공부할 때	2.3	3.9	1.7	1.8	2.6	2.0
매 순간 항상 / 모두 다	0.3	0.5	0.3	0.1	0.2	0.5
기타	1.7	2.3	1.0	2.3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 2013년도 신규 문항

## 2) 행복 준거집단 및 장소

### ①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

- 행복을 느끼는 장소 또는 집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구와 모이는 장소'(35.8%)와 '집'(33.1%)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와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응답도 각각 10.6%와 7.0%를 차지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활 율타리인 가정과 학교, 기본적인 준거집단인 친구관계라는 3개 요소가 행복이 생성되는 주요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학교급별 결과에서도 친구, 집, 학교라는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교급별 우선 순위에는 차이가 있다. 즉, 행복을 느끼는 장소와 집단으로 초등학생은 '집'(48.7%)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고생 집단에서는 '친구와 모이는 장소'(각각 38.8%, 40.1%)가 1순위로 나타났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4〉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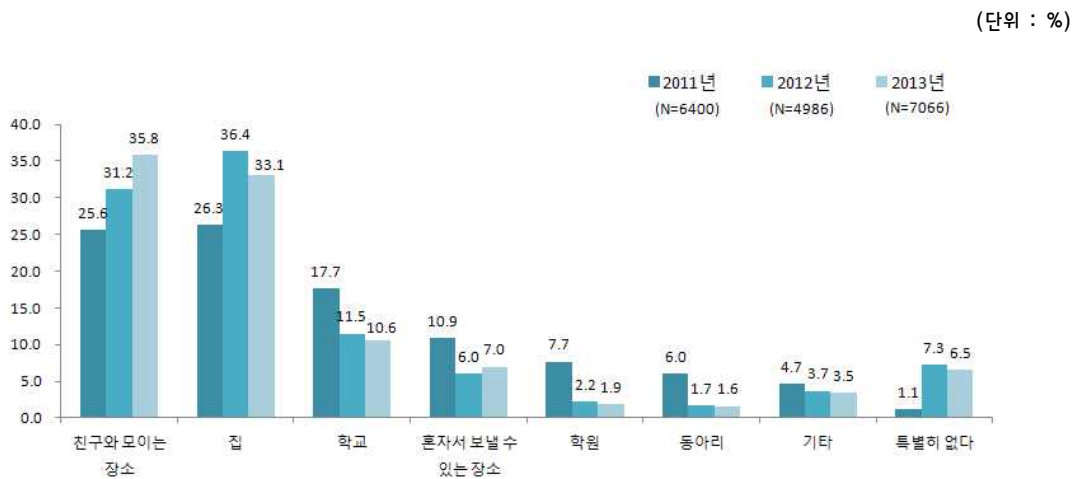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사례수	7,066	1,798	2,645	2,623	3,786	3,281
친구와 모이는 장소	35.8	25.2	38.8	40.1	37.5	33.9
집	33.1	48.7	29.4	26.3	32.3	34.1
학교	10.6	9.1	12.4	9.9	10.2	11.1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0	4.7	6.6	8.9	6.1	8.0
학원	1.9	2.6	1.9	1.3	2.0	1.7
동아리	1.6	2.3	1.3	1.4	1.9	1.2
기타	3.5	2.5	2.9	4.8	3.9	3.0
특별히 없다	6.5	5.0	6.8	7.3	6.2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의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행복을 느끼는 준거집단 및 장소에 대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1년에는 집(26.3%) > 친구(25.6%) > 학교(17.7%) >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10.9%) > 학원(7.7%)의 순서였으나, 2013년에는 친구(35.8%) > 집(33.1%) > 학교(10.6%) >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7.0%) > 학원(1.9%)의 순으로 변화했다. 즉 '친구'와 '집'의 비중이 늘어난 대신, 학교와 학원을 '행복 장소'로 느끼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다.
- '행복 장소'별로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 '친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비율은 2011년 25.6% 수준에서 2012년 31.2%, 2013년 3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 행복의 준거집단 및 장소로 '집'을 선택한 비율은 2011년 26.3%에서 2012년 36.4%로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33.1%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학교가 행복의 장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특별히 없다'는 비율이 2011년 1.1%였으나 2013년에는 6.5%로 늘어났다.

〈그림 4-9〉 2011년-2013년 행복을 느끼는 장소 및 집단 변화추이





3) 행복하지 않을 때 16)

-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에 대한 압박'(24.3%), '학습 부담'(21.0%)의 두 가지 요인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16.6%)와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16.1%) 행복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적과 학습에 대한 압박과 부담으로 인해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 학교급별 결과에서는 교급 간 우선 순위의 차이가 발견된다.
  -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엔 1순위가 '학습 부담'(22.0%), 2순위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19.9%)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성적 압박'과 '학습 부담'이 각각 24.9%와 23.3%로 1, 2순위를 차지했다.
  -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성적 압박'(29.1%)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 비율은 초중생보다 높은 편이다. 이것은 대학입시라는 큰 관문을 앞에 두고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성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그 어떤 요소보다도 행복감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성별 응답결과의 차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남녀학생 모두 성적 압박과 학습부담의 두 요인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 여학생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행복감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남학생이 10.6%인데 비해 여학생은 그 두 배가 넘는 22.5%의 응답률을 보였다.
  - 반면, 남학생의 경우엔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여학생들(17.4%)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4-25〉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초	중	고	남	여
사례수	7,072	1,797	2,644	2,631	3,787	3,284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24.3	16.3	24.9	29.1	24.6	24.0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	21.0	22.0	23.3	18.0	24.2	17.4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16.6	16.9	14.3	18.8	19.7	13.1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6.1	14.1	18.1	15.5	10.6	22.5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2.7	19.9	12.6	7.9	12.3	13.2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6.7	7.4	4.9	7.9	6.1	7.3
기타	1.1	1.5	0.8	1.4	1.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 2013년도 신규 문항

#### 4)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① 행복의 요건

- 어린이·청소년들이 행복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0%가 ‘화목한 가족’이라고 응답했고, ‘자유’(16.5%)와 ‘성적 향상’(14.6%)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한편, 돈이 행복의 필요 요건이라는 응답도 14.0%를 차지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경제적 요소라는 현실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교급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42.4%와 23.5%가 ‘화목한 가족’을 행복의 필요 요건으로 꼽았으며, 이 두 집단과 달리 고등학생들은 ‘돈’(18.9%), ‘성적 향상’(18.6%), ‘화목한 가족’(17.2%), ‘자유’(16.3%) 등을 선택함으로써 초중생에 비해 행복의 요건이 보다 다양하게 분산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성 친구’를 행복 요건으로 꼽은 비율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의 하나이다.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화목한 가족’의 응답률이 각각 21.9%와 30.6%로 1순위를 차지했고, 여학생의 경우 ‘동성 친구’를 행복 필요 요건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의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응답률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행복 집단에서는 ‘화목한 가족’이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에는 ‘자유’(23.4%)와 ‘돈’(22.7%)의 중요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다.

〈표 4-26〉 행복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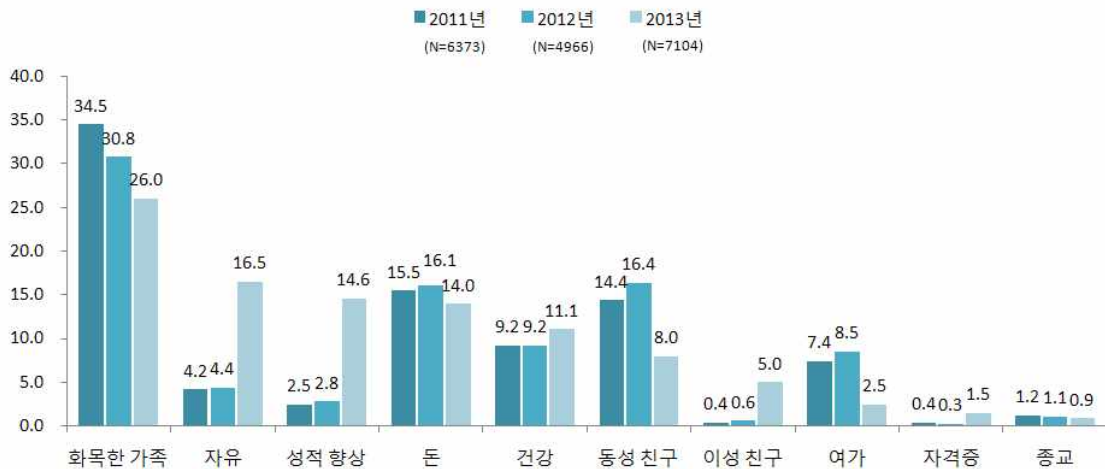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사례수	7,104	1,807	2,656	2,641	3,805	3,299	5,642	980
화목한 가족	26.0	42.4	23.5	17.2	21.9	30.6	28.9	12.1
자유	16.5	13.4	18.8	16.3	16.7	16.2	15.0	23.4
성적 향상	14.6	7.1	15.6	18.6	14.5	14.6	14.2	16.1
돈	14.0	7.8	13.5	18.9	15.9	11.9	12.0	22.7
건강	11.1	16.7	9.6	8.6	12.3	9.7	12.3	4.6
동성 친구	8.0	5.4	10.5	7.3	6.8	9.4	8.2	8.2
이성 친구	5.0	2.5	5.0	6.8	6.8	3.0	4.8	6.7
자격증	1.5	2.1	0.8	1.8	2.0	0.9	1.5	1.7
종교	0.9	0.9	0.8	0.9	0.8	0.9	1.0	0.2
기타	2.5	1.8	1.7	3.5	2.1	2.7	2.0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 행복하기 위해 '화목한 가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011년 34.5%에서 2013년 26.0%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8.5%포인트 감소), '자유'를 꼽은 비율은 2011년 대비 12.3% 포인트 증가했다.
  - 행복의 요건으로 '돈'을 선택한 비율은 2012년 16.1%에서 2013년 14.0%로 2.1% 포인트 감소했다.
  - 한편, 동성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전년 대비 8.4%포인트 줄어든 반면, 이성친구를 행복 요건으로 꼽은 비율이 전년 대비 4.4%포인트 늘어난 것도 흥미롭다.

〈그림 4-10〉 2011년~2013년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단위 : %)



- 행복의 요건에 대한 학교급별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행복 요건은 '화목한 가족'이다(2011년 대비 ▽3.8%포인트). 반대로 '건강'(2011년 대비 ▲2.4%포인트)과 '돈'(2011년 대비 ▲1.9%포인트)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중학생의 경우 2011년 대비 '자유'(18.8%포인트 증가)와 '성적 향상'(15.6%포인트 증가)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고등학생의 경우도 2011년 대비 '성적 향상'(18.6%포인트 증가)과 '자유'(16.3%포인트 증가)의 응답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표 4-27〉 2011년~2013년 행복의 요건 변화추이 \_ 학교급별

(단위 : %)

구분	초				중				고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1년 대비 증감
사례수	2014	1582	1807		2184	1756	2656		2174	1627	2641	
화목한 가족	46.2	43.7	42.4	-3.8	33.1	29.0	23.5	-9.6	25.0	20.3	17.2	-7.8
자유	13.4	13.7	13.4	0.0	0.0	0.0	18.8	18.8	0.0	0.0	16.3	16.3
성적 향상	7.9	8.9	7.1	-0.8	0.0	0.0	15.6	15.6	0.0	0.0	18.6	18.6
돈	5.9	5.4	7.8	1.9	16.0	17.7	13.5	-2.5	23.9	24.8	18.9	-5.0
건강	14.3	13.3	16.7	2.4	7.5	8.4	9.6	2.1	6.3	6.2	8.6	2.3
동성 친구	6.6	8.8	5.4	-1.2	18.9	20.8	10.5	-8.4	17.0	19.0	7.3	-9.7
이성 친구	1.4	1.8	2.5	1.1	0.0	0.0	5.0	5.0	0.0	0.0	6.8	6.8
자격증	1.1	1.1	2.1	1.0	0.0	0.0	0.8	0.8	0.0	0.0	1.8	1.8
종교	0.0	0.0	0.9	0.9	1.6	1.1	0.8	-0.8	1.9	2.1	0.9	-1.0
여가	0.0	0.0	0.0	0.0	10.4	11.3	1.7	-8.7	11.1	13.8	3.5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미래 전망

#### 1) 기대학력

##### ① 기대학력

- 자신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6%가 4년제 대학을 선택했고, 대학원 이상의 최종학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17.4%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전체 72.0%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4년제 대학졸업 기대비율이 높아지며, 초등학생의 63.3%, 중학생의 73.6%, 고등학생의 76.0%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최종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기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집단의 고학력 기대비율이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고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성적 수준별 차이도 뚜렷해서, 성적 상위집단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기대비율이 약 86.7%인데 비해 성적 하위집단의 경우엔 약 58.8%로 나타났다. 성적과 고학력의 상호 친화력을 생각할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기대수준이 낮은 것이 일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적과 무관하게 고학력을 '기대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4-28〉 최종 기대학력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급			성별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지수			성적		
		초	중	고	남	여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7070	1796	2649	2625	3805	3299	5642	980	1558	3409	2128	1588	2826	1993
초졸	1.6	3.8	1.5	0.2	1.5	1.3	1.6	0.5	0.8	1.4	2.0	1.2	2.0	0.6
중졸	1.3	2.0	1.0	1.0	1.8	1.0	1.2	2.3	1.4	1.3	1.7	0.6	1.3	2.3
고졸	10.3	10.5	10.5	10.0	12.1	9.1	9.4	14.8	13.0	10.6	9.2	3.4	8.0	19.2
2년제 대졸	14.8	20.5	13.2	12.6	14.6	14.9	14.3	16.7	17.1	14.3	13.8	8.1	15.1	19.1
4년제 대졸	54.6	37.2	59.4	61.7	52.0	57.0	54.9	53.9	53.6	58.3	48.4	54.7	56.9	50.7
대학원 이상	17.4	26.1	14.2	14.6	17.9	16.6	18.7	11.8	14.1	14.0	24.9	32.0	16.8	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년제 대졸 + 대학원 이상	72.0	63.3	73.6	76.3	69.9	73.6	73.6	65.7	67.7	72.3	73.3	86.7	73.7	58.8

② 기대학력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종 기대학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졸업 기대비율이 2011년 대비 약 4%포인트 증가했고, 대학원 이상을 기대하는 비율은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제 대학졸업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기대비율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72.0%를 차지했다.
- 학교급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기대비율이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중생과는 달리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이 2011년에 비해 약 1.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29〉 2011년~2013년 최종 기대학력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6347	4905	7070	1993	1548	1796	2174	1737	2649	2180	1620	2625
초졸	2.1	2.4	1.6	4.5	4.8	3.8	1.9	2.6	1.5	0.1	-	0.2
중졸	2.2	2.5	1.3	3.0	3.7	2.0	2.5	2.4	1.0	1.3	1.5	1.0
고졸	7.7	10.0	10.3	7.8	9.3	10.5	7.6	11	10.5	7.7	9.5	10.0
2년제 대졸	16.0	15.1	14.8	19.9	18.3	20.5	12.1	12.6	13.2	16.4	14.7	12.6
4년제 대졸	50.7	49.9	54.6	34.8	32.4	37.2	55.4	54.9	59.4	60.5	61.1	61.7
대학원 이상	21.3	20.1	17.4	30.0	31.5	26.1	20.6	16.4	14.2	14.0	13.1	1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년제 대졸 + 대학원 이상	72.0	70.0	72.0	64.8	63.9	63.3	76.0	71.3	73.6	74.5	74.2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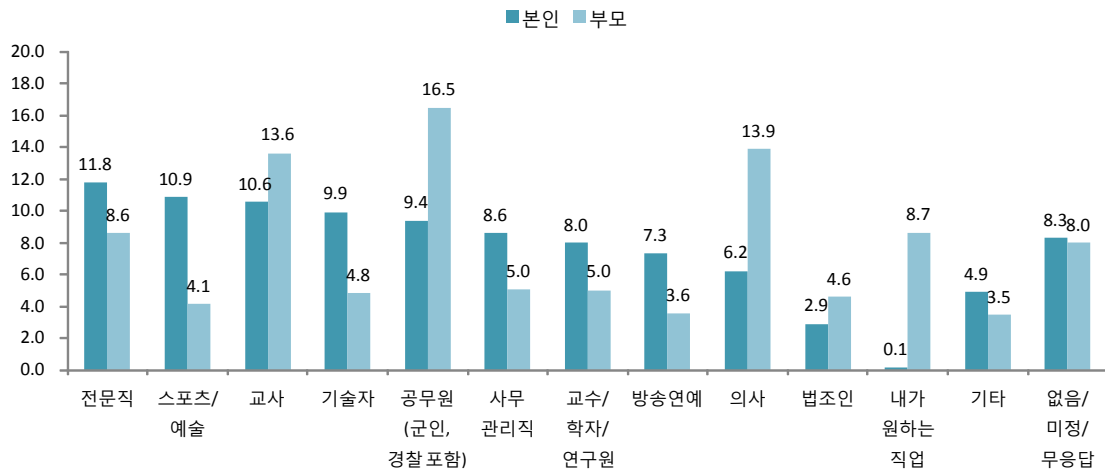
## 2) 장래 희망직업

### ① 장래 희망직업 : 부모 vs. 자녀

- 미래 희망직업을 부모의 기대, 본인의 기대로 구분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부모-자녀 간 기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 본인의 희망직업 우선 순위는 전문직(11.8%) > 스포츠/예술(10.9%) > 교사(10.6%) > 기술자(9.9%) > 공무원(9.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모들의 희망직업 우선 순위는 공무원(16.5%) > 의사(13.9%) > 교사(13.6%) > 전문직(8.6%)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준다.
- 초중고생들의 경우 전문·기술직, 스포츠/예술 등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의 직업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 의사, 교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 한편, 초중고생 가운데 장래 희망직업이 없거나, 아직 미정이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8.0%로 나타났다.

〈그림 4-11〉 장래 희망직업

(N=7,10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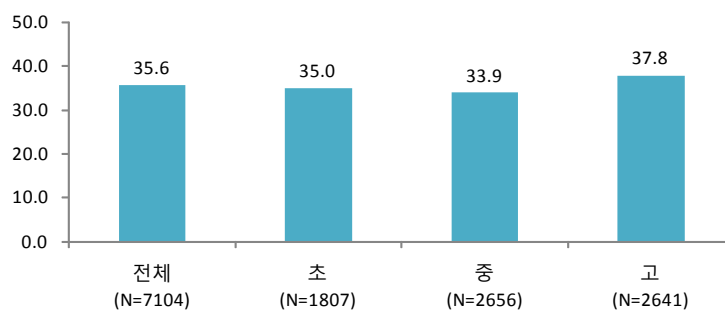


## ②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견일치수준

- 2013년도 설문조사 결과,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사가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35.6%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35.0%, 중학생의 33.9%, 고등학생의 37.8% 정도가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부모자녀간 의견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부모자녀간 희망직업 일치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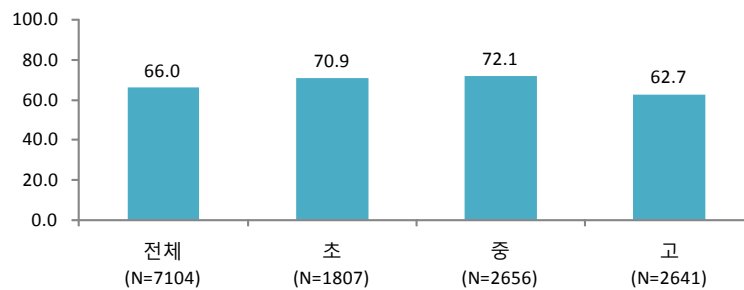


### 3) 멘토 및 역할모델 17)

- 2013년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이나 멘토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역할모델이나 멘토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 66.0%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각각 70.9%와 72.1%가 역할모델이나 멘토가 없다고 답했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2.7%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가 사춘기를 지나 입시와 진로탐색을 시작하는 때이므로 조금씩 자신이 닮고 싶은 역할모델이나 멘토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3〉 역할모델과 멘토 '없음' 비율

(단위 : %)



17) 2013년도 신규 문항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제5장 학교폭력 및 일탈행동

담당연구자

박 현 수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원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 1. 학교폭력 인식 수준

###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48.1%, 보통이라는 30.2%, 심각하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즉, 다섯명 중 1명 꼴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0.6%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22.9%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6.9%이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3.3%,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6.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사례수	7,091	3,799	3,292	1,799	2,651	2,641
심각하지 않다	48.1	50.0	45.9	47.8	42.9	53.6
보통이다	30.2	29.4	31.2	25.3	33.9	30.0
심각하다	21.7	20.6	22.9	26.9	23.3	16.5

- 학년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정점으로 학년이 높아지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_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	620	589	590	932	822	897	865	888	888
심각하지 않다	54.7	50.8	37.4	42.9	42.3	43.4	52.4	49.8	58.5
보통이다	20.8	24.2	31.2	31.5	35.8	34.5	28.9	33.7	27.2
심각하다	24.4	25.0	31.4	25.6	21.9	22.1	18.7	16.5	14.3

## 2)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27.8%), 신체폭력(6.2%), 금품갈취(6.1%), 사이버폭력(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따돌림' 등 정신적/심리적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학교급별로는 언어폭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따돌림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 고등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폭행과 금품갈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언어폭력은 감소(59.5% → 54.2%)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따돌림은 증가(20.8% → 27.8%)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4656	6437	2330	3393	2326	3044	1364	1462	1710	2497	1583	2478
언어폭력	59.5	54.2	60.8	58.6	58.2	49.3	58.6	52.2	54.8	51.0	65.4	58.6
따돌림	20.8	27.8	14.2	18.7	27.5	37.8	23.5	30.5	23.2	31.3	16.0	22.6
신체폭행	5.6	6.2	9.2	9.9	1.9	2.1	4.7	5.0	6.3	6.0	5.5	7.0
금품갈취	7.5	6.1	8.1	7.5	7.0	4.6	3.7	3.4	10.2	6.2	7.9	7.5
사이버폭력	4.1	4.4	4.3	3.8	3.9	5.0	9.5	6.3	1.9	4.8	1.9	2.8
기타	2.4	1.4	3.3	1.7	1.6	1.2	-	2.6	3.6	0.7	3.3	1.5

- 학년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폭행은 4학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언어폭력은 5학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따돌림의 경우에는 6학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학생의 경우 학년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신체폭행이, 2학년의 경우에는 따돌림이, 3학년의 경우에는 금품갈취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은 금품갈취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3학년의 경우에는 언어폭력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_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406	480	477	565	561	583	515	531	537
	언어폭력	57.0	58.7	59.8	53.5	54.9	56.0	61.7	63.2	71.1
	따돌림	22.3	21.7	26.4	28.5	21.6	19.7	14.0	21.3	12.6
	신체폭행	5.6	4.2	4.5	4.7	7.9	6.3	6.5	4.8	5.3
	금품갈취	4.3	3.7	3.3	6.5	9.8	14.3	11.4	6.1	6.4
	사이버폭력	10.8	11.7	6.0	1.9	2.3	1.4	3.3	0.8	1.7
	기타	0.0	0.0	0.0	5.0	3.6	2.3	3.1	3.8	2.9
2013년	사례수	456	470	536	863	772	862	814	834	830
	언어폭력	50.7	59.8	46.8	51.2	50.6	51.2	54.7	59.2	61.7
	따돌림	27.9	25.3	37.2	31.8	32.3	29.9	23.2	23.1	21.6
	신체폭행	7.6	2.7	4.9	7.1	5.7	5.3	7.4	7.2	6.3
	금품갈취	3.4	3.6	3.4	3.2	6.4	9.1	8.5	8.0	6.1
	사이버폭력	6.2	5.8	6.7	6.0	4.4	3.8	4.9	1.4	2.2
	기타	4.1	2.8	1.1	0.7	0.6	0.7	1.3	1.1	2.0

## 2. 학교폭력 피해 실태

### 1)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3%로 나타나고 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1%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9.6%로 여학생인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다소 높았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5.1%이고, 중학생은 9.5%, 그리고 고등학생은 5.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11.8% → 9.3%)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이나 학교급을 비교하여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5〉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5,000	7,024	2,523	3,753	2,477	3,271	1,601	1,767	1,767	2,635	1,632	2,623
있다	11.8	9.3	13.0	9.1	10.7	9.6	17.6	15.1	12.5	9.5	5.4	5.2
없다	88.2	90.7	87.0	90.9	89.3	90.4	82.4	84.9	87.5	90.5	94.6	94.8

- 학년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의 경우에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6학년(15.8%), 4학년(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이 11.6%이고, 그 다음으로 2학년(9.4%), 3학년(7.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1학년은 7.0%, 2학년은 5.6%, 그리고 3학년은 3.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6〉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_ 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508	555	538	589	580	599	535	540	557
	있다	24.8	17.1	11.3	12.6	13.8	11.3	5.9	5.7	4.7
	없다	75.2	82.9	88.7	87.4	86.2	88.7	94.1	94.3	95.3
2013년	사례수	603	580	583	920	816	898	859	879	885
	있다	16.9	12.5	15.8	11.6	9.4	7.4	7.0	5.6	3.1
	없다	83.1	87.5	84.2	88.4	90.6	92.6	93.0	94.4	96.9

## 2)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은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3번(30.7%), 4~5번(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이 33.6%로 여학생(52.4%)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4~5번과 6~10번이라는 응답은 각각 15.9%와 9.8%로 여학생(각각 5.7%와 5.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평균 횟수가 남학생인 경우에 4.56번로 여학생(3.09번)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남학생인 경우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횟수가 1번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인 경우에 34.4%, 중학생은 45.0%,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3.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 평균 횟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4.19번, 중학생은 3.92번, 그리고 고등학생은 3.11번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반복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4.61번 → 3.86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4.09번 → 3.09번),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인 경우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5.22번 → 3.11번).

〈표 5-7〉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성		여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564	531	310	282	255	249	268	215	214	208	82	108
1번	33.9	42.4	30.4	33.6	38.0	52.4	30.5	34.4	37.3	45.0	35.9	53.5
2-3번	30.2	30.7	31.1	31.1	29.1	30.3	31.5	35.9	29.8	30.2	26.9	21.4
4-5번	14.2	11.1	14.0	15.9	14.4	5.7	15.9	12.4	12.0	8.9	14.3	13.1
6-10번	11.1	7.6	12.4	9.8	9.5	5.1	11.2	8.3	11.9	6.9	8.9	7.6
11번 이상	10.6	8.1	12.0	9.6	9.0	6.5	10.9	9.0	8.9	9.1	14.0	4.4
평균	4.61	3.86	5.03	4.56	4.09	3.09	4.69	4.19	4.27	3.92	5.22	3.11

18)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하여 이상점(outlier)로 인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0번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모두 20번으로 재부호화하였다.



- 학년별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표5-8>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4학년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가 평균 3.20번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고,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 4.81번으로 4학년에 비해 피해 경험 횟수가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의 평균이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8>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_학년별

(단위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124	85	59	73	77	64	30	28	24
	1번	17.7	16.8	15.8	14.9	22.1	20.8	17.1	14.1	15.0
	2-3번	20.0	17.2	13.9	16.3	11.3	17.9	7.3	16.0	13.1
	4-5번	10.5	10.7	4.1	5.3	8.2	4.8	6.4	3.7	9.5
	6-10번	5.0	10.2	3.9	3.7	8.9	5.9	1.8	4.4	6.7
	11번 이상	6.7	5.1	6.1	3.4	5.0	5.6	5.7	4.5	9.0
	평균 횟수	<b>4.65</b>	<b>4.65</b>	<b>4.83</b>	<b>3.77</b>	<b>4.57</b>	<b>4.48</b>	<b>5.09</b>	<b>4.55</b>	<b>6.18</b>
2013년	사례수	83	57	76	94	62	52	49	38	21
	1번	16.2	11.2	18.3	29.6	16.6	18.1	28.3	33.0	29.9
	2-3번	14.0	15.2	20.0	14.2	14.0	16.9	14.7	10.1	10.5
	4-5번	5.3	5.8	5.6	4.2	4.8	4.1	14.1	4.4	0.0
	6-10번	3.0	2.9	5.7	3.8	3.2	3.0	2.2	8.0	2.7
	11번 이상	1.7	4.9	6.7	4.5	5.8	2.8	2.4	1.8	3.7
	평균 횟수	<b>3.20</b>	<b>4.81</b>	<b>4.81</b>	<b>3.59</b>	<b>4.82</b>	<b>3.44</b>	<b>2.79</b>	<b>3.40</b>	<b>3.36</b>

### 3) 학교폭력 피해 유형

- 최근 1년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학교 폭력은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보다, 따돌림, 언어폭력(욕, 인신공격 등) 등 정신적, 심리적 폭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폭력 경향은 성별, 학교급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언어폭력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29.3%), 신체폭행(17.7%), 금품갈취(10.6%), 사이버 언어폭력(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언어폭력(30.2%), 사이버 언어폭력(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모두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이 폭력의 주된 피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은 크게 감소(41.9% → 31.6%)하였으나 따돌림은 크게 증가(19.8% → 36.5%)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582	649	321	339	261	310	275	265	219	247	87	136
따돌림	19.8	36.5	13.8	29.3	27.1	44.8	24.0	40.5	17.0	33.9	13.7	34.2
언어폭력(욕/인신공격)	41.9	31.6	40.5	32.9	43.5	30.2	41.6	33.0	41.5	30.2	43.7	31.9
신체폭행	17.0	11.8	23.8	17.7	8.5	5.0	16.2	7.9	16.9	14.9	19.5	12.9
인터넷, 휴대폰 이용한 욕설, 협박	5.6	9.6	4.2	5.7	7.4	14.0	3.1	8.1	8.1	11.8	7.2	8.3
금품갈취	11.1	7.5	13.1	10.6	8.7	3.9	10.0	7.0	13.9	7.0	7.8	9.0
성폭력	3.8	1.7	4.0	2.3	3.6	1.0	5.2	1.7	1.9	1.7	4.2	1.6
기타	0.8	1.4	0.6	1.6	1.1	1.1	0.0	1.8	0.7	0.6	3.8	2.1

#### 4) 학교폭력 피해 장소

-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장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복도(16.6%), 등/하교길(13.0%), 운동장이나 사람 없는 곳(9.8%), 화장실(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학교폭력 피해 장소에 따른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피해 장소의 순서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 교실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사람 없는 곳과 놀이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 결과에서도 교실, 복도, 등/하교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3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0〉 최근 1년간 당한 학교폭력 피해 장소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578	539	317	289	261	250	271	216	221	213	87	110
교실	36.4	39.3	34.4	36.1	38.7	42.7	31.0	32.8	38.7	43.9	45.7	42.2
복도	15.6	16.6	15.9	18.4	15.2	14.7	13.9	14.4	17.3	18.6	16.2	16.5
등하교길	13.7	13.0	14.6	14.6	12.7	11.3	17.0	15.7	11.0	10.3	11.1	13.4
운동장/사람없는곳	11.6	9.8	14.2	11.8	8.5	7.7	17.0	14.9	7.6	8.3	6.0	3.8
화장실	7.5	5.4	7.7	6.2	7.3	4.5	5.2	4.2	8.1	4.6	12.4	8.7
가상공간(인터넷/SNS)	-	3.8	-	1.3	-	6.4	-	2.2	-	6.2	-	2.1
집 주변 동네	-	3.6	-	2.8	-	4.4	-	3.1	-	2.6	-	6.3
공원	2.7	1.9	2.6	2.3	2.8	1.5	3.0	2.8	2.9	1.8	1.3	0.4
놀이터	-	1.5	-	1.2	-	1.9	-	3.4	-	0.7	-	-
학원	-	1.0	-	0.9	-	1.0	-	2.0	-	0.5	-	-
급식실	-	0.8	-	0.7	-	1.0	-	1.0	-	0.3	-	1.5
어디에서나	-	0.3	-	0.5	-	-	-	0.7	-	-	-	-
기타	12.6	3.1	10.6	3.1	14.8	3.0	12.9	2.8	14.4	2.1	7.3	5.1

## 5) 학교폭력 피해 당시 도움요청 실태

### ① 학교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방법

-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부모님께 알렸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 알렸다’(25.6%), ‘친구들에게 알렸다’(17.5%),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거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대응이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22.9%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과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 친구들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11.3%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무려 2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교급별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께 알리거나 학교에 알리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거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013년에 크게 감소(35.2% → 15.8%)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요청 대상으로는 부모님께 알렸다는 응답(25.8% → 32.8%)과 학교에 알렸다는 응답(17.9% → 25.6%)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표 5-11〉 학교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방법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589	538	325	284	264	254	280	219	221	211	88	108
도움 요청한적 없다	35.2	15.8	42.3	22.9	28.0	9.1	29.8	13.4	38.6	17.1	43.5	18.1
부모님께 알렸다	25.8	32.8	24.2	32.8	27.4	32.7	34.1	36.0	20.0	31.3	14.0	28.7
학교에 알렸다	17.9	25.6	15.9	24.6	20.0	26.5	16.5	25.9	19.1	27.2	19.7	21.3
친구들에게 알렸다	15.0	17.5	10.2	11.3	19.8	23.3	15.0	17.7	14.5	16.3	15.9	19.5
학교폭력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실	2.0	4.1	1.9	3.5	2.0	4.6	1.3	3.0	2.7	4.5	2.4	5.4
경찰서에 신고	1.7	2.4	2.3	2.4	1.2	2.4	.6	2.6	3.1	1.6	1.9	3.7
기타	2.4	1.9	3.2	2.6	1.6	1.3	2.7	1.3	1.9	2.0	2.5	3.3

-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부모님께 알렸다는 응답비율은 학교급별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2〉 학교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방법\_학년별

(단위 : %)

구분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124	95	61	73	80	67	31	31	26
	도움을 요청한적 없다	21.9	39.7	32.2	42.6	39.7	33.3	39.1	32.5	67.3
	부모님께 알렸다	38.7	31.7	27.9	20.7	21.3	17.9	17.4	18.2	2.6
	학교에 알렸다	17.4	14.7	17.2	17.6	16.7	23.3	21.0	24.0	11.0
	친구들에게 알렸다	16.5	10.7	18.0	12.8	14.9	15.9	10.5	19.5	18.6
	학교폭력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실	2.1	0.9	0.0	3.5	1.5	3.1	2.6	3.8	0.0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0.7	0.0	1.3	1.6	4.9	2.7	4.4	0.7	0.0
	기타	2.8	2.3	3.4	1.2	1.0	3.8	5.1	1.2	.5
2013년	사례수	83	58	78	90	65	56	49	37	22
	도움을 요청한적 없다	9.8	19.2	13.1	12.5	20.5	21.4	9.2	26.7	23.7
	부모님께 알렸다	43.7	31.6	31.9	32.5	32.3	28.0	34.4	25.8	21.1
	학교에 알렸다	24.1	25.9	27.4	26.4	28.6	26.8	22.2	13.9	30.7
	친구들에게 알렸다	18.7	15.7	18.2	17.1	14.2	17.6	24.1	14.7	17.3
	학교폭력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실	2.0	1.8	4.7	5.5	3.5	3.8	3.8	8.1	4.9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0.9	2.7	4.1	2.9	0.9	0.0	2.8	5.8	2.3
	기타	1.0	3.2	0.4	3.1	0.0	2.4	3.5	5.2	0.0

②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되는 사람/기관 19)

-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21.7%), 경찰서에 신고(18.3%),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학교', '경찰서 신고'라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발생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으로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친구들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3〉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기관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사례수	7,064	3,780	3,284	1,792	2,644	2,628
부모님	38.0	35.0	41.5	46.7	39.4	30.7
학교	21.7	24.0	19.0	21.5	22.2	21.2
경찰서에 신고	18.3	21.7	14.3	15.7	15.7	22.6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신고	13.9	11.5	16.8	12.9	14.6	14.0
친구들	6.5	5.9	7.2	1.9	6.6	9.6
기타	1.6	1.9	1.2	1.3	1.5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2013년도 신규 문항

### 3. 학교폭력 가해 실태

#### 1)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6.0%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4.6%로 남학생의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6.7%), 고등학생(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감소(6.7% → 5.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학교급별로도 모두 감소하였다.

〈표 5-14〉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4974	6997	2507	3745	2467	3251	1586	1770	1762	2615	1626	2612
있다	6.7	5.4	7.7	6.0	5.7	4.6	9.7	6.9	7.3	6.7	3.3	3.0
없다	93.3	94.6	92.3	94.0	94.3	95.4	90.3	93.1	92.7	93.3	96.7	97.0

- 학년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6.4%로 나타나고 있다. 5학년의 경우에는 4.0%로 4학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6학년의 경우에는 10.5%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8.9%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1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5〉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_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500	550	536	585	579	598	533	540	553
	있다	13.3	8.5	7.5	9.1	7.8	5.0	3.3	3.8	2.7
	없다	86.7	91.5	92.5	90.9	92.2	95.0	96.7	96.2	97.3
2013년	사례수	607	584	579	918	805	892	857	877	878
	있다	6.4	4.0	10.5	8.9	6.6	4.4	5.8	2.2	1.1
	없다	93.6	96.0	89.5	91.1	93.4	95.6	94.2	97.8	98.9



## 2) 최근 1년간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①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 최근 1년간 내가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가 평균 2.69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96번이고, 여학생은 2.20번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가 더 많았다.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05번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2.73번), 초등학교(2.34번)의 순이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2012년 3.58번에서 2013년에 2.69번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학교급별로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단위 : %)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사례수	325	313	188	203	137	110	151	93	123	149	51	70
1번	40.2	47.5	38.6	46.8	42.5	48.6	35.2	51.3	43.2	44.8	48.1	48.0
2-3번	36.4	32.8	36.5	33.6	36.1	31.3	38.2	35.5	38.5	37.9	25.8	18.3
4-5번	9.0	10.3	9.4	7.3	8.5	15.9	12.2	3.6	6.1	8.7	6.9	22.6
6-10번	8.1	8.0	8.4	10.1	7.8	4.2	5.9	9.1	7.9	6.6	15.1	9.6
11번 이상	6.2	1.4	7.1	2.2	5.1	0.0	8.6	0.6	4.3	1.9	4.1	1.5
평균	<b>3.58</b>	<b>2.69</b>	<b>3.74</b>	<b>2.96</b>	<b>3.36</b>	<b>2.20</b>	<b>3.95</b>	<b>2.34</b>	<b>3.10</b>	<b>2.73</b>	<b>3.65</b>	<b>3.05</b>

- 학년별 최근 1년간 내가 행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6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평균이 2.61번으로 4학년(2.27번)과 5학년(1.79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1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횟수\_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66	45	40	50	43	30	17	21	13
	1번	33.4	28.3	45.7	37.4	47.9	46.1	41.9	58.9	38.8
	2-3번	37.4	38.2	39.4	43.0	34.4	37.0	32.6	27.9	14.2
	4-5번	13.7	19.1	2.0	4.9	8.5	4.4	6.1	8.2	5.8
	6-10번	5.2	4.4	8.8	10.4	7.1	5.0	11.4	5.0	35.4
	11번 이상	10.3	10.0	4.1	4.3	2.1	7.4	8.0	0.0	5.8
	평균 횟수	<b>4.29</b>	<b>4.21</b>	<b>3.09</b>	<b>3.35</b>	<b>2.71</b>	<b>3.25</b>	<b>3.91</b>	<b>2.14</b>	<b>5.69</b>
2013년	사례수	29	18	46	74	44	32	46	19	6
	1번	54.1	53.6	48.6	41.7	48.6	47.0	46.2	52.6	46.8
	2-3번	36.3	39.7	33.3	36.9	40.6	36.7	16.0	20.7	28.3
	4-5번	2.6	0.0	5.6	15.2	2.1	2.8	32.9	4.7	0.0
	6-10번	5.1	6.7	12.5	4.9	4.4	13.5	2.6	21.9	24.9
	11번 이상	1.8	0.0	0.0	1.3	4.4	0.0	2.3	0.0	0.0
	평균 횟수	<b>2.27</b>	<b>1.79</b>	<b>2.61</b>	<b>2.66</b>	<b>2.76</b>	<b>2.87</b>	<b>2.77</b>	<b>3.58</b>	<b>3.52</b>

② 친한 친구 중 가해 경험자 수

-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를 살펴보면<sup>20)</sup>, 전반적으로는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가 없다는 응답이 89.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3명(4.0%), 1명(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본인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를 살펴보면, 본인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의 평균이 2.92명이었다. 이에 비해 본인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2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0.42명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0.39명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평균이 0.51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0.45명), 고등학생(0.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8〉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단위 : %)

구분	전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성별		학교급		
		있다	없다	남	여	초	중	고
사례수	6,502	360	6,142	3,489	3,100	1,712	2,431	2,447
없음	89.2	38.2	92.2	87.4	91.1	85.6	87.4	93.2
1명	3.7	15.2	3.0	4.7	2.7	5.8	3.9	2.3
2-3명	4.0	21.0	3.0	4.8	3.1	5.3	4.9	2.2
4-5명	1.4	10.1	0.9	1.4	1.4	1.6	1.7	1.0
6-10명	0.9	8.3	0.4	1.0	0.7	1.2	1.0	0.5
11명 이상	0.8	7.3	0.5	0.6	1.1	0.6	1.1	0.8
평균	<b>0.40</b>	<b>2.92</b>	<b>0.26</b>	<b>0.42</b>	<b>0.39</b>	<b>0.45</b>	<b>0.51</b>	<b>0.28</b>

20)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에 대하여 이상점(outlier)로 인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0명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20명으로 재부호화하였다.

- 학년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의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9〉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_ 학년별

(단위 : %)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	590	552	569	862	759	809	803	829	815
없음	86.7	87.8	82.3	83.2	87.4	91.9	89.9	92.7	97.1
1명	5.3	5.1	6.9	4.7	4.1	2.9	2.4	2.8	1.6
2-3명	5.5	4.2	6.1	6.6	4.9	3.1	4.1	2.2	0.5
4-5명	1.2	1.5	2.1	2.3	1.7	1.0	1.3	1.2	0.4
6-10명	0.8	0.8	1.9	1.6	0.7	0.6	0.7	0.6	0.3
11명 이상	0.4	0.6	0.7	1.6	1.2	0.5	1.7	0.5	0.2
평균	0.40	0.39	0.56	0.71	0.51	0.29	0.47	0.27	0.10

#### 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특성

##### 1)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그리고 무경험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피해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은 없고, 피해경험만 있는 경우이다. 반면, 가해형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없고,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이다. 양자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이고, 무경험형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없는 경우이다.
- 무경험형이 8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형(6.5%), 양자형(2.7%), 그리고 가해형(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가해형이 3.6%로 여학생의 경우(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양자형은 여학생이 3.1%로 남학생(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피해형과 양자형이 각각 10.6%와 4.4%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형이 4.0%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경험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있는 유형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이 감소하여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학교폭력 경험별 유형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4974	6966	2507	3723	2467	3243	1586	1751	1762	2607	1626	2608
피해형	8.0	6.5	8.6	6.6	7.3	6.4	10.6	10.6	9.0	6.8	4.3	3.5
가해형	2.9	2.6	3.3	3.6	2.4	1.5	2.6	2.5	3.7	4.0	2.1	1.3
양자형	3.9	2.7	4.4	2.4	3.4	3.1	7.1	4.4	3.5	2.6	1.1	1.7
무경험형	85.3	88.1	83.7	87.4	86.9	89.0	79.7	82.5	83.7	86.5	92.4	93.5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5학년은 무경험형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아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있는 유형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5학년을 제외하고 보면, 가해형과 양자형의 경우에는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형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무경험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있는 유형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무경험형의 비율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이 있는 유형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1〉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특성

(단위 : %)

구분		초			중			고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2년	사례수	500	550	536	585	579	598	533	540	553
	피해형	13.9	10.9	7.1	8.6	9.6	8.8	4.7	4.8	3.4
	가해형	2.3	2.3	3.2	5.1	3.6	2.5	2.1	3.0	1.3
	양자형	11.0	6.1	4.3	4.0	4.2	2.5	1.2	0.8	1.4
	무경험형	72.8	80.6	85.4	82.4	82.6	86.2	92.0	91.3	94.0
2013년	사례수	600	578	573	912	804	891	855	875	877
	피해형	12.7	9.7	9.3	8.3	6.8	5.4	3.3	4.7	2.6
	가해형	1.9	1.4	4.1	5.6	4.0	2.4	1.9	1.3	0.6
	양자형	4.2	2.7	6.4	3.3	2.6	2.0	3.7	0.9	0.5
	무경험형	81.1	86.2	80.2	82.9	86.6	90.2	91.1	93.1	96.3

- 가정 경제형편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해 각 집단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살펴보았다.
  - 우선 초등학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는 가해형이 2.7%로 다른 범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는 피해형과 양자형이 각각 20.3%와 11.6%로 다른 범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중학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이 '하'인 경우에는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이 다른 범주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모두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2〉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특성 \_가정경제수준별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사례수	6,907	612	1,056	56	449	1,984	159	225	1,989	378
피해형	6.6	9.5	10.9	20.3	7.2	6.1	16.3	4.8	3.3	3.7
가해형	2.6	2.7	2.5	0.0	4.7	3.8	5.1	3.0	1.1	1.2
양자형	2.7	4.7	3.7	11.6	2.4	2.4	6.3	2.3	1.8	0.8
무경험형	88.1	83.2	82.9	68.1	85.7	87.7	72.4	89.8	93.8	94.3

## 2)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의 수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1)</sup> 학교폭력 경험이 가해형인 경우에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21.7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무경험형인 경우에는 16.37명, 피해형은 15.50명, 양자형은 13.71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험 중에서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에 친한 친구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양자형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의 수

(단위 : %)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사례수	7,023	451	180	191	6,067
없음	1.0	1.9	1.2	1.0	1.0
1-3명	10.7	15.6	9.5	22.3	9.9
4-10명	49.4	46.8	33.3	39.4	50.4
11-20명	21.6	19.1	31.1	20.8	21.5
21-40명	8.8	8.6	11.2	10.4	8.7
41명 이상	8.5	8.0	13.6	6.1	8.5
평균	16.35	15.50	21.79	13.71	16.37

21) 친한 친구의 수에 대하여 이상점(outlier)로 인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00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100명으로 재부호화하였다.



###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가해 경험자수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는 양자형 경우에 3.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해형(2.66명), 피해형(0.97명), 무경험형(0.20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결과와 비교하면, 양자형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의 수는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친한 친구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친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학교폭력 경험 유형이 양자형인 경우에 친한 친구들 중에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 내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수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사례수	6,589	414	173	183	5,703
없음	89.1	73.9	37.6	39.2	93.6
1명	3.8	7.4	15.1	15.1	2.7
2-3명	4.0	10.7	23.2	18.5	2.4
4-5명	1.4	3.9	11.9	8.6	0.6
6-10명	0.9	3.1	8.4	8.4	0.2
11명 이상	0.8	1.1	3.9	10.2	0.4
평균	0.41	0.97	2.66	3.14	0.20

#### 4)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이 양자형인 경우에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친구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와 같이 친구들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양자형인 경우에 친구들 내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2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친구와의 관계

(단위 : 5점 척도 평균)

구분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사례수	6,966	456	181	191	6,138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1.86	2.02	1.85	2.15	1.84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1.45	1.68	1.37	1.76	1.43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1.51	1.75	1.48	1.84	1.49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2.25	2.54	2.30	2.70	2.21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1.89	2.17	1.90	2.33	1.85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3.20	3.14	3.15	2.92	3.22

5)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가해형의 경우에 최근 1년간 3.28번의 학교폭력 가해 횟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양자형의 경우에는 5.30번으로 가해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높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친구들 내에서 다른 친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2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

(단위 : %)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가해형	양자형
사례수	313	176	133
1번	47.5	50.9	42.5
2-3번	32.8	36.6	28.3
4-5번	10.3	6.9	15.2
6번 이상	9.4	5.5	14.1
평균	<b>4.33</b>	<b>3.28</b>	<b>5.30</b>

2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횟수에 대하여 이상점(outlier)로 인해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0번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횟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10번으로 재부호화하였다.

6)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자형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6.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피해형(35.8%), 가해형(27.4%), 그리고 무경험형(1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형과 양자형인 경우에 다른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27〉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수준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사례수	6,954	455	181	191	6,128
심각하지 않다	48.0	30.2	38.0	19.1	50.5
보통이다	30.3	34.0	34.6	24.2	30.1
심각하다	21.7	35.8	27.4	56.7	19.3

7)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학교 및 학원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이 무경험형인 경우에는 미래 진로와 직업이라는 응답이 13.1%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자형의 경우에는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가 각각 20.9%와 1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8〉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부모와의 평소 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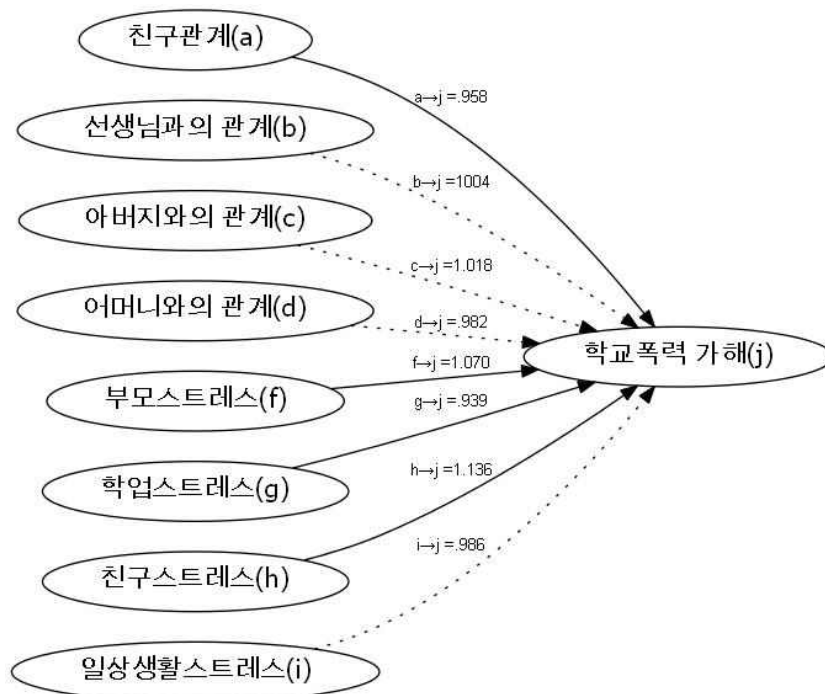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학교폭력 경험 유형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사례수	6,925	456	178	191	6,100
학교 및 학원생활	32.7	33.1	30.6	30.9	32.8
공부와 성적	15.7	15.0	12.8	20.9	15.7
미래 진로와 직업	12.8	11.1	12.3	8.6	13.1
취미와 여가활동	10.8	7.8	11.6	8.8	11.1
친구관계	10.0	13.8	12.7	17.3	9.4
기타	17.9	19.2	20.1	13.5	17.9

## 8)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친구관계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는 학교폭력 가해에 정적(positive)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모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 1. 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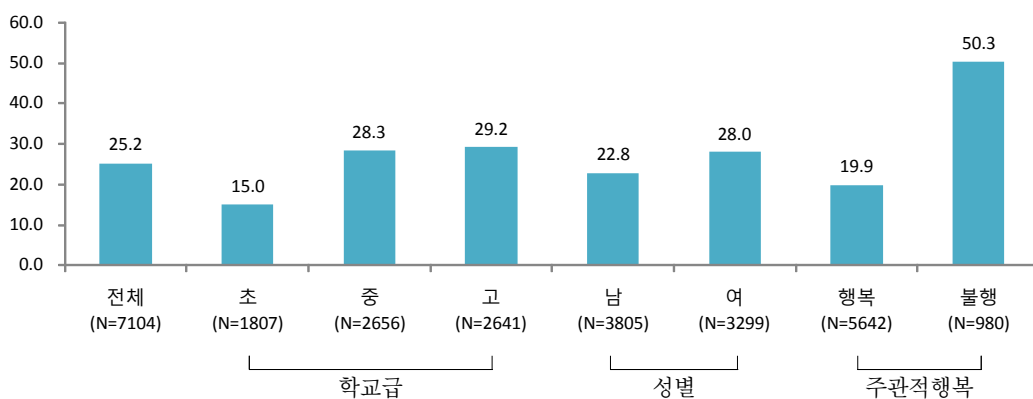
### 1) 가출충동 경험

#### ① 가출충동 경험률

- 이번 조사 대상자의 25.2%가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15.0%, 중학생의 28.3%, 고등학생의 29.2%가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로는 남학생(22.8%)에 비해 여학생(28.0%)의 가출충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의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행복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50.3%가 한 번 이상의 가출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행복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가출충동 비율도 1/5에 달하는 19.9%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림 5-2〉 가출충동 경험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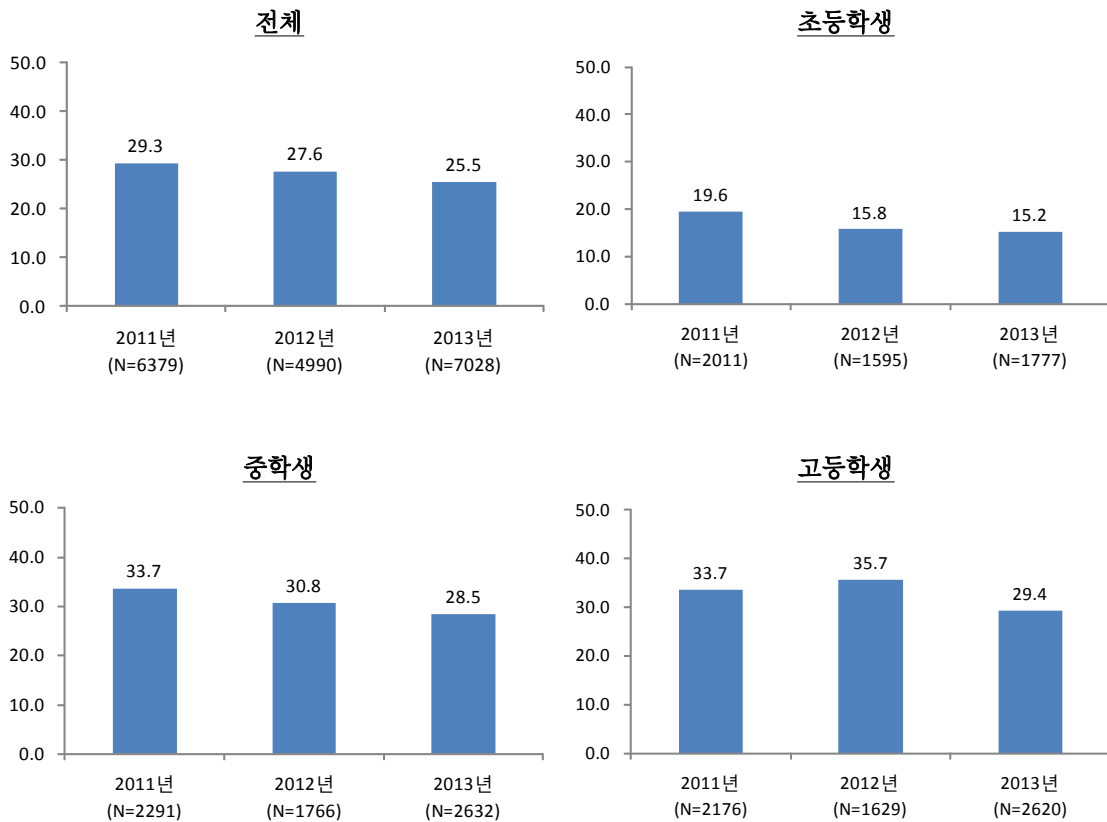


②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출충동 경험률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매년 약 2% 정도씩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19.6%에서 2013년 15.2%로 4.4%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중학생의 경우도 2011년 약 33.7%에서 2013년 28.5%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엔 2012년에는 35.7%로 2011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2011년~2013년, 가출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





## 2) 가출충동 발생 이유

### ① 가출충동 발생 이유

- 가출충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가출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부모와의 갈등을 비롯한 가족요인, 그리고 성적 하락 및 학업부담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 응답자의 74.7%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형제와의 갈등, 부모님 사이의 갈등, 가정 불화 등을 포함하면 가족내 갈등 요인이 전체 가출충동 발생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적 하락'의 비중이 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중학생들이다(77.4%). '성적 하락'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9〉 가출충동 발생 이유

구분	(단위 : %)			
	전체	초	중	고
사례수	1,784	271	749	765
부모님과의 갈등	74.7	64.9	77.4	75.6
성적 하락	6.8	7.3	6.4	7.0
주위의 무관심	3.4	6.9	3.4	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2.1	0.8	2.4
기타	1.6	1.3	1.0	2.4
친구들과 어울려서	1.3	1.3	1.5	1.1
학원때문에	1.1	3.5	1.4	-
형제와의 갈등	1.1	2.4	0.9	0.9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0.9	2.2	0.9	0.4
자유롭지 못해서	0.8	0.4	0.8	0.9
이유 없이/그냥	0.7	0.5	0.6	0.9
힘들어서/스트레스 때문에	0.7	0.8	0.8	0.5
가정의 불화	0.6	2.3	0.2	0.3
친구들과의 갈등	0.6	1.4	0.6	0.4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0.6	1.1	0.8	0.3
선생님과의 갈등	0.5	0.4	0.8	0.3
부모님 사이의 갈등	0.5	1.2	0.4	0.4
호기심에	0.3	-	0.1	0.5
일상이 지루해서	0.2	-	0.2	0.1
이해받지 못해서	0.2	-	0.3	0.2
학교가 싫어서	0.2	-	0.1	0.2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0.2	-	-	0.5
답답해서	0.2	-	0.1	0.5
꿈을 위해서	0.2	-	-	0.5
혼자 있고 싶어서	0.2	-	-	0.5
집이 싫어서	0.1	-	-	0.2
우울해서	0.1	-	0.1	0.2
모두 다	0.1	-	0.2	0.1
생각이 복잡해서	0.1	-	-	0.2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0.1	-	-	0.2
세상이 싫어서	-	-	-	0.1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	-	0.1	-
계	100.0	100.0	100.0	100.0

②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출충동 발생 이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출충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인 '부모님과의 갈등'은 전체 응답자 기준, 2011년 약 70.2%에서 2013년 74.7%로 4.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성적 하락' 때문에 가출하고 싶었다는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3년 6.8%로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충동 비율은 2011년 대비 약 7.7%포인트 증가했고, '성적 하락'은 2011년 대비 2.0%포인트 감소했다.
  -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충동이 2011년 대비 4.8%포인트 증가했고, '성적하락'은 1.6%포인트 감소했다.
  - 고등학생의 경우도 '부모님과의 갈등'이 0.8%포인트 증가했고, '성적하락'도 2011년 대비 1.2%포인트 늘어났다.

〈표 5-30〉 2011년~2013년 가출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	1855	1367	1784	393	246	271	734	541	749	727	580	765
부모님과의 갈등	70.2	71.0	74.7	57.2	61.0	64.9	72.6	72.1	77.4	74.8	74.3	75.6
성적 하락	7.4	6.7	6.8	9.3	7.1	7.3	8.0	8.7	6.4	5.8	4.6	7.0
주위의 무관심	3.5	3.2	3.4	8.8	7.4	6.9	2.0	2.3	3.4	2.2	2.3	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7	1.7	1.7	2.6	2.1	2.1	1.3	1.7	0.8	1.7	1.6	2.4
친구들과 어울려서	1.7	2.4	1.3	0.7	0.6	1.3	1.8	3.0	1.5	2.1	2.6	1.1
친구들과의 갈등	2.4	1.2	0.6	3.8	1.7	1.4	2.9	1.0	0.6	1.2	1.1	0.4
학교에서의 폭력때문에	0.8	0.9	0.6	0.5	2.4	1.1	0.9	1.0	0.8	0.9	0.3	0.3
선생님과의 갈등	0.6	0.7	0.5	0.9	1.7	0.4	0.8	0.4	0.8	0.3	0.6	0.3

\* 0.5% 미만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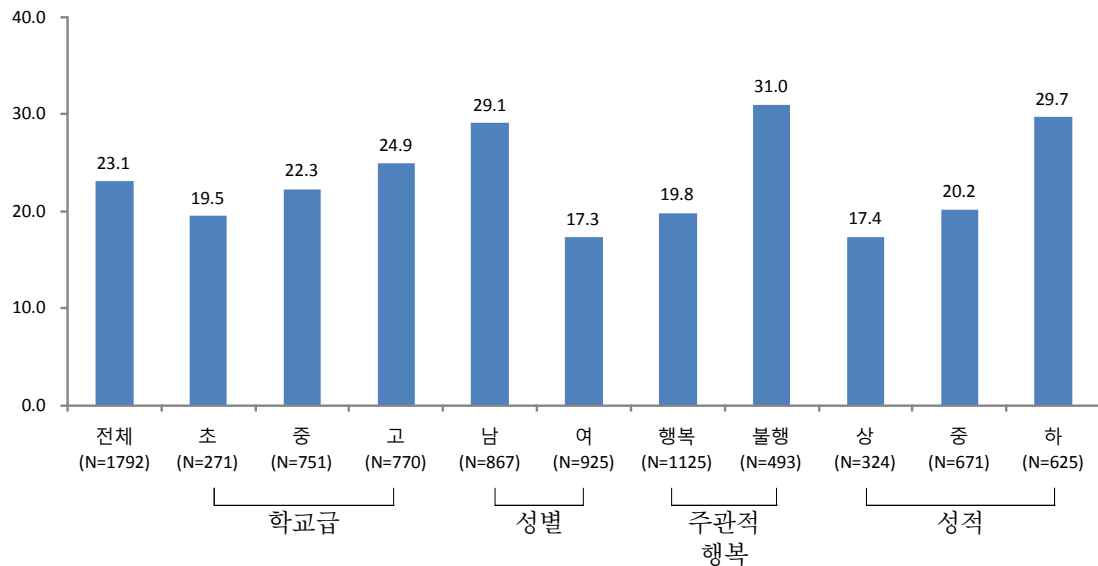
### 3) 가출시도 경험

#### ① 가출시도율

- 가출충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3.0%가 실제로 가출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9.5%, 중학생 22.3%, 고등학생 24.9%가 가출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출시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 주관적 행복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가출시도율을 살펴본 결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가출시도율이 31.0%로 행복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행복 집단의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19.8%의 학생들이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가출이라는 청소년 일탈행위의 발생 요인이 행복 정도만으로 변별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성적 상, 중, 하 집단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성적 하위집단은 10명 중 3명꼴인 29.7%가 가출을 시도해봤다고 응답했고, 상위집단의 가출시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7.4인 것으로 나타나 성과 가출시도율이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공부를 잘 하는 상위집단에서도 가출시도율이 17.4%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림 5-4〉 가출시도 경험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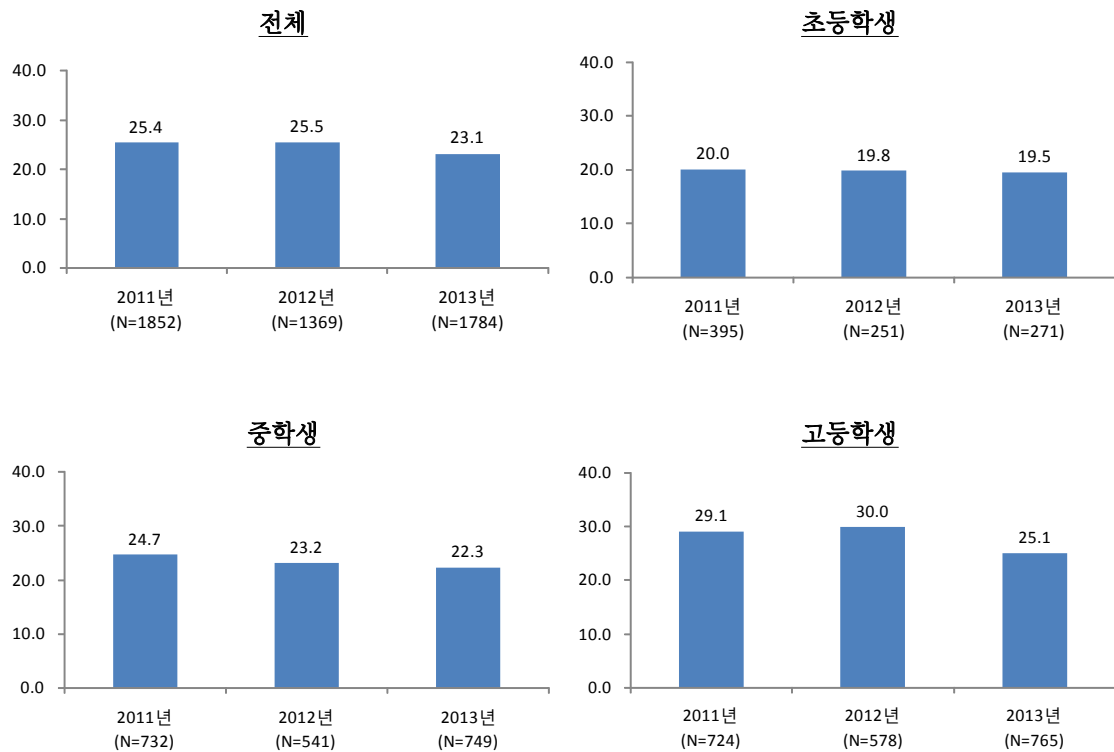


②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2011-2013)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출시도율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11년(25.4%)과 2012년(25.5%)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가출시도율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9.5%를 나타냈다.
  - 중학생은 2011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22.3%를 나타냈다.
  - 고등학생의 가출시도율은 2011년 대비 4.0%포인트 감소한 25.1%로 초중생보다 감소폭이 큰 편이다.

〈그림 5-5〉 2011년~2013년, 가출시도율 변화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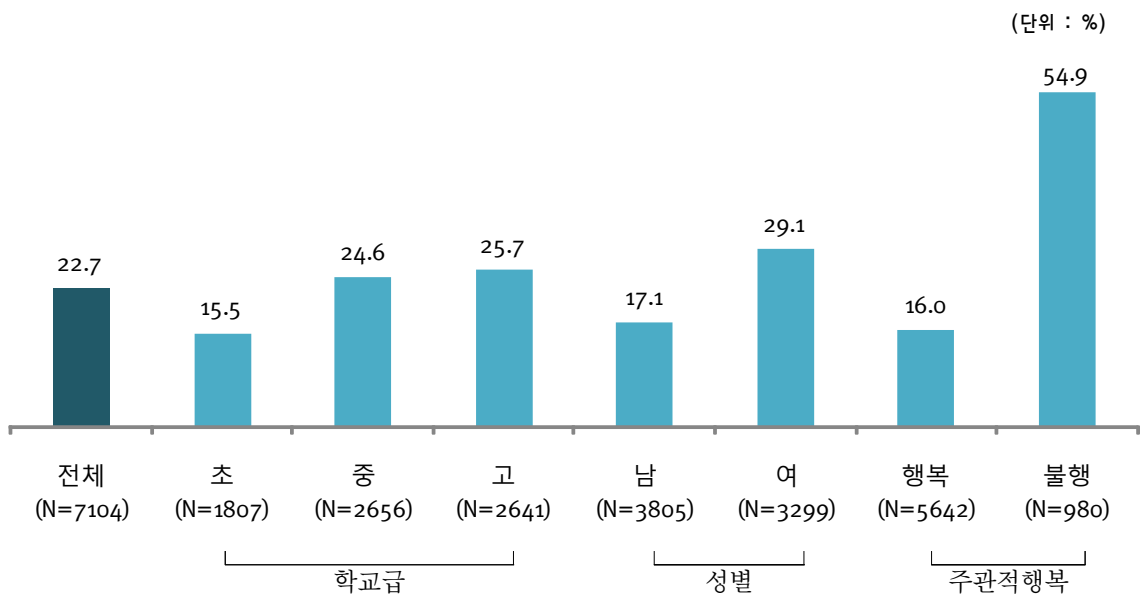
## 2. 자살

### 1) 자살충동 경험

#### ① 자살충동 경험률

- 이번 조사 대상자의 22.7%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15.5%, 중학생의 24.6%, 고등학생의 25.7%가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출충동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 차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가출충동 경험과 마찬가지로 남학생(17.1%)에 비해 여학생(29.1%)의 자살충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의 정도를 행복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역시 가출충동과 동일하게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54.9%로 행복 집단(16.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출충동 경험률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이 16%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자살충동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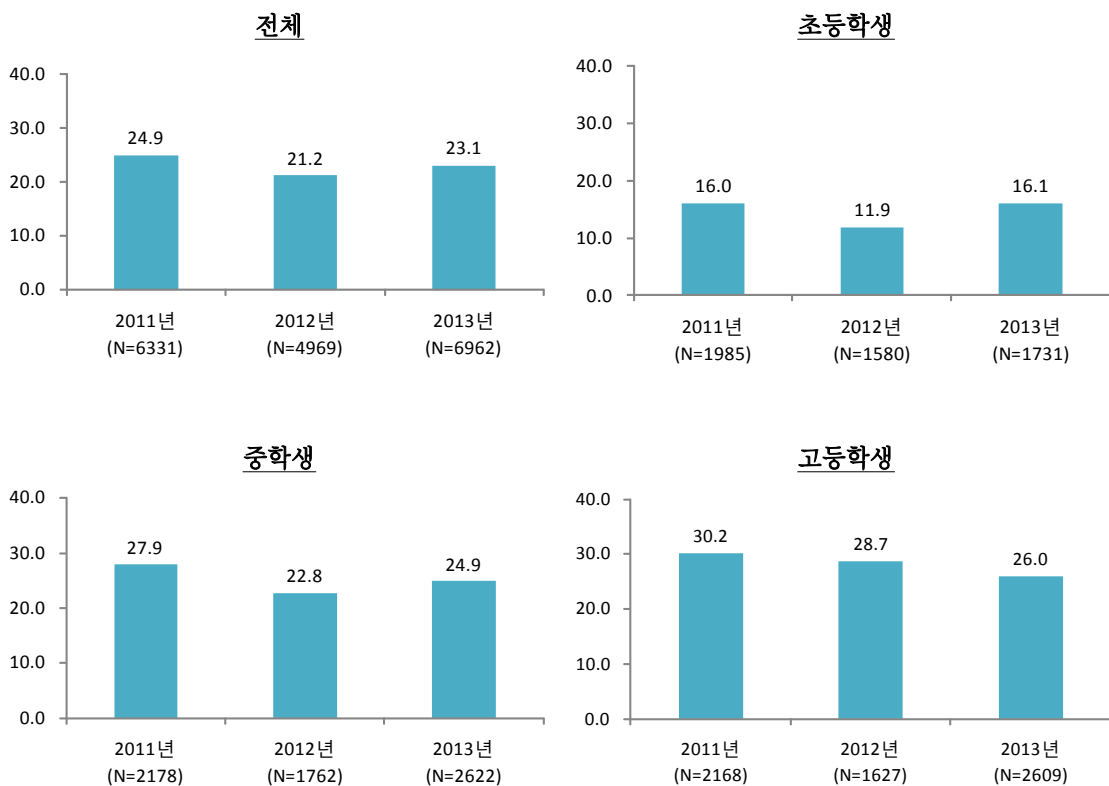


②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011년 24.9%에서 2012년 21.2%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한 23.1%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자살충동 경험률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16.0%이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2012년에는 4.1%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2013년 16.1%로 높아졌다.
  -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27.9%에서 2012년에는 22.8%로 5.1%포인트 가량 감소했었으나 2013년 다시 2.1%포인트 정도 증가해 24.9%의 자살충동 경험률을 나타냈다.
  - 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2011년 이래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1년에는 무려 3명 중 1명꼴인 30.2%가 자살을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13년에는 4.2%포인트 가량 감소한 26.0%를 나타냈다.

〈그림 5-7〉 2011년~2013년 자살충동 경험률 변화추이

(단위 : %)



## 2) 자살충동 발생 이유

### ① 자살충동 발생 이유

- 자살충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을 비롯한 가족요인, 그리고 성적 하락 및 학업부담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는 가출충동을 느끼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 응답자의 36.8%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꼽았고, 다음으로 성적 하락 및 학업 부담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자살충동 발생 이유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충동이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43.5%) 이 역시 가출충동과 동일하다. '성적 하락'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7.3%).

〈표 5-31〉 자살충동 발생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사례수	1,598	277	649	672
부모님과의 갈등	36.8	27.6	43.5	34.2
성적 하락	14.3	11.6	12.4	17.3
친구들과의 갈등	9.3	8.6	12.6	6.4
주위의 무관심	8.1	13.2	7.4	6.6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4.8	10.5	4.5	2.8
기타	4.5	2.1	3.8	6.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4.2	7.9	1.7	5.0
힘들어서/스트레스 때문에	2.8	2.7	2.8	2.8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2.1	0.5	1.7	3.1
우울해서	1.9	1.3	0.3	3.6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1.7	2.2	1.5	1.7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1.4	1.2	1	1.9
이유 없이/그냥	1.0	1.2	0.3	1.6
친구들과 어울려서	0.9	1.1	1.2	0.6
학원때문에	0.8	2.9	0.9	-
선생님과의 갈등	0.8	1.1	0.6	0.8
형제와의 갈등	0.8	1.1	0.8	0.6
생각이 복잡해서	0.6	0.4	0.9	0.5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0.5	-	0.2	1.1
자유롭지 못해서	0.4	0.5	0.3	0.4
부모님 사이의 갈등	0.4	0.7	0.3	0.3
모두 다	0.4	0.1	0.7	0.2
가정의 불화	0.4	0.8	0.2	0.5
이성친구 때문에	0.3	-	0.2	0.6
이해받지 못해서	0.2	0.8	-	0.2
일상이 지루해서	0.2	-	-	0.6
세상이 싫어서	0.1	-	-	0.1
호기심에	0.1	-	0.1	-
답답해서	0.1	-	-	0.2
학교가 싫어서	0.1	-	-	0.3
모름	0.1	-	0.2	-

- 자살의 경우는 가출충동 발생 이유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 가출충동 이유의 대부분인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갈등 요인이 자살충동의 경우엔 36.8%인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 가출충동의 발생 이유에선 언급되지 않거나 작은 비중에 불과한 '친구들과의 갈등'(9.3%), '주위의 무관심'(8.1%), '학교폭력'(4.8%), '경제적인 어려움'(4.2%) 등이 자살충동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즉, 자살의 경우 가출에 비해 충동을 느끼는 원인이 다양할 뿐 아니라 친구를 비롯한 주변사람과의 관계, 학교폭력 등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어린이·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2011년~2013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살충동 발생 이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자살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은 '부모님과의 갈등'이며 그 비율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매해 36%~37%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성적 하락'은 2011년 15.9% 수준에서 2013년 14.3% 정도로 약간 감소했고, '친구들과의 갈등'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9.3%를 나타냈다.

〈표 5-32〉 2011년-2013년 자살충동 발생 이유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전체			초			중			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사례수	1570	1047	1598	313	186	277	604	399	649	653	461	672
부모님과의 갈등	37.2	36.2	36.8	38.4	34.7	27.6	42.1	38.0	43.5	32.2	35.2	34.2
성적 하락	15.9	12.6	14.3	9.4	8.0	11.6	17.7	12.4	12.4	17.3	14.6	17.3
친구들과의 갈등	9.4	8.7	9.3	6.6	8.3	8.6	11.8	10.3	12.6	8.6	7.4	6.4
주위의 무관심	5.4	6.0	8.1	8.8	10.0	13.2	3.5	5.0	7.4	5.5	5.3	6.6
학교에서의 폭력	1.7	3.4	4.8	2.4	6.9	10.5	1.6	4.2	4.5	1.6	1.4	2.8
경제적인 어려움	2.8	3.3	4.2	2.7	2.7	7.9	1.6	3.0	1.7	4.0	3.8	5.0
힘들어서/스트레스	0.0	0.0	2.8	0.0	0.0	2.7	0.0	0.0	2.8	0.0	0.0	2.8
삶에 대한 회의감	0.0	0.0	2.1	0.0	0.0	0.5	0.0	0.0	1.7	0.0	0.0	3.1
우울해서	0.0	0.0	1.9	0.0	0.0	1.3	0.0	0.0	0.3	0.0	0.0	3.6
학업에 대한 부담	0.0	0.0	1.7	0.0	0.0	2.2	0.0	0.0	1.5	0.0	0.0	1.7
자신에 대한 자괴감	0.0	0.0	1.4	0.0	0.0	1.2	0.0	0.0	1.0	0.0	0.0	1.9
이유 없이/그냥	0.0	0.0	1.0	0.0	0.0	1.2	0.0	0.0	0.3	0.0	0.0	1.6
친구들과 어울려서	1.0	1.0	0.9	1.8	0.0	1.1	0.9	1.3	1.2	0.6	1.1	0.6
형제와의 갈등	0.0	0.0	0.8	0.0	0.0	1.1	0.0	0.0	0.8	0.0	0.0	0.6
선생님과의 갈등	0.5	0.9	0.8	0.4	0.6	1.1	0.4	0.9	0.6	0.7	1.0	0.8
학원때문에	0.0	0.0	0.8	0.0	0.0	2.9	0.0	0.0	0.9	0.0	0.0	0.0
생각이 복잡해서	0.0	0.0	0.6	0.0	0.0	0.4	0.0	0.0	0.9	0.0	0.0	0.5
진로에 대한 불안감	0.0	0.0	0.5	0.0	0.0	0.0	0.0	0.0	0.2	0.0	0.0	1.1
자유롭지 못해서	0.0	0.0	0.4	0.0	0.0	0.5	0.0	0.0	0.3	0.0	0.0	0.4
모두 다	0.0	0.0	0.4	0.0	0.0	0.1	0.0	0.0	0.7	0.0	0.0	0.2
부모님 사이의 갈등	0.0	0.0	0.4	0.0	0.0	0.7	0.0	0.0	0.3	0.0	0.0	0.3
가정의 불화	0.0	0.0	0.4	0.0	0.0	0.8	0.0	0.0	0.2	0.0	0.0	0.5
이성친구 때문에	0.0	0.0	0.3	0.0	0.0	0.0	0.0	0.0	0.2	0.0	0.0	0.6
일상이 지루해서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6
이해받지 못해서	0.0	0.0	0.2	0.0	0.0	0.8	0.0	0.0	0.0	0.0	0.0	0.2
세상이 싫어서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호기심에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0	0.0
학교가 싫어서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3
답답해서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2
기타	26.0	28.0	4.5	29.4	28.8	2.1	20.4	24.9	3.8	29.5	30.4	6.2
모름	0.0	0.0	0.1	0.0	0.0	0.0	0.0	0.0	0.2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38.4%가 넘던 자살충동 비율이 2013년에는 이보다 10.8%포인트 정도 줄어든 27.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하락과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증가했다.
  - 중학생의 모두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큰 요인은 '성적 하락'으로 2011년에 비해 5.3%포인트 가량 감소한 12.4%를 나타냈다.
  - 고등학생의 경우엔 두드러진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 학교폭력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초중고 모든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서 이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제5장 주관적 행복 영향요인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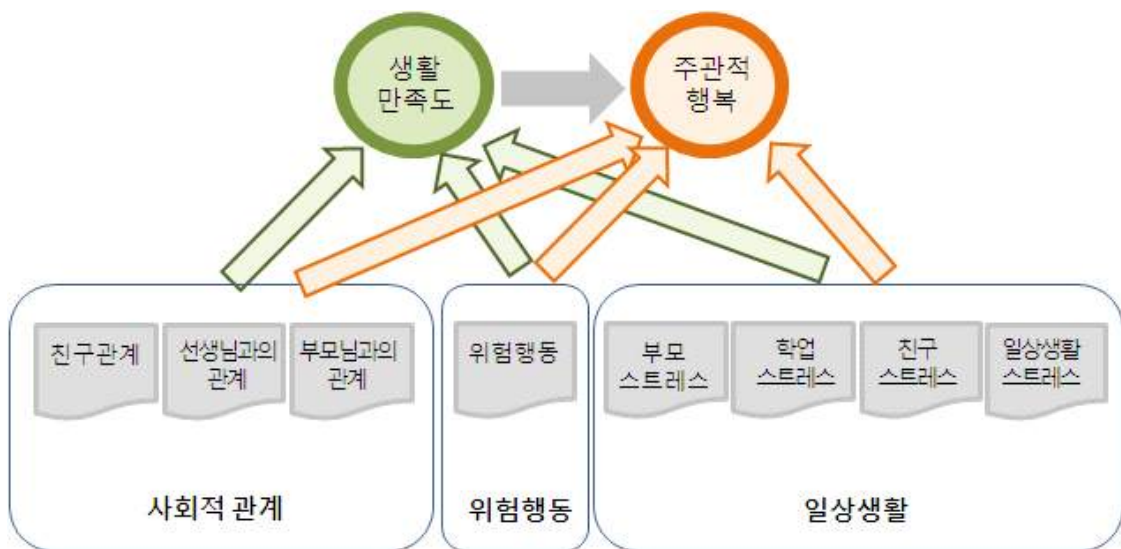
담당연구자

박 현 수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원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 위험행동, 일상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매개변인으로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설정한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1〉 분석모형



- 이와 같은 분석모형을 통해 2012년 조사자료와 2013년 조사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도의 자료에서 학교급별로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분석모형에서 사회적 관계는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친구관계는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선생님과 관계는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와 '학교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부모님과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어머니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얘기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위험행동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 '주 1회 이상 흡연 경험', '지금까지 2회 이상 음주 경험', '최근 1년간 신체적 싸움 경험', '가출충동 경험', '자살충동 경험'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각각 경험이 '있다'와 '없다'로 측정하였고, 분석시에는 경험한 위험행동의 수로 구성하였다.
- 일상생활은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우선 부모스트레스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친구스트레스는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고,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주관적 행복도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내 삶에 만족한다',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외롭다(역순으로 재부호화)'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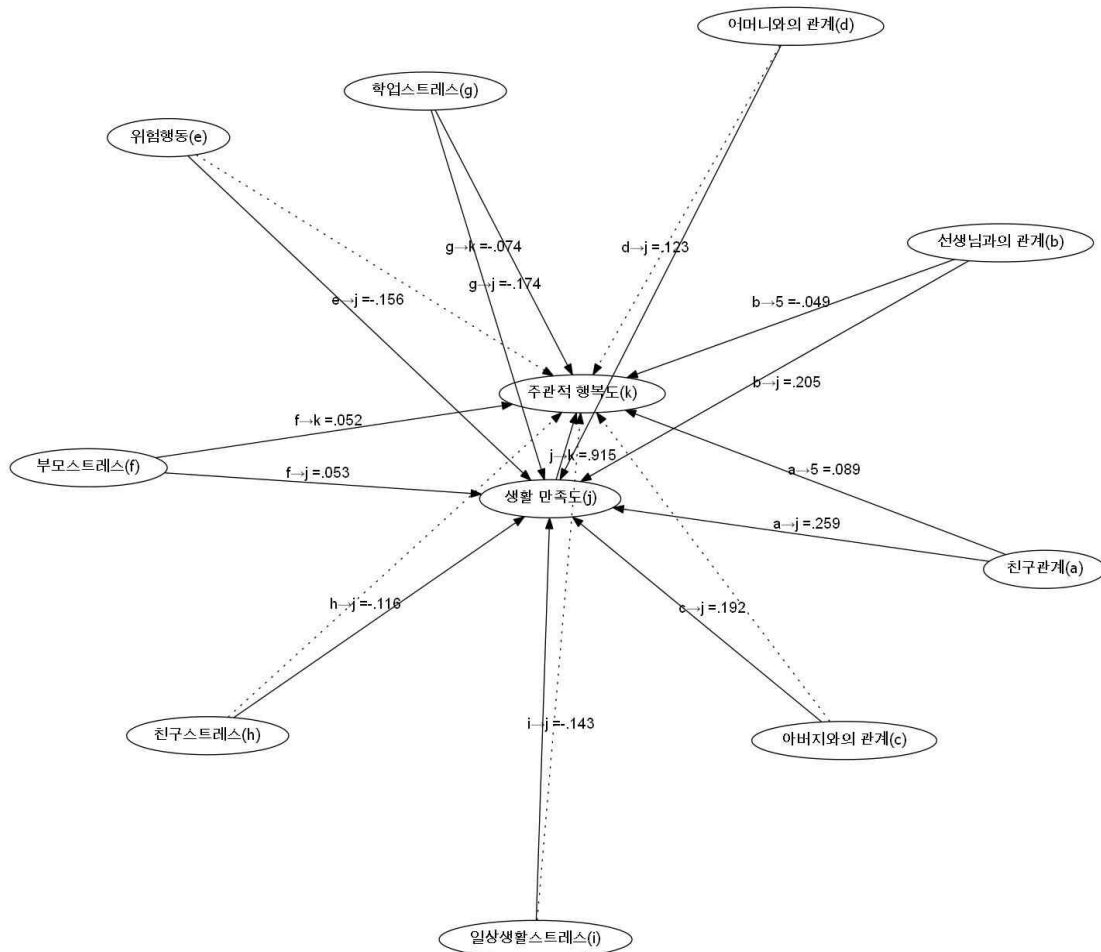
### 1. 2012년 전체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2년 자료의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2>와 같다. 우선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58이고, RMSEA 값은 .065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2012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17584.484	686	.858	.065

<그림 6-2> 2012년 전체 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의 계수는 .259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205), 아버지와의 관계(.192), 학업스트레스(0.174)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부모님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와의 관계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제하고, 부모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부모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님의 높은 관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915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089), 학업스트레스(-.074), 부모스트레스(.052)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적으로 친구관계를 통해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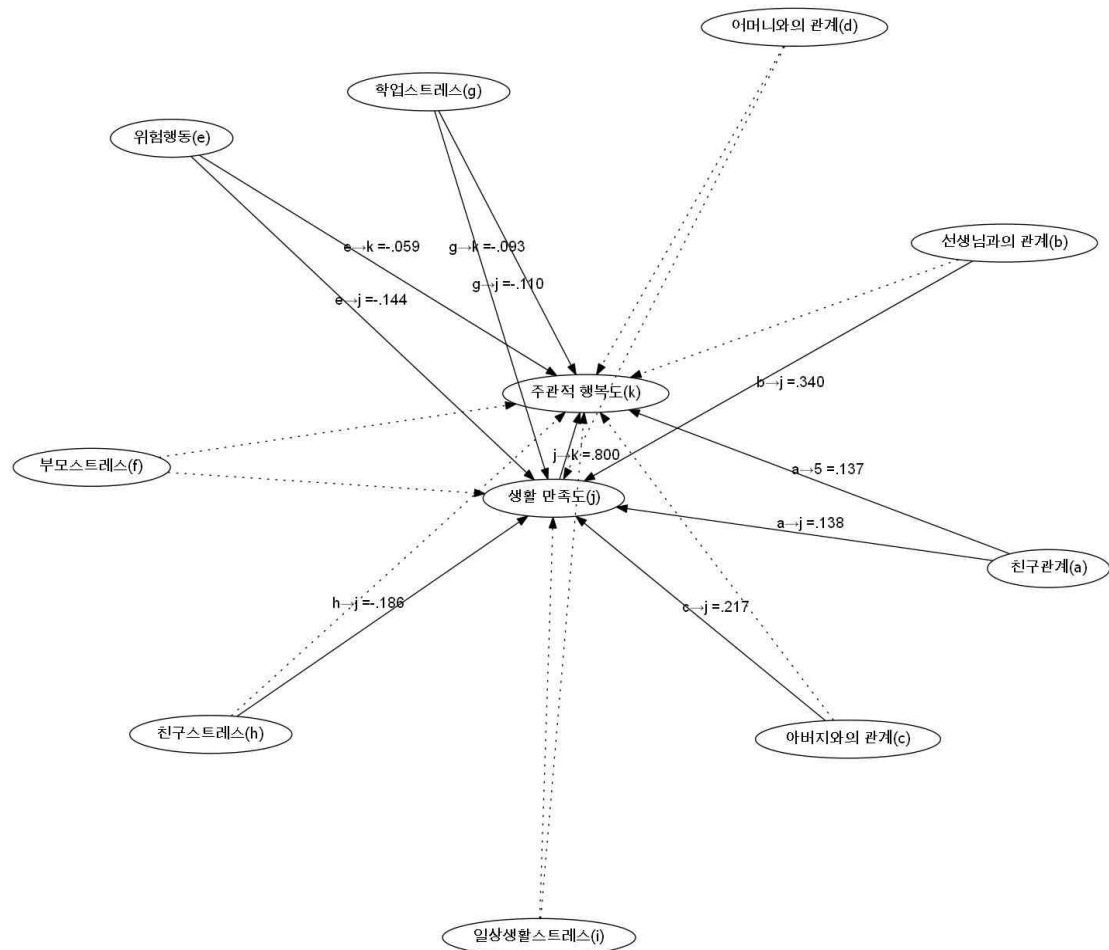
## 2. 2012년 초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2년 자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3>과 같다. 우선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70이고, RMSEA 값은 .060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2012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4397.497	686	.870	.060

<그림 6-3> 2012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계수는 .340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217), 친구스트레스(-.186), 위험행동(-.144)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800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137), 학업스트레스(-.093), 위험행동(.059)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적으로 친구관계를 통해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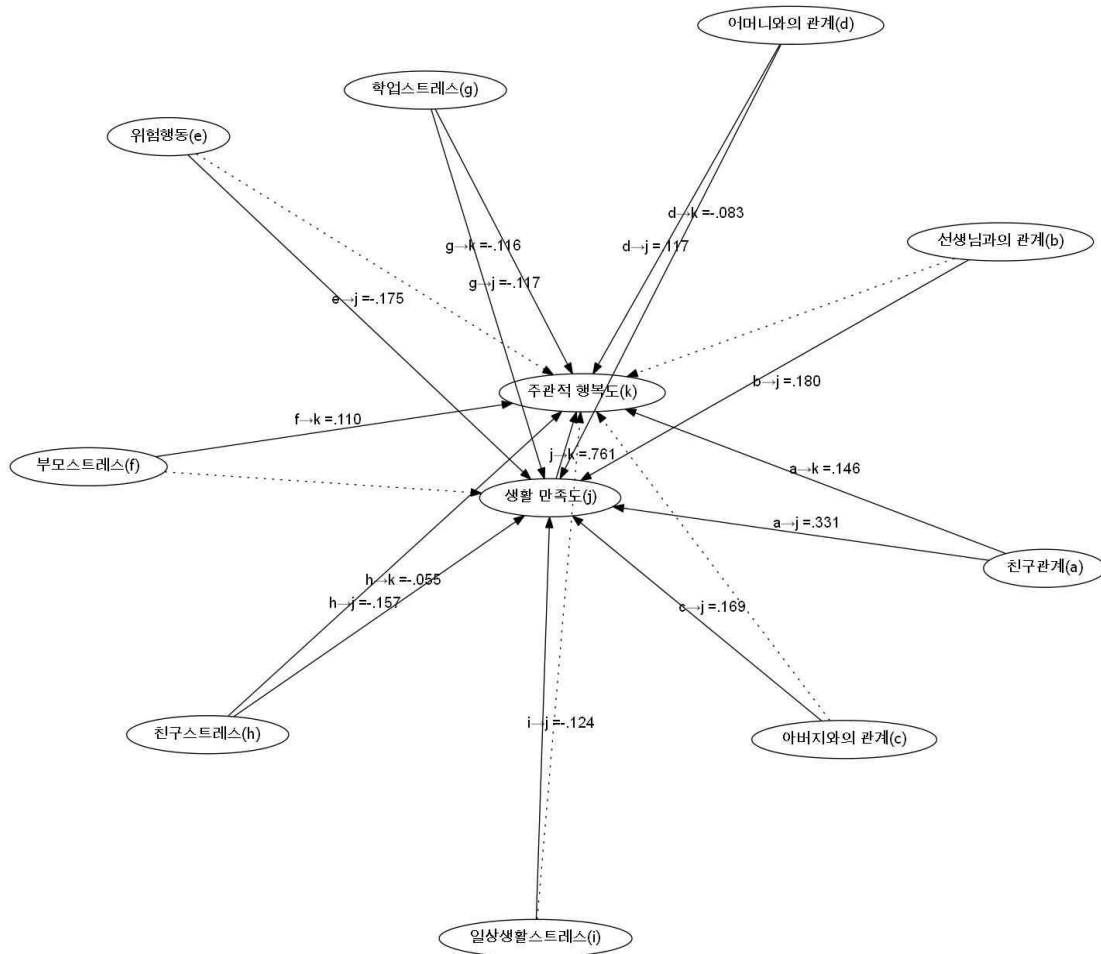
### 3. 2012년 중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2년 자료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4>와 같다. 우선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56이고, RMSEA 값은 .065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2012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5970.824	686	.856	.065

<그림 6-4> 2012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3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 의 관계(.180), 위험행동(-.175), 아버지와의 관계(.169), 친구스트레스(-.157)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761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146), 학업스트레스(-.116), 부모스트레스(.11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적으로 친구관계,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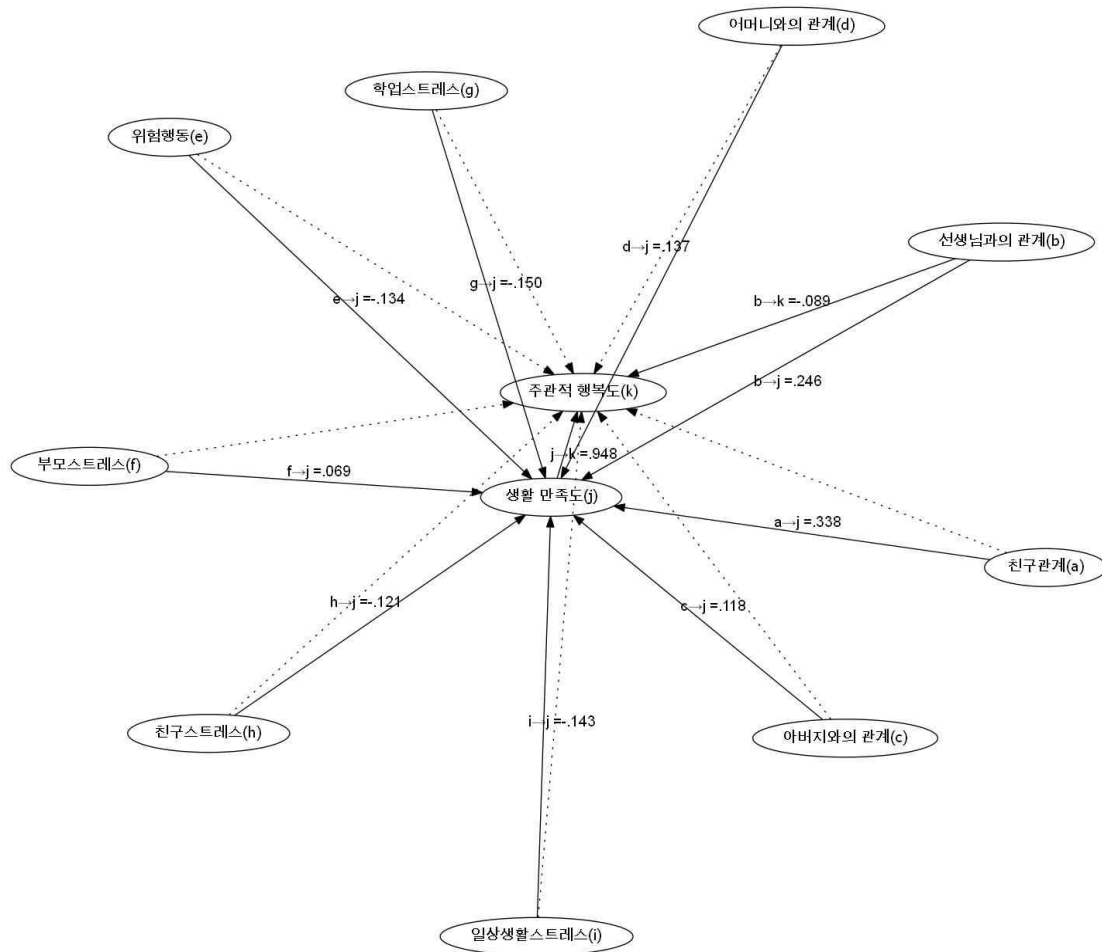
#### 4. 2012년 고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2년 자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5>와 같다. 우선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35이고, RMSEA 값은 .067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2012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8480.187	686	.835	.067

<그림 6-5> 2012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3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246), 학업스트레스(-.150), 일상생활스트레스(-.143), 어머니와의 관계(.137)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스트레스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선생님과의 관계와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948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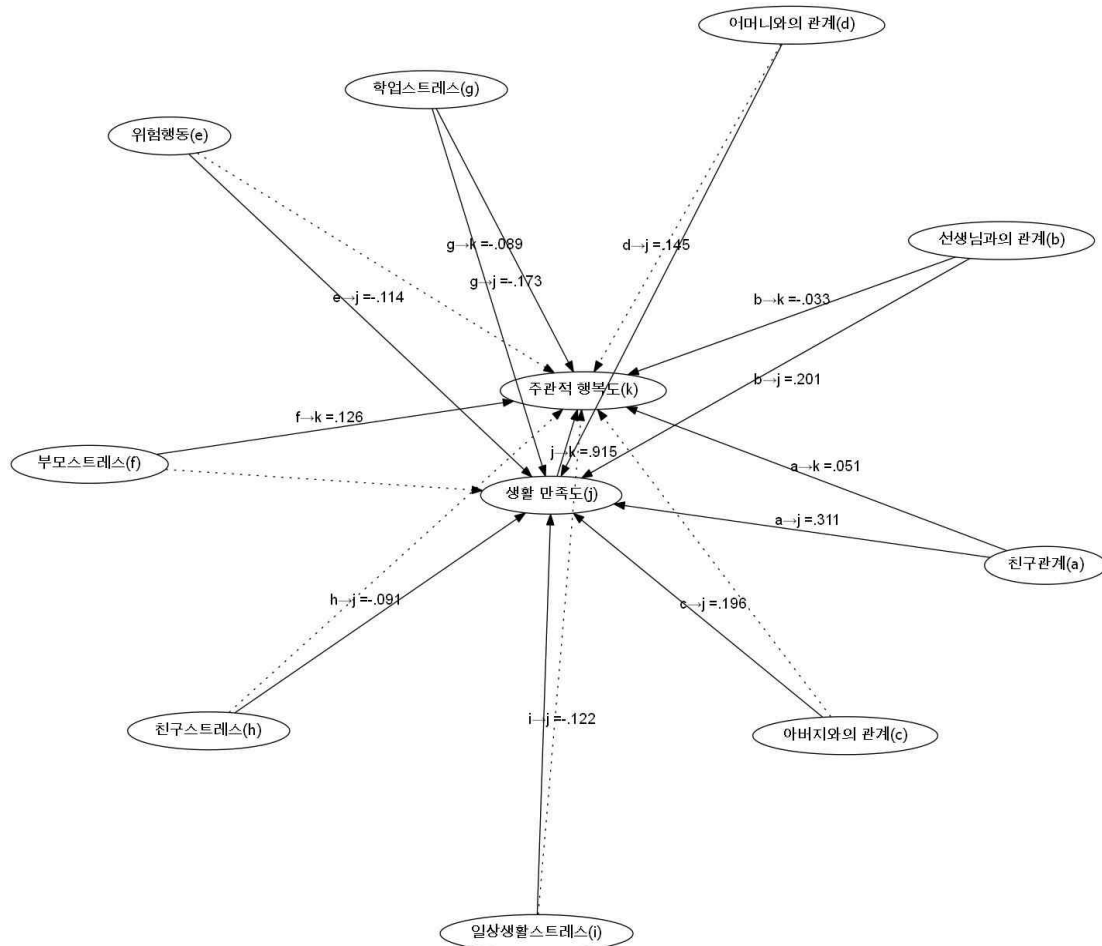
### 1. 2013년 전체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3년 자료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6>과 같다. 우선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71이고, RMSEA 값은 .062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2013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15381.585	686	.871	.062

<그림 6-6> 2013년 전체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1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201), 아버지와의 관계(.196), 학업스트레스(-.173), 어머니와의 관계(.145)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915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가적으로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등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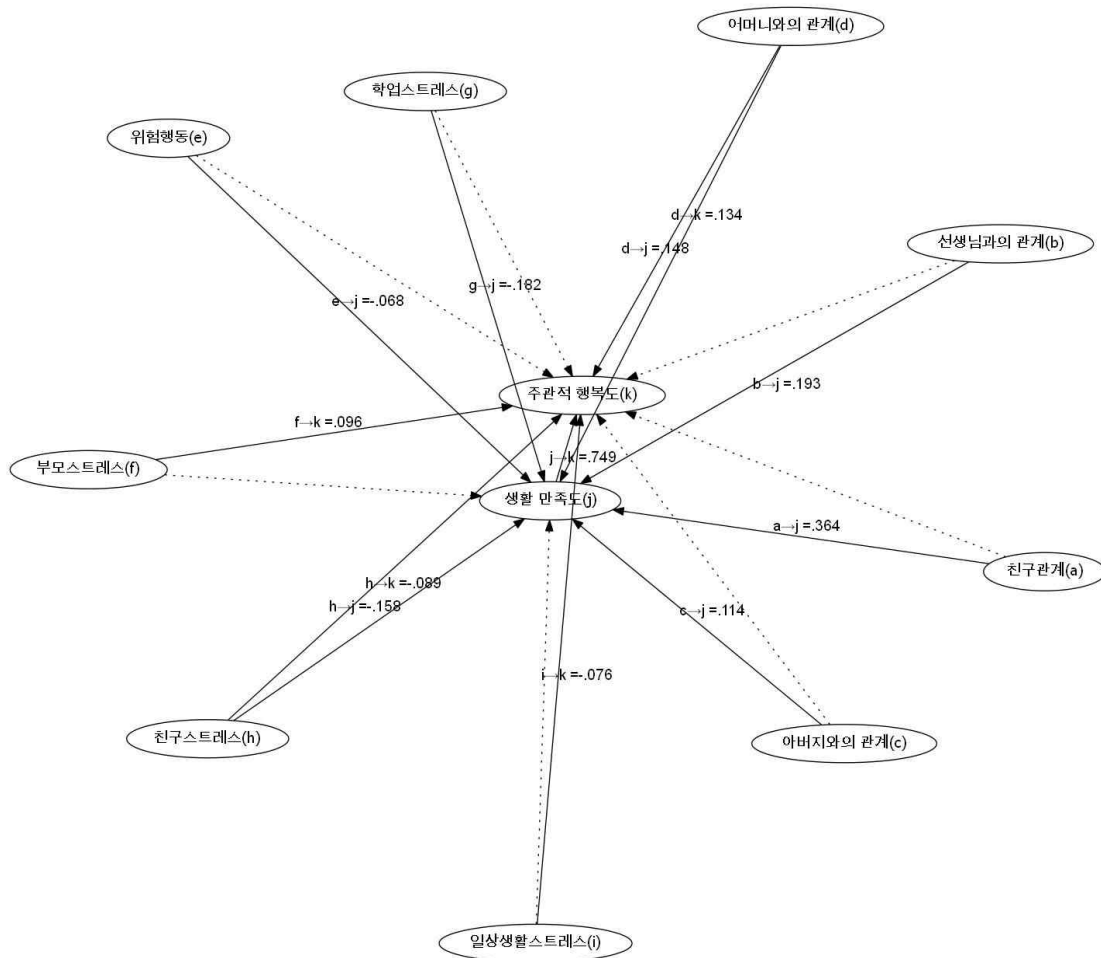
## 2. 2013년 초등학생 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3년 자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7>과 같다. 우선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72이고, RMSEA 값은 .060으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2013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4290.668	686	.872	.060

<그림 6-7> 2013년 초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학생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64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와의 관계(.193), 학업스트레스(-.182), 친구스트레스(-.158), 어머니와의 관계(.148)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일상생활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749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나 부모스트레스 등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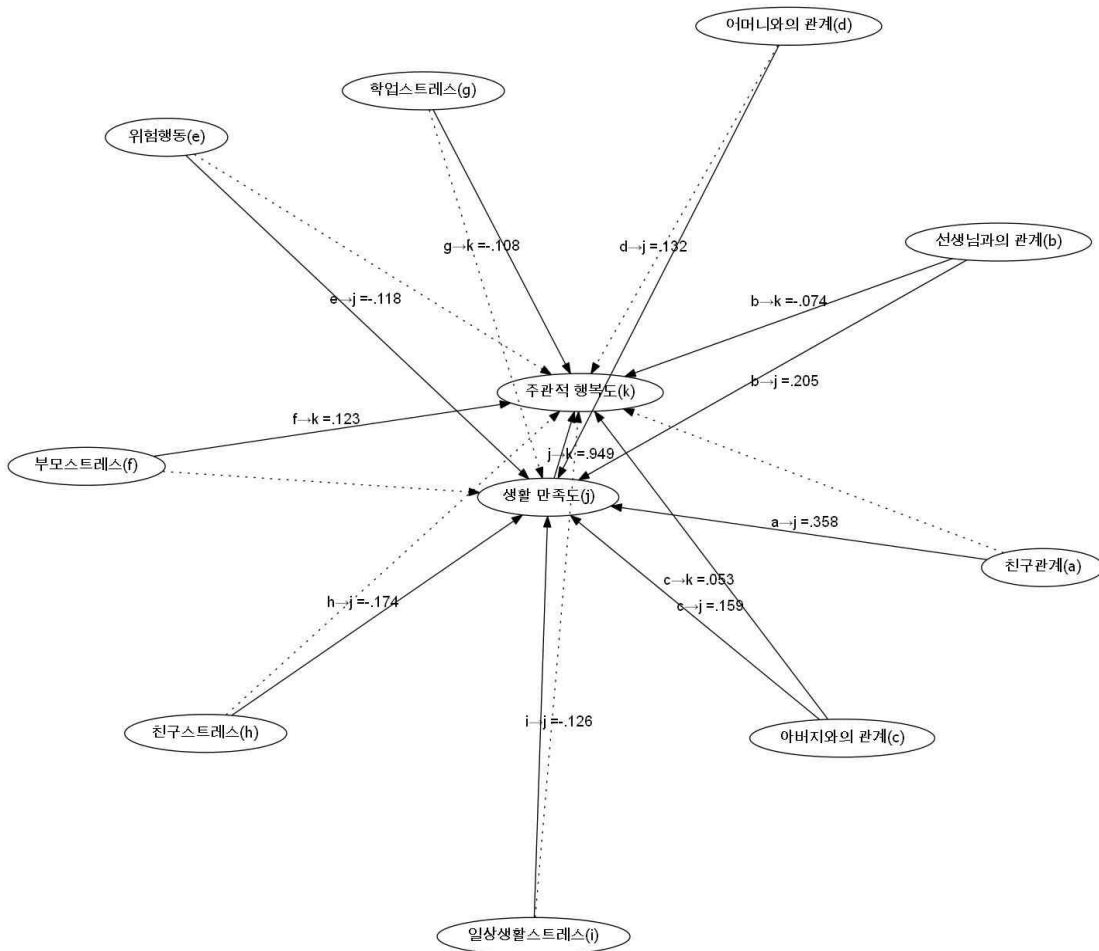
### 3. 2013년 중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3년 자료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8>과 같다. 우선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71이고, RMSEA 값은 .062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2013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6154.180	686	.871	.062

<그림 6-8> 2013년 중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5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와의 관계(.205), 친구스트레스(-.174), 아버지와의 관계(.159), 어머니와의 관계(.132)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949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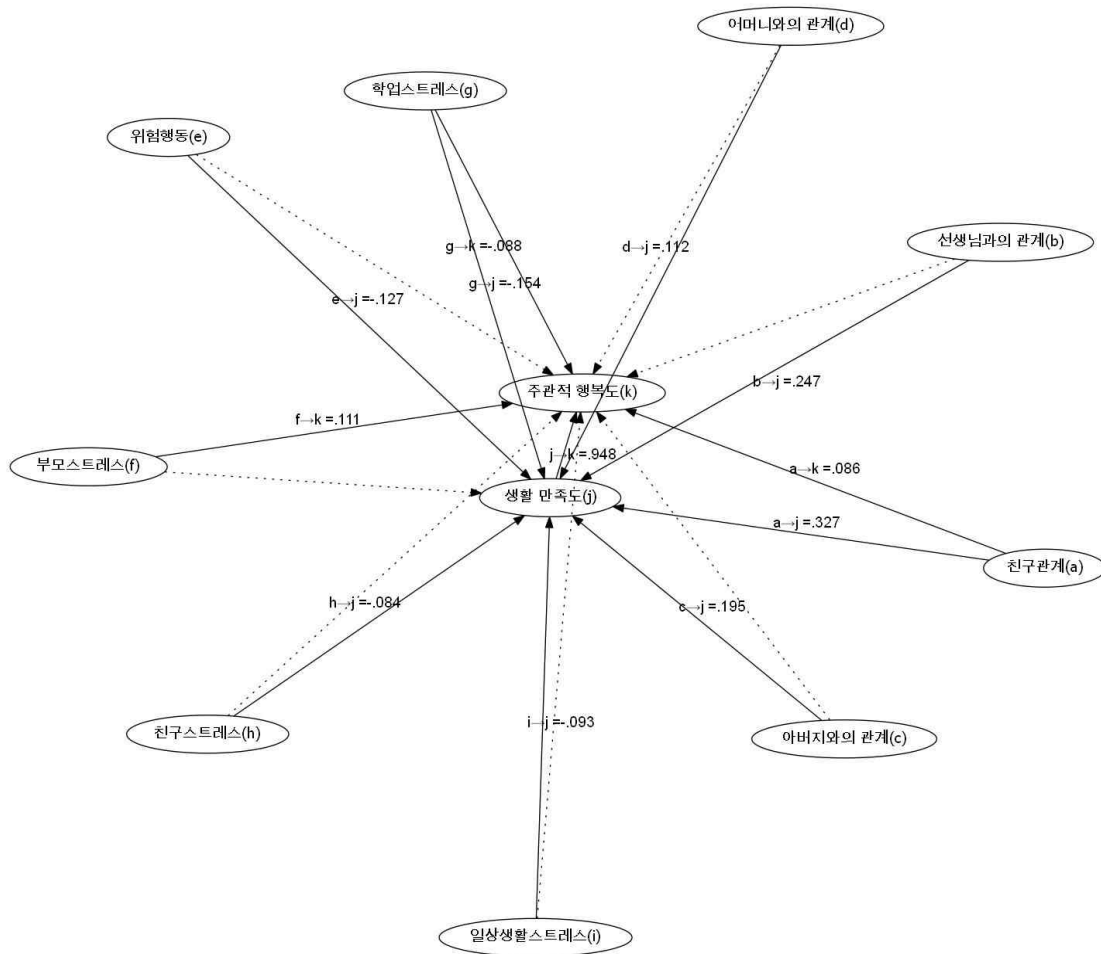
#### 4. 2013년 고등학생 대상 분석 결과

- 2013년 자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9>와 같다. 우선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은 .852이고, RMSEA 값은 .064로 모형적합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2013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자유도	CFI	RMSEA
6425.218	686	.852	.064

<그림 6-9> 2013년 고등학생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친구관계 계수는 .32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247), 아버지와의 관계(.195), 학업스트레스(-.154), 위험행동(-.127)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행동,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친구와의 관계,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생활 만족도의 계수는 .948로 주관적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생활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등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 부록 : 설문지